

2024년 제26회

# 지속가능발전 공모전 우수사례집



 국 무 조 정 실  
국무총리비서실

 사단법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편집자 주

---

「제26회 지속가능발전 공모전」은 2024년, ‘민관협력’을 주제로하여 다소 제한적이었으나 소모임, 단체, 기업,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부문에서 총32개의 사례가 접수되었습니다. 서면(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13개 사례를 대상으로 전국민 온라인 투표심사 및 발표심사를 진행하여 합산하고 최종심사를 거쳐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10점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례들은 「2024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에서 시상하고, 우수사례발표회(학습교류회)를 통해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사례별로 1)스토리 2)응모사례 소개서 3)발표자료(PPT) 순으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먼저 사례별 스토리만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응모사례 소개서’는 심사를 위해 작성·제출된 일종의 서류이고, 발표자료(PPT)는 발표심사에 실제 사용된 자료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더 많이 더 널리 국내·외에 알리고 확산하기 위해 이 책자를 발행합니다.

---

## 총 평

『제26회 지속가능발전 공모전』에는 총 32개 사례가 접수되어 총 13개의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서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제출한 “국제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5년의 노력 결실을 맺다” 사례가 대상인 국회의장상을 수상했고, 시흥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사업” 사례와 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발전 학교교육 프로젝트 ‘언제나, 누구나, 어디에서나 SDGs’” 사례가 환경부장관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지속가능한 우리동네 Youth-up 강원 청소년 성장망, 안 전망”,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수원시 자원순환을 위한 이웃나눔 공유박스”,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화성시 시티투어로 모두가 참여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무장애 관광을 실현하다”, 사회적협동조합 해시담의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권 개선을 위한 ‘전주인친프로젝트’”,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디지털 포용과 K-자원순환: 파트너십을 통한 공공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봉 ESD 으뜸이의 “가자! 은봉이·학봉이와 함께 떠나는 17개 지구별 여행”, 숙명여자대학교 KUSA의 “숙명여대 KUSA의 지속가능한 상반기”, UNAI ASPIRE Korea의 “공존의 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및 세계시민교육 멘토링을 통한 청년 주도 교육 공동체 구축”, 은평구의 “은평 감탄행동 프로젝트”, 해남군의 “군민과 함께하는 농어촌 혁신, 해남형 ESG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다” 등 10개 사례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국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전국지속가능발전대회」는 더욱 확장하여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는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축제로 전환하자는 취지에서 2019년 거제 대회 때부터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로 전환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지속가능발전 공모전」 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만이 아니라 소모임, 단체, 기업, 지자체 부문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사례도 많아졌지만, 소모임과 단체의 문제해결 중심의 실천과 활동이 더 많이 소개될 수 있다는 장점도 생기게 되었다. 더욱이 이들 소모임과 단체 역시 문제해결 과정에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점차 느끼게 되는 과정도 적절히 드러날 수 있었다.

대상을 수상한 서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오랫동안 갯벌 보전을 둘러싼 협력과 갈등 과정을 촘촘히 관리해 왔다. 이러한 경험이 국제멸종위기종인 저어새를 보전하기 위한 민관협력 조사단의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었다. 규제 영역을 풀어달라는 것이 일반적인 민원상 요구일 것이지만, 서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는 문제해결과 실천의 거버넌스로서 결국 개발이 가능한 이용도서를

준보전도서와 특정도서로 지정하게 된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시흥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친환경 식자재로 만든 학교급식이 학생들의 결석이나 급식 미참여 등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되면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운반과 처리 과정에서 막대한 탄소배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 속에 이러한 양질의 학교급식 예비식을 먹거리 취약계층에게 기부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섰다. 학교급식연구회 선생님, 학교급식 관계자, 복지기관 실무자의 조사와 시흥시 교육지원청 급식팀, 시흥시청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전략팀 등 행정담당자와의 회의 등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

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위한 기획팀 구성, 교사 워크숍, 교사연구모임으로 확장되는 ‘지속가능발전 학교교육 프로젝트’를 통해 대학 교양과목 개설, 어린이SDGs방학캠프 등 다양한 학교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결실을 맺었고, 업무협약이나 교육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이러한 프로젝트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교육’을 넘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교육의 주체와 당사자들이 함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는 의의가 있다.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수원시 자원순환을 위한 이웃나눔 공유박스’는 그간의 ‘공유냉장고’ 사업의 성공 경험을 더욱 확장한 것이며,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화성시 시티투어로 모두가 참여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무장애 관광을 실현하다’는 그간의 ‘공정여행 하루’ 사업의 성공 경험을 더욱 심화시킨 것이라 주목할 만했다. 도봉 ESD 으뜸이의 ‘가자! 은봉이·학봉이와 함께 떠나는 17개 지구별 여행’은 도봉구청에서 진행해 왔던 시민교육 아카데미에서 성장한 주민들의 역량이 지역사회 학교교육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의 가장 중요한 축제와 공유의 장이라 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공모전」은 국회의장상을 대상으로 하고, 환경부장관상을 최우수상으로 할 수 있었던 경험을 살려 각 사례의 분야와 영역에 따라 관련 주무부처의 시상을 통해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각 중앙부처의 노력과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의 힘으로 달성해 나간다는 의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 CONTENTS

2024년 제26회  
지속가능발전 공모전  
우수사례집

## 01 ...16

서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국제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5년의 노력 결실을 맺다

## 02 ...30

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발전 학교교육프로젝트  
“언제나, 누구나,  
어디에서나 SDGs”

## 03 ...42

시흥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사업

## 07 ...88

전라남도해남군  
군민과 함께하는 농어촌 혁신,  
해남형 ESG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다

## 08 ...102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디지털 포용과 K-자원순환  
: 파트너십을 통한  
공공의 지속 가능한 발전

## 09 ...114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속가능(SDGs)한 우리동네  
Youth-Up 강원 청소년  
성장망·안전망

## 04 ...54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원순환운동을 위한  
새로운 접근  
이웃나눔 공유박스

## 05 ...64

사회적협동조합 해시담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권  
개선을 위한  
'전주인친 프로젝트'

## 06 ...78

은평구청  
은평형 탄소중립 실천마을 만들기  
감(減)탄(Co2)  
행(action)동(洞) 프로젝트

## 10 ...130

화성시지속가능발전 협의회  
화성시 시티투어로  
모두가 참여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무장애관광을  
실현하다

## 11 ...142

도e뜸 (도봉 ESD 으뜸이)  
가자! 은봉이 학봉이와  
함께 떠나는 17개 지구별 여행

## 12 ...150

숙명여자대학교 KUSA  
숙명여자대학교 KUSA의  
지속가능한 상반기

## 13 ...160

유엔아카데미임팩트 어스파이어  
한국사무국 (UNAI ASPIRE Korea)  
'공존의 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및  
세계 시민교육(GCED)  
멘토링을 통한 청년 주도  
교육공동체 구축

## 제26회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공모전 계획

KASD\_LSAK-2024-11-3

### I. 사업개요

#### 1. 사업목표

- 지속가능발전 우수실천사례, **“민관협력 우수 사례”** 발굴과 확산
  -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실천사례 공모, **“민관협력 우수사례”** 발굴
  - 지자체, 기업, 시민 등 지역사회 주요 구성원이 **파트너십**을 이루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실천한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
  - SDGs 이행을 위한 지역지속가능발전 정책과 우수사업 발굴, 확산
  - 지속가능발전 실천사례(소모임, 기업, 단체)와 지자체·지방의회의 협치 및 추진체계 구축·이행으로 구분하여 심사 및 시상
-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 활동 상호공유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가치확산과 **지역 거버넌스 추진체계 활성화** 계기 마련

### 2. 추진일정

일정	절 차	내 용
8.30	공모전 공고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 게시
8.30~9.19 (3주간)	공고 기간 및 사례접수	3주간 공고 및 사례 접수
	↓	
9.20~9.24	1차 심사	제출서류의 완성도 및 관련 사항 심사 (발표 심사 대상 개별통지)
	↓	
9.25~9.30	온라인 국민투표	발표심사 대상 온라인 국민투표 진행 : 1인당 4개 사례(부문별 1개)에 투표
	↓	
9.30~10.1	발표심사 및 최종 심사	발표+질의응답(사례별 15분) 심사 최종심사에서 시상 대상별 훈격 선정
	↓	
10. 11	시상식	‘2024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에서 시상 및 발표(공유회)
	↓	
11월	우수사례집 발간	우수사례집 편집, 인쇄
	↓	
12월	우수사례집 배포	온-오프라인 배포 및 홈페이지 탑재

## II. 공모절차 및 일정

### 1. 응모 공고

#### ○ 응모분야

분야	사 례 내 용
소모임부문 지속가능발전 실천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일상생활 속 시민 실천 사례 - 대상: 개인 또는 2인 이상의 동아리, 소모임 등 - K-SDGs(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지역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실천 활동 사례
단체부문 (단체등록증 있는 경우)	지속가능발전 관련 실천 협력(민관협력) 사례 - 대상: 비영리 단체·법인, 협의회, 중간지원조직 등 - SDGs 17개 목표에 해당하는 사업을 진행한 사례 - 지역사회 주요 구성원간의 파트너십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의제를 수립하고 실천한 사례 - 다양한 협력과 협업(시민단체, 행정, 기업, 대학 등)
기업부문 (사업자등록증 있는 경우)	기업의 지속가능발전 관련한 모든 협력 사례 - 대상: 기업, 공공기관,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등 - 지속가능경영(ESG, CSR), 사회적 가치(SV) 실천 사례 - 파트너십을 통한 K-SDGs 달성 노력 사례
지자체·지방의회 부문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구축, 거버넌스 구성·지원 사례 - 대상: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지방의회 - L-SDGs 달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지원 사례 - 지역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 예산, 추진기구 구축, 연구모임 등 활동 사례

#### ○ 응모대상: 전국의 SDGs 실천하는 소모임, 단체, 기업, 지자체, 지방의회

- 주요 활동단위 표기: 지자체, 지방의회, 지속가능발전추진기구, 참여기관·단체, 기업 중 사업추진 공로가 제일 대표적인 곳을 선정 표기
- 추진기구(단체, 기업)와 지자체 혹은 지방의회 공동 제출 가능

#### ○ 심사대상 기간: 사례 제출일까지 진행되었거나, 진행하고 있는 모든 지속가능발전 실천 사례

#### ○ 응모제한: 최근 5년(2019년~2023년) '지속가능발전 공모전'에서 대상, 최우수상 수상 사례 및 유사 공모전에서 선정된 사례는 감점 반영

#### ○ 접수기간: 공고일 ~ 2024년 9월19일(목) 24시(자정)까지

#### ○ 부적격 처리

- 사례내용 허위 작성 시 부적격 처리
- 서류의 적격·부적격 판단기준
  - ① 제출서류를 지정된 기일 내에 접수하였는가?
  - ② 접수서류의 각 항목의 내용이 파악되도록 작성되어 있는가?
  - ③ 공모사업 목적 및 타당성, 사실성에 기준하였는가?

#### ○ 응모방법

- 공모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마감일까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메일로 접수 (전화로 접수 여부 필히 확인)

####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서식) 1부 (\*분야에 맞는 서식으로 작성)
- 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 소개서 1부
- 제26회 지속가능발전 공모전 참가에 대한 동의서 1부

분야	신청서
소모임부문	서식 1 작성
단체부문	
기업부문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부문	서식 2 작성

#### ○ 작성방법

- 첨부된 서식을 참고하여 한글 문서로 작성(별첨 참조)
- 한글 문서는 배포용 파일이 아닌 편집 가능한 파일로 제출- 사례소개서는 최대 10쪽 이내로 작성(소모임 부문은 5쪽 이내 작성)

- 파일 크기는 최대 15MB(사진 첨부 시 파일 용량 축소하여 첨부)
- 발표 심사는 사례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지므로, 사례발표 시 사용할 PPT 및 동영상, 인쇄물 책자 등은 사전에 준비

○ 접수 결과 공개

- 접수가 마감되면 응모자/응모 기관, 사례명을 전국지속협 홈페이지에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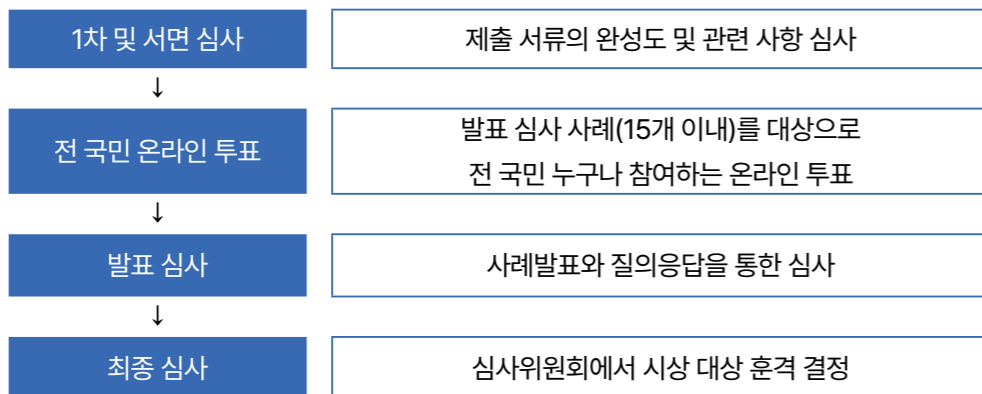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메일 (sdkoreaorg@hanmail.net)
- 문의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국 (042-223-1141)

2. 평가방법

- 1차(적격 여부) 및 서면 심사, 전 국민 온라인 투표(20점), 발표 심사(80점)
- K-SDGs 목표 달성을 위한 민관협력 실천 사례와 지방정부의 SDGs 추진체계 구축 및 민간과의 협력 사례로 구분하여 진행
- 전 국민 대상 온라인 투표를 진행, 투표 결과에 따라 순위별 배점
- 광역과 기초로 구분, 지속가능발전 추진 예산총액을 고려하여 평가
- 발표 심사에 불응한 사례는 0점 처리

3. 심사절차



○ 1차 및 서면 심사

- 접수 완료된 사례를 모은 「제26회 지속가능발전 공모전 심사자료집」을 심사위원들에게 사전 메일발송
- 제출 서류의 완성도 및 관련 사항 심사 및 15개 이내 발표 예정 사례 선별

○ 공모전 온라인 투표단 심사

- 전 국민 대상, 발표 심사 대상 사례의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투표 실시
- 온라인 투표 진행(투표단 1인이 4개 사례 투표 - 4개 부문별 우수 1개씩)
- 투표 결과에 따라 순위별로 배점(20점 만점)

○ 발표 심사

- 발표 대상별 15분 발표(질의응답 포함)
- 응모 사례 발표 및 심사위원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질의응답 과정을 거쳐 작성한 심사기준표를 취합 모든 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심사
- 사례별 심사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합산점으로 순위 결정
- 심사위원 중 발표사례 이해관계자 있을 시, 심사에서 제외

○ 최종 심사

- 심사방법 : 모든 결과를 토대로 종합 토론·심사하여 시상 대상(순위) 결정
- 최종결과 : 대상 / 최우수상 / 우수상으로 구분하여 시상 대상 선정

### III. 평가지표 및 심사표

#### ○ 사례접수 및 서면심사 기준

- 공모사례 목적 및 타당성, 사실성에 기준하여 작성
- 사례내용 허위 작성 시 부적격 처리

#### ○ 1차 및 서면 심사

	판단 기준	여부 (O,X)
1	제출서류를 지정된 기일 내에 접수하였는가?	
2	접수서류의 각 항목의 내용이 파악되도록 작성되어 있는가?	
3	지속가능발전 공모전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례인가?	
4	제출된 자료가 타당성에 입각하여 사실을 기록한 것인가?	

\* 위 판단기준은 심사위원회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 온라인 전국민 투표 운영

- 투표단 1인이 부문별 가장 우수한 1개 사례에 투표(총 4표) 가능하며, 득표 순위에 따라 점수 배점(20점 만점)

#### ○ 발표 심사

- 사례별 발표자 외 보조자 1명 입장 가능하고, 발표+질의응답 15분임

#### ○ 최종 심사

- 발표심사 결과(순위)에 따라 시상 훈격을 결정함

### IV. 시상식 및 우수사례집 발간

#### 1. 제26회 지속가능발전 공모전 시상식 및 사례공유회 개최

##### ○ 진행방향

- 선정된 우수사례의 시상식은 2024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중에 시행하여 우수사례 발굴을 알리고 널리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함
- 시상식 및 우수사례 발표 시 사례 제출지역 관련 관계자 및 시상 대상자 참석할 수 있도록 함.

##### ○ 개요

- 일 시 : 2024. 10. 11(금)
- 장 소 : 2024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대회장(경기도 시흥시)
- 참석대상 : 시상자, 수상자, 지속가능발전추진기구 관계자 등
- 주요내용 : 개최, 추진경과보고, 시상, 기념촬영 후 사례공유회
- 시 상 : 환경부장관상 등

#### 2. 우수사례 국내·외 홍보 및 우수사례집 발간·배포

- 선정된 우수사례는 국내·외 적극 홍보 및 '우수사례집'을 제작·배포
- 선정된 우수사례와 각 지역의 실천 활동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
-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에 우수사례를 보고하여 지속가능발전 사례를 유엔 및 지속가능성 관련 NGO 등에 홍보
- 중앙정부 「지속가능발전포털」 및 언론사(신문, 잡지 등)를 통한 홍보
- 50여개 국제 기구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기관에 우수사례집 배포

# 01 대상 스토리

작성기관명 : 서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 국제 멸종 위기종 보호를 위한 5년의 노력 결실을 맺다

### “저섬에 덩치 큰 하얀 새들이 살고 있다”

서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서천지속협)는 2020년 무인도인 노루섬 인근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민들로부터 덩치 큰 하얀새가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조류 전문가, 서천군과 함께 조류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그 결과 어민들이 말하는 하얀새는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로 확인됐다. 이들이 어떤 새인가? 저어새는 천연기념물 제205-1호이며 멸종위기야생동물1급, 국제적멸종위기(EN 등급)이다. 노랑부리백로 역시 천연기념물 361호이자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 국제적멸종위기(VU 등급)인 새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저어새가 인천 강화도와 전남 영광 칠산도에서 발견된 번식지 이후로 중간지점인 서천군 노루섬에서 산란 번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를 보전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 “개발 가능한 무인도서에 국제적멸종위기종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가 산다”

노루섬은 행정구역이 서천군에 속하지만 소유권은 기획재정부에 속해 있으며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서

로 해양수산부가 지정 관리하는 이용가능도서로 되어 있는 섬이다. 노루섬은 낚시인들이 좋아하는 농어와 우럭, 광어 등이 잘 잡히는 지점에 위치한 무인도서로 언제든지 낚시를 위한 입도가 가능하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일반인에게 노출될 염려가 가장 커 노루섬에 대한 입도를 제한하는 행정 절차 마련이 중요했다. 그 이유는 군산 개야도(유인도) 인근에서 배를 이용해 낚시하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출현하고 있는 상황으로 노루섬 입도를 강제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희귀새의 알이 몸에 좋다는 소문이 나있어 번식처의 훼손이 우려되었다. 노루섬의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는 주로 3월말에서 7월 중순까지 산란 및 서식을 한다.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가 일시적으로 떠난 9월 ~ 3월 중순 사이에 노루섬에서 번식을 위한 섬 환경 정비가 필요했다. 또한 노후화된 폐건물을 철거하여 서식 환경 개선 및 동지터 재료인 나뭇가지 등을 넣어주고 번식장소인 경사면을 완화시키는 평탄작업도 필요한 상태였다. 왜냐하면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가 약 7km 정도 떨어진 육지에서 동지터에 필요한 나뭇가지를 가져오면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크다. 그러면 산란율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또한 그 과정에 맹금류의 습격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본 협의회에서 2023년 2월 동지터를 대신할 고춧대 손질작업후 3월초 입도하여 나뭇가지를 대신할 고춧대로 동지터 조성작업을 실시했다. 또한 산란을 방해할 낚시줄 제거 및 쓰레기 수거 작업도 병행했다

이 모든 사업들이 참여자가 자원봉사로 참여했다. 그 결과 2020년 첫 조사시 노랑부리백로 13개체, 저어새 84개체에서 2023년 2차 조사시 노랑부리백로 68개체, 저어새 364개체로 각각 4배이상 개체가 증가했다. 사람이 자연을 보전하면 자연은 그에 상응한 결과물로 보답을 한다.

### “희귀조류보전을 위한 일련적 행동”

서천지속협은 2020년 노루섬 조류 모니터를 통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화재청, 충남도청에 국제적멸종위기종이며 천연기념물 서식지에 대한 보전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언론에도 보전 당위성을 홍보했다. 단기 사업으로 멈추지 않고 지속적인 조류 모니터링을 전개했으며 서천군에서 본 협의회가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소유주인 기획재정부와 무인도서 관리주체인 해양수산부에 협조 공문을 통해 협력했다. 그 결과 2021년 12월 노루섬이 이용가능도서에서 준보전도서로 지정했다.

또한 충청남도도 본 협의회가 보낸 보고서를 통해 환경부에 특정도서 지정 요청했으며 2024년 5월 특정도서로 지정했다. 전국 최초로 개발이 가능한 무인도서인 노루섬을 국제적멸종위기종인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를 보호할 수 있는 준보전도서와 특정도서 지정을 이끌어낸 민·관 협치의 첫 사례이다.



# 01

## 국제 멸종 위기종 보호를 위한 5년의 노력 결실을 맺다

서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24

### 요약

서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서천지속협)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를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담았습니다. 2020년 무인도인 노루섬 인근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민들로부터 하얀새가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이후 민관 협치 조사단을 꾸려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어떤 새인가. 저어새는 천연기념물 제205-1호이며 멸종위기야생동물1급, 국제적멸종위기(EN 등급)이며 노랑부리백로 역시 천연기념물 361호이자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 국제적 멸종위기(VU 등급)인 새입니다. 특히 매우 중요한 것은 저어새가 인천 강화도와 전남 영광 칠산도에서 발견된 번식지 이후로 중간지점인 충남 서천군 노루섬에서 산란 번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년 동안 조사활동과 산란번식을 위해 등지터 조성,환경정화활동등 보전노력을 통해 개발이 가능한 이용도서인 노루섬을 2021년 해양수산부 고시 준보전도서와 2024년 환경부 지정 특정도서로 이끌어 낸 민관 협치의 첫 사례를 알리고자 합니다.

### 목적 / 배경

#### 1) 실천행동의 목적은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했는가?

- 미래세대를 위한 해양 및 육상 생태계 보전을 위한 실천행동과 국제 협력 이행
- 실천행동의 목적 :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저어새 보전을 위한 노력은 국제적 약속

이자 해양 및 육상 생태계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과제입니다. 더 나아가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지구촌 협력 강화에도 속한 실천행동입니다.

본 협의회는 환경분야에 속한 14번 해양생태계 보전, 15번 육상생태계 보전에 중점을 두면서 평화·협력 분야의 17번 지구촌 협력 강화 이행을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즉 SDGs 14번 해양생태계 보전은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는 우리나라 해양보호생물 지정되어 보호 받고 있는 조류입니다. SDGs15번 육상생태계 보전은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는 환경부와 국가유산청에서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SDGs17번 국제협력이행은 2021년 한국의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국의 갯벌의 한축인 서천갯벌도 속해있습니다. 한국의 갯벌을 보전하려는 노력은 국제사회와 책임있는 약속입니다. 책임있는 일원으로 국제사회의 공동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역할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책임있는 실천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 ○ 배경

- 하얀새가 살고 있는 섬에 대한 조사 필요성 대두
- 2020년 무인도인 노루섬 인근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민들로부터 하얀새가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조류 전문가, 서천군과 함께 조류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그 결과 어민들이 말하는 하얀새는 저어새(천연기념물 제205-1호/멸종위기야생동물1급/국제적 멸종위기(EN 등급)), 노랑부리백로(천연기념물 361호/멸종위기야생동물 1급/국제적멸종위기(VU 등급)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저어새가 인천 강화도와 전남 영광 칠산도에서 발견된 번식지 이후로 중간지점인 서천군 노루섬에서 산란 번식한다는 점이었습니다.
- 따라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를 보전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 2) 어떤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했는가?

-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며 천연기념물 서식지인 노루섬은 개발이 가능한 도서
- 노루섬은 행정구역이 서천군에 속하지만 소유권은 기획재정부에 속해 있으며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서로 해양수산부가 지정 관리하는 이용가능도서로 되어 있는 섬입니다. 노루섬은 낚시인들이 좋아하는 농어와 우럭등이 잘 잡히는 지점에 위치한 무인도서로 언제든지 낚시를 위한 입도가 가능한 장소입니다.
- 그래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일반인에게 노출될 염려가 가장 커 노루 섬에 대한 입도를 제한하고 행정 절차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 이유는 군산 개야도 인근에서 배를 이용해 낚시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출현하고 있는 상황으로 노루섬 입도를 강제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희귀새의 알이 몸에 좋다는 소문을 듣고 번식처의 훼손이 우려가 되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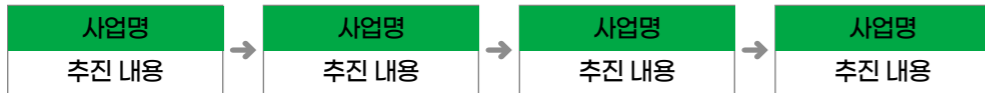
이었습니다. 노루섬의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는 주로 3월말에서 7월 중순까지 산란 번식을 합니다.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가 일시적으로 떠난 9월 ~ 3월 중순 사이에 노루섬에서 번식을 위한 섬 환경 정비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방치된 폐건물을 철거하여 서식 환경을 넓혀주고 등지터 재료인 나무가지 등을 넣어주고 번식장소인 경사면을 완화시키는 평탄작업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노루섬은 국제적 멸종위기조류인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가 산란하고 번식하는 장소입니다. 향후 국가적 자연자산이 될 수 있는 자연의 보고입니다. 따라서 노루섬 보전을 위해 최소한 준보전 무인도서나 절대보전 무인도서로 지정 하여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무인도서로 지정이 반드시 되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자연이 만든 좋은 환경을 사람이 개발하고 운영하는 방식이 아닌 사람이 보전하고 지킨 환경을 통해 자연이 운영하는 새로운 방식을 이제는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판단되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내용

### 1) 추진과정



### 2) 추진방법

○ 사업명 : 국제적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을 위한 조류 모니터링 추진과정

### ▶ 2020년 국제적 멸종위기종 무인도서 1차 조사활동

- 목적: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 서식처 보전을 위한 실천적 활동
- 내용: 멸종위기종 서식 확인 및 보호활동
- 특징: 멸종위기종 서식처인 노루섬 보전과 희귀 조류 보호를 위해 무인도서명을 밝히지 않음.
- 결과: 멸종위기1급 조류인 노랑부리백로 13개체, 저어새 84개체, 멸종위기2급인 검은머리물떼새 2개체 활동 관측



### ▶ 2020년 국제적 멸종위기종 무인도서 2차 조사활동

- 목적: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 서식처 보전을 위한 실천적 활동
- 내용: 멸종위기종 서식 확인 및 보호활동
- 특징: 멸종위기종 서식처인 노루섬 보전과 희귀 조류 보호를 위해 무인도서명을 밝히지 않음.
- 결과: 저어새 성조는 46개체, 유조는 132개체, 노랑부리백로 성조는 24개체, 유조는 9개체 활동 관측
- ※ 조사중 인근지역에서 낚시배 활발한 활동포착



- 준보전도서 지정후 지속적인 노루섬 모니터링 활동

### ▶ 2021년 노루섬 보전을 위한 1, 2차 조사활동

- 목적: 국제적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을 위한 홍보활동
- 내용: 5월과 6월 조류 모니터링 실시
- 특징: 노루섬에 서식하고 있는 노랑부리백로와 저어새 보전을 위해 도서명을 널리 홍보하게 됨.
- 결과: 노루섬의 보전가치에 대해 널리 홍보함으로써 전국 방송을 통해 국내에 소개됨. JTBC와 KBS등에 소개됨.



### ▶ 민·관 협치로 노루섬 준보전도서 지정 이끌어냄

- 목적: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며 천연기념물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 서식처인 노루섬의 무인도서 이용가능도서에서 준보전도서 변경 시킴
- 내용: 서천지속협이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서천군이 공문을 통해 소유주인 기획재정부와 무인도서 관리주체인 해양수산부에 준보전도변경 요청
- 결과: 해양수산부 2021년12월20일 변경고시함

2021년12월20일  
해양수산부장관

번호	도서명	지번	관리유형	
			당초	변경
1	노루섬	충남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712-3(3,161㎡)	이용이용	준보전
2	이목섬	충남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633(3,835㎡)	이용가능	개발가능



2) 추진방법

-희귀조류보전을 위한 실천적 행동 시작

: 2020년 4월초 노루섬에서 하얀새가 살고 있다는 소식을 어민들로부터 접하고 난 후 이 곳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단 구성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서천지속협 분과 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한 분과위원장님과 분과위원들의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섬 조사를 위해 노련한 선장 섭외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니터링단 구성을 위해 함께 해주실 조류전문가, 서천군 관계자등 다양한 인력 구성 역시 필요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도움 주실 인력구성을 마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충남연구원 조류전문가와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 담당자, 서천지속협 위원들이 함께 현장조사를 위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조사활동 시작하였습니다. 조사당시 희귀조류 보호를 위해 섬이름을 밝히지 않고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2020년 노루섬 조류 모니터를 통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화재청, 충남도청에 국제적멸종위기종이며 천연기념물 서식지에 대한 보전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언론에도 보전 당위성을 홍보하였습니다.

단기 사업으로 멈추지 않고 지속적인 조류 모니터링을 전개했으며 행정에서 본 협의회가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소유주인 기획재정부와 무인도서 관리주체인 해양수산부에 협조공문을 통해 협력하여 전국 최초로 개발이 가능한 무인도서인 노루섬을 보전할 수 있는 준보전도서 지정을 이끌어낸 첫 사례입니다.

사업 추진 방법에 있어 필수 경비외에 참여하신 분들이 자원봉사로 기꺼이 참여해 주셔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준보전도서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사업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인 조류 모니터링을 통해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더 나은 서식 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부에 특정도서 지정을 줄기차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5월24일 환경부에서 특정도서로 지정했습니다.

▷ 추진방법 정리표 ◁

연도별순서	진행내용	진행방법	진행사업	참여연대
2020년	무인도서 멸종위기종 조사	사업논의후 직접 무인도서 조사진행	조류모니터링 조사실시 조사보고서 중앙부처전달	서천지속협,서천군 충남연구원,뉴스서천 송석어촌계
2021년	노루섬 보전을 위한 조사활동	지속적인 모니터링 자료를 통해 서식지 보전을 위한 요청	지난해 자료와 올해 자료를 통해 중앙부처와 서천군에 보전도서 지정 요청	서천지속협,서천군 충남연구원,민주평통서천군협의회,서천군생태관광협의회,귀농귀촌학교총동문회 송석어촌계
2022년	준보전도서 지정후 노루섬 조사활동	준보전도서 지정후 희귀조류 조사 모니터링 활동	노루섬의 준보전도서 지정후 희귀조류 번식현황 조사활동	서천지속협, 서천군 충남연구원 송석어촌계
2023년	노루섬 희귀조류 번식확장을 위한 등지재료터 조성, 환경정화활동사업및 모니터링 조사활동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 산란 도움을 주고자 등지재료터 조성사업과 환경정화활동 병행 및 사후 모니터링	등지터를 만들기 위해 자원봉사로 참여한 분들과 함께 등지재료터 조성후 사후 모니터링 전개	서천지속협,서천군 충남연구원 사랑의열매서천군 봉사단, 민주평통서천군협의회, 서천군생태관광협의회, 귀농귀촌학교총동문회등 송석어촌계
2024년	노루섬 등지터 조성1년 후 모니터링 및 특정도서 지정을 위한 조사활동	등지터 조성후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 서식환경 변화와 특정도서 요청을 위한 모니터링	등지터와 환경정화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로 참여한 분,서천지속협 위원들과 함께 조류 모니터링 진행	서천지속협, 서천군 충남연구원 사랑의열매서천군봉사단 길고양이보호협회 송석어촌계등

3) 주요 특징

민간기구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며 천연기념물인 희귀조류 번식지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한 조류 모니터링 조사 활동을 통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서천군은 본 협의회가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중앙부처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민관협치로 개발이 가능한 무인도서를 보전도서로 지정을 이끌어낸 첫 사례입니다. 전국적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서중에서 보전도서를 개발이 용이한 이용가능도서나 개발가능도서로 변경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며 천연기념물인 희귀 조류 번식지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해 최소의 사업비로 개발이 가능한 무인도서를 준보전도서로 변경 지정을 위해 협조해 주신 자발적인 시민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준보전도서로 변경 지정된 후에도 멈추지 않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희귀조류의 번식을 위해 등지재료터 조성사업까지 진행했고 특정도서 지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의 한 축인 서천갯벌은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행정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부분을 찾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역할이 민간기구의 역할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봅니다.

이런 사업이 바로 지속가능한 목표 14번 해양생태계 보전, 15번 육상생태계 보전과 관련된 사업이며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노력이 17번 지구촌 협력 강화에 부합되는 활동입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인 희귀 조류 보전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4) 추진주체별 역할(공동추진인 경우)**

서천지속협과 함께 활동하신 분들은 간략하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번호	단체명	역할
1	서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모든 사업 기획 및 추진, 실천
2	서천군	모든 조사 참여 및 협력활동
3	충남연구원	조류전문가로 모든 조사 참여
4	뉴스서천	조사 참여 및 홍보
5	송석어촌계	조사시 선박 및 협력활동
6	서천읍남성의용소방대	동지터 손질 및 조사 참여
7	민주평통서천군협의회	동지터 손질 및 조사 참여
8	사랑의열매 서천군봉사단	동지터 손질 및 조사 참여
9	귀농귀촌학교 총동문회	동지터 손질 및 조사 참여
10	서천군생태관광협의체	동지터 손질 및 조사 참여
11	여울체험학습교육원	동지터 손질 및 조사 참여
12	굼벵이커뮤니케이션	동지터 손질 및 조사 참여
13	길고양이보호협회	동지터 손질 및 조사 참여
14	마산면주민자치회	동지터 손질 및 조사 참여
15	서천군여성단체협의회	조사 참여

**추진성과 및 파급효과**

**1) K-SDGs 몇 번 목표 이행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K-SDGs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목표를 담아 17개 분야, 119개 세부목표 및 236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서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목표 14 해양생태계 보전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세부목표 14-2 해양생태계 서식지 및 해양생물 보호와 세부목표 14-5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을 확대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14-9 해양과 해양 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제법을 국내법적으로 수용함으로 해양 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강화함에 있어 세계자연유산위원회에서 2025년까지 이행 협약서에 담긴 유산구역내 생물다양성 확대와 유산구역 범위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15. 육상생태계 보전을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세부목표 15-1 육상과 내륙담수의 생태계 다양화를 위해 보전과 복원활동을 활성화한다. 국제적멸종 위기종인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는 내륙담수에서 먹이활동을 하고 있으며 서식은 노루섬에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직접적으로 노루섬을 보전함으로 육상생태계 보전을 위해 충실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세부목표 15-4 생물다양성 손실을 예방하고 멸종위기종을 보호한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 보전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쳤으며 지금도 이행하고 있습니다.

세부목표 15-5 야생생물과 인간 사이 접촉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야생생물 밀거래를 근절한다. 희귀조류의 알은 수집가들에게 상당한 희귀성을 내포하고 있어 밀거래 위험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노루섬을 준보전도서로 지정함으로 야생생물 밀거래 근절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목표 17. 지구촌 협력 강화에 일조하였습니다.**

세부목표 17-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을 강화한다. 국제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정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는 국제적 지속가능발전목표 전략목표 14번과 15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 강화에 일조하였습니다.

세부목표 17-7 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간 및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을 권장하고 촉진한다. 민관협치로 개발이 가능한 무인도서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보전을 위해 준보전도서 변경 지정한 사례는 이 세부목표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정리 :** 국제적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희귀조류 서식지 보전을 위한 노력은 국제적 약속이며 국가의 생물다양성 확보를 통한 미래의 자연자산입니다. 또한 미래 세대가 배워서 함께 실천해야할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입니다. 자연은 인류와 함께 공존해야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2) 사례의 파급력(다른 기관이나 지역 등의 활동에 영향을 미쳤는가?)**

대한민국 최초로 민·관이 합심하여 개발과 훼손위기에 놓인 멸종위기종이며 천연기념물인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가 번식 서식하는 무인도서인 노루섬을 개발이 가능한 이용가능도서에서 준보전도서로 변경 지정과 특정도서로 지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런 노력이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서천군의 대내외적 이미지 쇄신 및 홍보를 통해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의 군민들이 조류 모니터링 조사 참여와 동지재료터 조성 사업을 통해 희귀조류의 소중함을 알고 이들을 보전하기 위해 자원봉사로 노력해 주었습니다. 이외에도 서천지속협의 보전 노력이 언론보도를 통해 전국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6년에 열리는 제48차 세계자연유산위원회에 한국의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후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국제적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활동이 큰 보탬이 됨으로 국가의 생태계 보전 정책에도 일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보전 노력이 국제사회와 미래 세대에게 지속가능한 환경을 물려 줄 수 있기에 가장 파급력이 있다고 봅니다.

### 평가(애로사항, 과제 포함)

#### 1) 사례 전반에 관한 평가

전국 최초로 민·관 협치로 멸종위기종이며 천연기념물 희귀조류가 서식하고 있는 노루섬 보전을 위해 이용가능한 무인도서를 준보전도서와 특정도서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향후 행정과 함께 추구해야 할 사례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킬러규제 때문에 발전이 저해 된다고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은 킬러 보전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지속가능한 환경을 물려줘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현 세대가 다음세대에게 보다 나은 좋은 환경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책임있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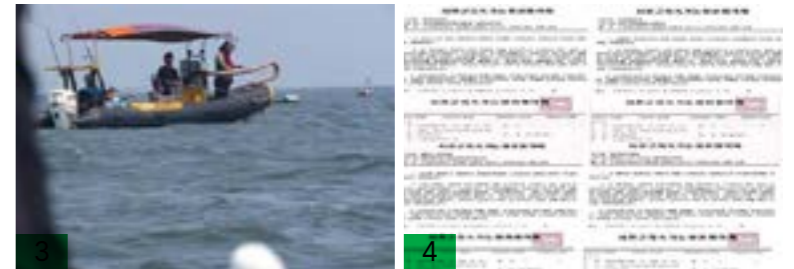
#### 2) 사례의 지속성 평가(당해연도에 국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례인가?)

이 사례는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단발성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서천은 갯벌보전과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된 한국의갯벌인 서천갯벌이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즉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할 보전 사업입니다. 또한 미래세대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천지속협회는 미래세대를 위해 국제사회와 약속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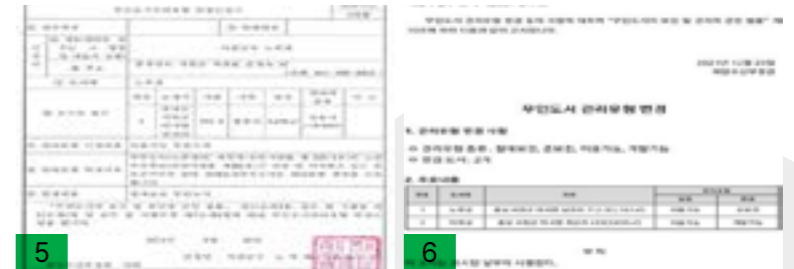
1. 2020년 무인도서인 노루섬  
2. 2020년 무인도서 2차 조사시 저어새 무리



3. 위험요인 2020년 2차 조사때 노루섬 인근 낚시배  
4. 21년 중앙부처 및 충남도에 보낸 공문



5. 2021년 서천군이 해양수산부에 보낸 변경신청서  
6. 2021년 12월20일 준보전도서 변경지정 고시



7. 2022년 2차 조사 노후화된 건물 위의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  
8. 2023년 3월 노루섬 동지재료터 조성 사업 종이현수막



9. 2023년 7월 조성된 동지재료터의 저어새 유조와 성조  
10. 2024년 5월24일 환경부 특정도서 고시



# 02

## 최우수상 스토리

작성기관명 : 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지속가능발전 학교교육 프로젝트 “언제나, 누구나, 어디에서나 SDGs”

####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시민들의 삶에 아직 친숙하지 않지만,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시민들의 삶에 아직 친숙하지 않지만, 시민들은 이미 SDGs(지속가능발전목표)가 말하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실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를 SDGs와 연결하고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교육이 중요하며, 이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28조(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홍보)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23년부터 초·중·고 및 대학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협력한 교육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특히 교육의 목표를 단순히 개념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지속가능발전 실천주체로서 문제해결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학교교육 프로젝트 “언제나, 누구나, 어디에서나 SDGs”는 안산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으로 나의 일상에서 SDGs 요소를 발견하고 경제, 사회, 환경을 고려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감수성을 확산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과 접

촉면이 가장 많은 교사들과의 교육 사업을 통해 교사들이 SDGs 감수성을 높이고 본인의 수업에 적용함으로써 일상적으로 학생들에게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2023년 <1회 미래교육과 SDGs 교사 워크숍>에서 ‘내 수업 안에서 지속가능성 요소 찾기’, ‘SDGs 융합 교안 만들기’를 통해 SDGs와 학교 교육을 연결해보는 경험을 한 참여 교사들은 이를 계기로 SDGs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서로에게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예세이 <행성지구와 이렇게 어울려 살아요 - 우리 학교, 우리 교실의 SDGs(도서출판 기억)>를 출간하여 가치를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본 사업은 2024년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참여하는 교사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중등 교육의 경험을 바탕으로 초등학생들과 ‘안산 어린이 SDGs 방학캠프’를 개최하여 내가 사는 곳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워크숍 형식으로 함께 상생해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학생들은 일상 가까이 SDGs가 다양하게 연결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시간이었다. 중등 교사 교육에 이어 초등 교사를 대상으로 SDGs 그림책 워크숍(2024.11월)을 준비하고 있다.

#### 지속가능발전 대학교육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대학교육을 위해 안산 소재 대학인 한양대학교ERICA와 공동 기획해 2024년 1학기에 <SDGs와 ESG로 보는 지역사회> 교양과목을 개설하여 안산시장 특강을 시작으로 전문가 강의 및 워크숍 등을 통해 문제해결 보고서 작성과 지속가능발전한양LAB 발표를 진행하다. 본 수업은 2학기에도 계속 이어져 40명의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다. 또한 방학 프로그램으로 카카오, 한양대ERICA와 함께 진행한 카카오임팩트챌린지는 지역문제해결 디자인씽킹 워크숍 프로그램으로 ‘인구 감소, 외국인 증가, 교통인프라, 기후대응 등’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학교, 지역사회와 함께 추진했다는 의의가 있다. 현재 본 사례를 바탕으로 안산 내 타 대학들과도 SDGs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있다.

교육 사업을 추진하며 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교육이 실천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환경콘텐츠 공모전’, ‘안산시민환경한마당 참여부스’ 등 다양한 실천의 장으로 연계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과정에 연구모임 참여 교사의 학생들, 대학생들의 참여가 있었다. 또한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안산시, 안산교육지원청, 한양대학교ERICA 등 유관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긴밀한 논의 구조를 만들었다. 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후 학교 교육에 이어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구축 과정에서의 공무원 교육,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마을교육, 지역 단체들과 연계한 시민 교육 등 전 영역, 세대를 포괄하는 교육으로 지속 확대해나가고자 한다.





# 02

## 지속가능발전 학교교육 프로젝트 “언제나, 누구나, 어디에서나 SDGs”

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23년 1월 ~ 현재

### 요약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등장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발표된 지 꽤 되었지만 '지속가능발전'은 여전히 시민들의 삶과 친숙하지 않음.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으로 정리되지 않았을 뿐, 시민들은 '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실천 활동들을 하고 있음. 시민들의 실천 활동을 SDGs로 연결하고, 그 역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속가능발전기본법(2022.7 시행) 28조에서도 강조하고 있음. 이에 안산지속협은 2023년 1월부터 '초·중·고·대학'에서의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위한 기획팀 구성을 시작으로 교사워크숍, 교사연구모임, 대학 교양과목 개설, 어린이SDGs방학캠프 등 다양한 학교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과 교육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음. 특히 교육의 방향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단순 전달하는 것이 아닌, 지속가능발전의 주체로서 시야를 확대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제해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목적/배경

#### 1) 실천행동의 목적은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했는가?

○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발표되고, 2022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자리잡기 시작하였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 28조(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홍보)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일상생활에서의 지속가능발전 실천

을 강조하고 있음.

○ 지속가능발전은 정부, 기업, 시민 등 모든 주체가 함께 실천해야 가능하며, 그 실천의 전제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역량 함양임. <지속가능발전 학교교육 프로젝트>는 안산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음.

### 내용

#### 1) 추진과정

○ 전반 흐름

	2023년 상반기	2023년 하반기	2024년 상반기	2024년 하반기
초등학교				▶
중·고등학교	▶	▶▶	▶▶▶	▶▶▶▶
대학교		▶	▶▶	▶▶▶

○ 세부 추진과정

시기	내용
1시기 (2023년 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고등학교</li> <li>○ 교사 기획단 구성 (2023.1)</li> <li>- 안산지속협 12기 위원 위촉 시 교사 3인 위원 위촉</li> <li>- 반월중 국어 교사, 송호고 기술 교사, 안산국제비즈니스고 과학 교사</li> <li>- 교사 기획단 구성하여 청소년 지속가능발전교육 논의 시작</li> </ul>
2시기 (2023년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고등학교</li> <li>○ 1회 SDGs 교사워크숍 진행 (2023. 7. 14 - 15)</li> <li>- 교사 21명 참여 (중학교 7, 고등학교 14명)</li> <li>- 다양한 교과 안에서 지속가능성 요소 찾기, SDGs 융합 교안 만들기 등</li> <li>○ SDGs 중등교사 연구모임 (2023. 8 - 2023. 12)</li> <li>- 워크숍에 참여했던 교사 21명 중 11명 연구모임 참여</li> <li>- SDGs 수업사례 공유</li> <li>■ 학교</li> <li>○ 대학 교양수업 기획단 구성 (2023.1 - 2023.6)</li> <li>- 16주(한학기) 교안 기획</li> <li>- 전반부 이론 강의 (SDGs, ESG, 안산의 경제, 사회, 환경의 이해 등)</li> <li>- 후반부 실습 강의 (디자인씽킹 워크숍, 문제해결 보고서 작성 등)</li> <li>○ 지역 대학 교양수업 개설 협의 (2023.7 - 2023. 12)</li> <li>- 안산시 - 한양대 에리카 공동 기획 교양과목 개설 논의</li> <li>○ 한양대 에리카 SDGs 캡스톤 디자인 수업 멘토링 (2023. 9 - 2023. 12)</li> <li>- 한양대 에리카 영미언어학부 수업 연계</li> <li>- 지속가능발전 강의, 학생 프로젝트 멘토링</li> </ul>

<p>3시기 (2024년 상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고등학교</li> <li>○ 업무협약 (2024. 2.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산시 - 안산교육지원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업무협약</li> </ul> </li> <li>○ SDGs 중등교사 연구모임 수업사례 교육에세이 출간 (2024.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행성지구와 이렇게 어울려 살아요 - 우리 학교, 우리 교실의 SDGs&gt;</li> <li>- 도서출판 지역 출판, 출간기념회(4. 26)</li> </ul> </li> <li>○ SDGs 중등교사 연구모임 (2024. 1 - 2024.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발전 교육 특강 (원주지속협 제현수 사무국장)</li> <li>- 독서토론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 등)</li> </ul> </li> <li>○ 지속가능발전 환경콘텐츠 공모전 (2024. 4 - 2024.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시화호, 생태, 에너지, 기후위기, 자원순환 등 환경 관련</li> <li>- 분야: 영상(숏폼), 웹툰, 그림 (1인 1작품)</li> <li>- 대상: 초중고 학생 및 동일 연령대 누구나</li> <li>- 안산시민환경한마당(6. 1) 시상식 및 전시 진행</li> </ul> </li> <li>■ 대학교</li> <li>○ 업무협약 (2024. 2.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산시 - 한양대에리카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2. 23)</li> </ul> </li> <li>○ 한양대 에리카 교양수업 개설 (2024. 3 - 2024.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업명: SDGs와 ESG로 보는 지역사회 (40명 정원에 21명 수강)</li> <li>- 1강 이민근 안산시장 특강 (안산시의 지속가능발전 방향)</li> <li>- 전문가 이론강의 및 워크숍 등으로 문제해결 보고서 작성</li> <li>- 지속가능발전한양LAB (6. 11): 2팀 안산시장상 수상</li> <li>* 교내 전통키보드 사용에 대한 문제점, 디지털 디톡스 프로젝트</li> </ul> </li> <li>○ 한양대 에리카 SDGs 캡스톤 디자인 수업 (2024. 3 - 2024.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미언어문화학과, 로봇공학과, ICT융합학부, 경제학부 등 8개 팀 24명</li> <li>- SDGs 2번, 3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등 목표 연계 프로젝트</li> </ul> </li> </ul>
<p>4시기 (2024년 하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학교</li> <li>○ 안산 어린이 SDGs 방학캠프 (2024. 8. 12 -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산교육지원청 연계 '안산동그리지속가능발전공유학교'로 진행</li> <li>- 초등학교 5-6학년 20명 참여</li> <li>- SDGs리터러시 보드게임, SDGs 문제찾기 워크숍 등</li> </ul> </li> <li>○ 초등교사 그림책 워크숍 (2024. 11월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DGs 연계 그림책 활용 초등 SDGs 교안 연구 워크숍</li> </ul> </li> <li>■ 중·고등학교</li> <li>○ 2회 SDGs 교사워크숍 진행 (2024. 7. 5 - 7.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 39명 참여 (중학교 25명, 고등학교 14명)</li> <li>- 다양한 교과 안에서 지속가능성 요소 찾기, SDGs 융합 교안 만들기 등</li> </ul> </li> <li>○ SDGs 중등교사 연구모임 (2024. 8 -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회 교사워크숍 이후 현재 23명 교사 참여</li> </ul> </li> </ul>

<p>4시기 (2024년 하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교</li> <li>○ 카카오임팩트챌린지 (2024. 7. 10 -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카오 지역협력팀, 한양대에리카 IC-PBL센터, 안산지속협 공동주최</li> <li>- 대학생 50명, 2박3일 간 지역문제해결 디자인씽킹부트캠프 진행</li> <li>- 인구조감, 외국인증가, 교통인프라, 대학-주민간 연계방안, 기후대응 등</li> </ul> </li> <li>○ 한양대 에리카 교양수업 진행 (2024. 9 -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원 40명 중 40명 수강 중</li> </ul> </li> <li>○ 안산대학교 미팅 (2024. 7.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DGs 연계 프로그램 개발 논의</li> <li>- 이후 업무협약 및 수업 개설 등 추진 예정</li> </ul> </li> </ul>
----------------------------	---

2) 추진방법

(1) 기획단 구성

- 청소년 지속가능발전 수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에 관심 있는 교사 3인을 안산지속협 위원으로 위촉하여 교사 기획단을 구성함. SDGs 교안을 별도 제작하는 것이 아닌 교사들의 수업에서 SDGs가 자연스럽게 반영되어 어떤 수업에서든 일상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면서 '교사 워크숍'을 기획하게 됨. 교사워크숍은 각자의 수업에서 지속가능성 요소 발견하기, 교과 융합 SDGs 수업 개발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음.
- 대학수업 커리큘럼 개발을 위해 대학 강의의 경험이 있는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센터장, 문화기획사 쉼처75 대표 등과 기획단을 구성함. SDGs를 이론적으로 접할 뿐만 아니라 실제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적용하여 문제해결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전반부 이론, 후반부 실습으로 강의안을 개발함.

(2) 업무협약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28조에 의거, 지방정부와 교육청, 학교 등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2023년 7월, SDGs교사워크숍을 준비하면서 안산교육지원청에 공문 발송을 요청하였음. 안산교육지원청의 공문을 통해 교사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교사워크숍을 진행하였고, 이후 연구모임을 구성하였음. 연구모임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가능발전 교육에 대한 관내 교사들의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안산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여 2024년 2월 <안산시 - 안산교육지원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업무협약>을 진행하였음. 이를 계기로 연구모임, 교사워크숍 외에 초등교육으로 영역을 확장하여 안산교육지원청 안산동그리 공유학교와 연계해 예산 400만원을 지원받아 지속가능발전 공유학교 프로그램 <안산 어린이 SDGs 방학캠프>를 기획,

추진함.

-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교양수업 담당 기관인 창의융합교육원과 수업 개설 미팅을 추진하면서 지방 정부와 지역 대학이 공동으로 기획, 추진하는 수업에 대한 의의를 확인하며 2024년 2월 <안산시 - 한양대에리카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추진함. 한양대 에리카와 교양수업, 캡스톤디자인수업, 카카오임팩트챌린지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음.
- 안산시는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중요성에 동의하며 안산교육지원청, 한양대에리카와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SDGs 교사워크숍 및 연구모임 운영을 위한 2024년도 예산 2,000만원을 지원하였음. 한양대 에리카 수업에서는 1강 시장 특강 및 15강 지속가능발전한양LAB에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멘토링을 진행하고, 안산시장상을 수여하였음. 안산시는 학생들의 제안 정책 중 검토하여 실제 안산시의 정책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3) 주요 특징

#### (1) 교육 현장과의 직접 연계

- 교안 개발, 강사 양성 방식이 아니라 매일 학생들과 마주하는 교사들과의 교육사업을 통해 교사들이 SDGs 감수성을 높이고, 본인의 수업에 적용하여 일상적으로 학생들에게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함.
- 연구모임을 통해 지속가능성이 담긴 교사들의 수업 사례를 공유하면서 교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수 있도록 함. 또한 교육에세이 발간을 통해 교사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지속가능발전에 관심 있는 교사들과 교감할 수 있도록 함.

#### (2) 어디에서나 발견되는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발전은 여전히 환경분야를 중심으로 과학, 기술 등의 교과에서 주로 다루고 있으나 교사 워크숍, 연구모임을 통해 다양한 교과목에 지속가능성 요소가 있음을 발견함.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가 일상의 다양한 상황과 연결될 수 있다는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함. (현재 교사워크숍/연구모임 참여 교사의 교과목은 국어, 영어, 과학, 지구과학, 물리, 화학, 상업, 한문, 음악, 미술, 도덕, 윤리, 사회, 가정, 정보, 지리 등 다양함)
- 교육의 초반에 17개 목표가 나오게 된 과정, 각 목표의 의미 등에 대해 교육하지만, 목표의 개별성보다 통합성과 연계성을 중심으로 교육하고자 함. 그래서 다양한 지역의 현안에서 지속가능성을 적용하여 해결 방안을 찾게 하고자 함.

#### (3) 문제해결 역량강화

- 한양대 에리카 교양수업, 캡스톤 디자인 수업, 어린이 SDGs 방학캠프 등 안산지속협이 진행한 교육사업은 전달형 교육이 아닌 참여형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지역 현안이나 각자의 관심 이슈에서 광범위했던 문제를 좁혀나가는 과정을 통해 진짜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자를 찾게 함. 문제를 잘 정의하는 것이 곧 문제 해결과 연계된다는 경험을 갖게 하고, 해결 방안이 SDGs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속가능발전 개념에 충족하는지 등을 생각해보게 하면서 지속가능발전 방향의 문제해결 역량을 함양하고자 하였음.
- SDGs 중등교사 연구모임 교사들은 교과 수업을 참여형, 융합형으로 추진하고, 동아리, 자율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교과 외 프로그램에도 적용 시도를 함으로써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4) 교육과 실천의 연계

- 중·고등학교, 대학 등에서 추진했던 교육사업이 학생들의 아웃풋으로 나올 수 있도록 실천의 장을 마련해 연계하고자 하였음. 올해 진행한 환경콘텐츠 공모전, 안산시민환경한마당 참여부스에 연구모임 참여 교사 소속 학교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으며, 한양대 에리카 캡스톤 디자인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결과물을 환경한마당 전시부스에서 시민들에게 선보였음.

#### (5) 유관기관과의 협력 추진

- 안산시 환경정책과, 안산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한양대 에리카 창의융합교육원 등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음.

## 추진성과 및 파급효과

### 1) K-SDGs 몇 번 목표 이행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 본 사례는 K-SDGs 4번 목표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특히 세부목표 4-7 '지속가능발전,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한다'에 기여하고 있음.
- 본 사례는 다양한 교과목, 다양한 지역 현안에서 지속가능발전 요소를 발견하고자 하기 때문에 17개 목표에 전반적으로 기여하고자 함.

## 2) 사례의 파급력(다른 기관이나 지역 등의 활동에 영향을 미쳤는가?)

- 본 사례는 2023년 1회 교사워크숍 21명(14개 학교), 2024년 2회 교사워크숍 39명(23개 학교) / 2023년 중등교사 연구모임 10명, 2024년 중등교사 연구모임 23명 / 한양대 에리카 교양 수업 2024년 1학기 21명, 2학기 40명 등 자체적으로 회를 거듭할수록 참여자가 확대되고 있음. 이는 지속가능발전을 경험할 수 있는 학생들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함. 특히 교사워크숍 및 연구모임은 학교수가 늘어날 뿐 아니라 동료 교사의 참여로 학교 내 연구모임 참여 교사가 확대됨으로써 학교 내에서 교과융합 수업이 가능해지게 됨.
- 학교 교육과의 직접 연계 사례로 사례 발표를 했으며(경기지속협 학교교육사례 공유회(12/1), 광명SD마을학교포럼(12/2), 미래학교자치연구소 교육에세이 북토크(4/16) 등), 연구모임 교육에세이 <행성지구와 이렇게 어울려 살아요> 발간 후 안산 내 전 도서관에 책을 비치하여 안산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있음.
- 지속가능발전 학교 교육 요청이 늘어나고 있으며(반월중 2학년, 경안고 2학년, 안산국제비즈니스고 3학년, 단원중 학부모회, 별망초 학부모회 등), 지역 대학 등에서도 워크숍 방식의 교육을 적용하고자 하고 있음. (한양대 에리카 카카오톡 챌린지 후속사업, 안산대학교 등)

## 평가 (애로사항, 과제 포함)

### 1) 사례 전반에 관한 평가

- 지속가능발전 교육 전 과정에서 본다면 본 사례는 지속가능발전 교육 중 기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학교 교육에 집중하여 진행하였음. 현재 중·고등학교, 지역 대학 등과 연계하여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진행중이고, 초등학교 교육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시민 교육, 공무원 교육, 평생 교육 등 이후 추진 과제가 남아 있음.
- 교육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관 기관(행정, 교육청, 대학 등)과의 긴밀한 논의와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교육 체계를 만들었음. 중등 교사 대상 교사워크숍은 매년 7월로 자리매김을 했고, 워크숍에 참여한 교사들의 후속 활동을 담을 수 있는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교육청에 중등교사연구회로 등록함. 11월 초등교사 그림책 워크숍은 교육청과 공동주최로 진행할 예정임. 행정은 교육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2025년 예산을 세우기로 하였음. 한양대 에리카 교양수업도 지속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음.
- 참여형 워크숍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지역 현안을 다루면서 지역에 대한 이해

를 높이고, 동시에 문제해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실천 주체를 양성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음.

### 2) 사례의 지속성 평가(당해연도에 국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례인가?)

- 중등 교사 대상의 교육 지속성을 확보했으며, 이후 더 많은 교사들이 교사워크숍과 연구모임에 참여할 수 있음. 또한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그림책 워크숍과 후속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 또한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임.
- 안산시에는 한양대 에리카, 안산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 등 다섯 개의 대학이 있음. 한양대 에리카와의 수업 개설, 업무협약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각 대학 별 특징을 연계한 SDGs 교육 프로그램 진행할 예정임.
- 초등, 중등, 고등, 대학 등 학교 교육에 이어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마련과 연계한 공무원교육과 주민자치회 등과 연계한 마을교육, 지역 단체들과 연계한 시민 교육 등 전 영역, 세대를 포괄하는 교육으로 지속 확대해나가고자 함.



1



2

1. 2회 미래교육과 SDGs 교사워크숍  
2. 2회 미래교육과 SDGs 교사워크숍



3



4

3. SDGs 중등교사 연구모임  
수업사례 발표  
4. <행성 지구와 이렇게 어울려 살아요>  
교육에세이 출간기념회



5



6

5. 안산어린이 SDGs 방학캠프  
6. 안산어린이 SDGs 방학캠프



7



8

7. 한양대 에리카 교양수업  
<지속가능발전 한양LAB>  
8. 한양대 에리카 캡스톤 디자인 수업



9



10

9. 카카오파트챌린지  
10. 안산지속협활동사진 출간기념회

# 03

## 최우우향 스토리

작성기관명 : 시흥시 학교급식지원센터

###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사업



#### 친환경 식자재

친환경 식자재(무농약 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우수 축산물 및 친환경 농산물, 비유전자변형 NON-GMO 가공식품)로 만든 학교급식이 학생들의 결석, 급식 미참여 등으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져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갑작스런 확진자 발생 등의 이유로 조리된 음식이 전량 버려지는 등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급증하였다. 우수한 식재료로 만든 학교급식이 버려지는 걸 안타깝게 계속 지켜보다 더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한 22년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 환경급식연구회 영양 선생님들은 남은 학교급식 음식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도 줄이고 어려운 사람도 돕는 방법을 찾았는데 의지를 모았다.

센터는 고령화율 10.7%, 1인 가구 비중 38.1%, 먹거리 취약계층 비율 4.56%인 시흥시의 먹거리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해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사업'을 시작

했다. 22년 5개 학교에서 먼저 시작한 예비식 기부 시범사업은 지역사회에서 반찬봉사를 하는 나눔자리문 화공동체 이상기 대표가 직접 5개 학교 예비식을 수거해 독거노인, 건강하지 못한 장애인 등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했다. 이후 이상기 대표 혼자 예비식 수거, 배부하기 힘든 상황에서 센터는 수집운반 담당자와 탐차 운영을 제공했다.

#### 센터는 예비식 기부가 실제로 취약계층 먹거리 해결과 학교급식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23년부터 체계적으로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예비식 기부사업을 진행했으며 10개 학교와 3개 복지기관이 함께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복지관을 통한 반찬과 푸드뱅크마켓에서 가공식품(인스턴트)같은 식재료로 도움을 받고 있지만 한 끼 식사를 위해 밥과 국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또 많은 수급자들이 연로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요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제대로 된 한 끼를 먹는 것이 어렵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라면과 같은 정크푸드가 주식인 경우가 더 많다. 하지만 밥, 국, 반찬으로 구성된 완전한 한끼인 예비식 도시락은 고립은둔 청년, 중장년 우울증, 독거 노인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는 한 끼 식사를 넘어 따뜻한 소통의 출구가 되었다.

예비식 기부사업은 24년 더욱 확대되어 17개 참가학교, 5개 복지기관이 주 2~3회 예비식 기부를 진행했다. 우리 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특징점은 첫째, 음식 편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점이다. 4~5개 학교와 1개 복지관을 연결해 예비식 기부량이 많고 적은 편차를 줄여 수혜자들의 식사가 일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는 권역별 단통방(소통공간)을 만들어 수집, 운반, 나눔의 과정을 실시간 공유해 원활한 진행은 물론, 수혜자분들의 반응도 소통해 학교와 복지관이 서로 뿌듯함과 고마움을 공유하는 신뢰관계도 형성했다. 셋째는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위생관리이다. 센터가 담당하는 예비식 수집운반을 학교급식 전문 배송업체(냉동탑차 소유)에 맡겨 위생적으로 운반한다. 더불어 위생문제 예방을 위한 메뉴얼 제공, 실무자회의, 수혜자(이용자) 위생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예비식 기부사업은 24년 더욱 확대되어 17개 참가학교, 5개 복지기관이 주 2~3회 예비식 기부를 진행했다. 우리 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특징점은 첫째, 음식 편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점이다. 4~5개 학교와 1개 복지관을 연결해 예비식 기부량이 많고 적은 편차를 줄여 수혜자들의 식사가 일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는 권역별 단통방(소통공간)을 만들어 수집, 운반, 나눔의 과정을 실시간 공유해 원활한 진행은 물론, 수혜자분들의 반응도 소통해 학교와 복지관이 서로 뿌듯함과 고마움을 공유하는 신뢰관계도 형성했다. 셋째는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위생관리이다. 센터가 담당하는 예비식 수집운반을 학교급식 전문 배송업체(냉동탑차 소유)에 맡겨 위생적으로 운반한다. 더불어 위생문제 예방을 위한 메뉴얼 제공, 실무자회의, 수혜자(이용자) 위생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23년부터 24년 9월까지

23년부터 24년 9월까지 8천여명(누적인원)에게 먹거리를 제공해 빈곤층 감소에 기여하고 그만큼 학교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도 도움이 된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사업은 22년 1개 복지기관에서 시작해 5개 복지기관으로, 5개 학교에서 17개 학교로 참가가 확대된 만큼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사업의 의미와 영향력이 지역사회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사업이자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사업은 모두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 03

##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사업

시흥시 학교급식지원센터

2022. 04 ~ 현재

### 요약

친환경 식자재(무농약 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우수 축산물 및 친환경 농산물, 비유전자 변형 NON-GMO 가공식품)로 만든 학교급식이 학생들의 결석, 급식 미참여 등으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져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그 운반과 처리과정에서 막대한 탄소배출이 일어나고 있음. 2023년 3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시흥시 관내 107개 유치, 초, 중, 고등학교에서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량은 3,060,432kg이었고 처리비용으로 557,465,770원 소요됨.(시흥교육지원청 급식팀 자료 참조) 더불어, 시흥시는 고령화율 10.7%, 1인 가구 비중 38.1%, 먹거리 취약계층 비율 4.56%로 취약계층 먹거리 위기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양질의 학교급식 예비식(잔식)을 먹거리 취약계층에게 기부하여 먹거리가 필요한 이웃에게는 건강한 한 끼 식사로 재생산시키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과 탄소배출 감소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진행되었음.

### 목적/배경

#### 1) 실천행동의 목적은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했는가?

##### - 학교급식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하다

학교급식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과 처리 비용 급증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다. 2020년 코로나19로 갑작스런 확진자 발생 등의 이유로 조리된 음식이 전량 버려지는 등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급증

하였다. 이후 코로나19가 느슨해지면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줄긴 했으나 현재도 결석 등 변수가 많은 학교급식의 특성상 예비식(학생들이 손도 대지 않은 음식)이 빈번히 발생하는 현실이다. 2022년 학교 영양선생님 12명으로 구성된 환경급식연구회를 본 센터가 1년 동안 운영하면서 (기후)환경급식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찾았고, 그 중 한 가지가 예비식 기부사업이다. 학교에서 예비식을 기부하기 위해 푸드뱅크마켓으로 연락을 해도 기부처를 찾기 어려워 기부를 못하는 현실을 본 센터에 토로했고, 푸드뱅크마켓도 코로나19 이후 음식물을 수거해서 나눔하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인력과 조리공간 부재)임을 확인하면서 본 센터가 직접 방안을 찾았다.

#### -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해지는 먹거리 환경

1인 가구와 노인 인구 증가, 차상위 등 먹거리 취약계층은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다. 수급자 등 복지혜택을 받는 분들도 복지관을 통한 반찬과 푸드뱅크마켓에서 가공식품(인스턴트)같은 식재료로 도움을 받고 있지만 한끼 식사를 위해 밥과 국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많은 수급자들이 연로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요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제대로 된 한끼를 먹는 것이 어렵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라면과 같은 정크푸드가 주식인 경우가 더 많다.

#### - 코로나같은 사회적 재난은 학교급식에도 큰 타격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였지만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집에 있는 아이들을 위하여 매일 삼시 세끼를 차려야 하는 부모는 학교급식의 소중함을 새삼 더 크게 느꼈다. 오랜만에 등교한 아이들이 학교급식을 먹고 오겠거니 생각했지만 코로나에 감염된 학생 출현으로 음식의 감염을 우려해 학교급식을 먹지 않고 조리된 음식을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 학교도 자주 발생했다. 2021년 당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은 1kg 당 180~200원이었다. 전교생 1,500명을 대상으로 준비한 학교급식이 1,000kg였다면 180,000원~200,000원 이상을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들었다.

#### 2) 어떤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했는가?

##### -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아 나섰다

우리 센터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관내 학교급식 음식물 쓰레기 배출과 먹거리 취약계층 현황 등 자료조사와 행정담당자와의 만남, 회의 등을 개최해 민관 공동의 노력으로 예비식 기부사업을 도모하였음. '환경급식연구회'선생님들과 학교급식 관계자, 복지기관 실무자들을 만나 현장의 문제를 직접 조사하였고, 시흥시 교육지원청 급식팀과 시흥시청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전략팀의 관계자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한 후 예비식 기부가 먹거리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됨을 확신할 수 있었음.

## 내용

### 1) 추진과정

- 2022년 학교 영양선생님 12명으로 구성된 환경급식연구회를 본 센터가 1년 동안 운영하면서 (기후)환경급식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논의했고, 그 중 한 가지가 예비식 기부사업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푸드뱅크가 학교급식을 직접 수거해 취약계층에게 나눔하는 사업을 진행해 학교가 기부하기가 수월했는데, 2020년 이후에는 수혜기관과 학교를 일대일 매칭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수혜처를 찾기가 어려워 기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센터가 푸드뱅크를 찾아가 학교가 예비식 기부를 원할히 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2022년 당시 명칭도 푸드마켓으로 전환해 가공식품 위주로 취급하고, 조리·세척시설과 인력이 없어 완조리 음식물은 직접 기부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환경급식연구회 12개 학교 중 5개 학교가 예비식 시범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혔고, 잔식을 받을 수혜처를 찾아야 했다. 시흥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 이미경 센터장은 지역사회에서 반찬봉사를 열심히 하는 나눔자리문화공동체(이하 나눔자리) 이상기 대표를 만나 질 좋은 학교급식이 남으면 그대로 버려지고 있는데 독거노인, 건강하지 못한 장애인 등 이웃들에게 나누면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상기 대표는 소위'찬 물에 밥 말아먹는다'는 노인들을 떠올리며 학교급식 잔식(예비식)을 직접 수거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2022년 4월부터 시작해 6월까지 5개 학교의 잔식을 나눔자리문에서 매일 직접 수거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 혹은 경로당 나눔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상기 대표는 "너무 좋은 일인데 매일 진행하다보니 온 몸이 아프다. 자원봉사를 동원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힘들음을 호소하였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자원봉사단체인 나눔자리 이상기 대표 개인이 홀로 책임지는 데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했고, 나눔활동을 지속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 센터는 수집운반 담당자와 탐차 운영을 제공하기로 했다. 센터에서 잔식을 수거해 이상기 부이사장에게 배송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 9월부터 센터의 개입을 통하여 잔식 기부활동이 펼쳐졌다.

- 센터는 사업의 지속성을 위하여 코로나 전 음식 기탁활동을 진행한 시흥푸드마켓을 찾았다. 예비식 기부활동을 제안했으나 '코로나로 가공식품 중심으로 기탁활동을 받고, 인력 부족과 조리시설 부재로 예비식 기부사업을 직접 할 수는 없다'는 입장만 재확인했다. 그럼에도 센터장은 푸드뱅크

가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푸드뱅크 법인 관계자, 사회복지 관계자 외 여러 사람들을 만났다. 푸드뱅크는 '직접 진행할 수 없지만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에 푸드뱅크는 학교, 복지관의 생산물책임배상보험 가입과 코로나 이전부터 참고 보관중이었던 용기를 센터에 전달해주었다. 그리고 향후 센터가 진행한 잔식 기부 실적을 푸드뱅크에 공유해 주기로 했다.

- 2023년부터는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했다. 잔식은 남은 잔반과 같은 뜻으로 들려 기부받는 수혜자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어 손대지 않은 깨끗한 음식을 의미하는 예비식으로 변경했다. 2022년 12월 참가학교 모집을 통하여 9개 학교가 신청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어려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하여 맞춤형봉사, 반찬 등 먹거리 제공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센터는 복지관을 직접 방문해 사업을 홍보하고 함께 할 기관을 모집하였다. 정왕종합사회복지관과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이 2023년 예비식 기부사업을 함께 하기로 했다.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예비식 기부사업을 진행했으며 10월 참가학교와 복지기관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 감량과 취약계층 먹거리 나눔에 기여했기에 시흥시장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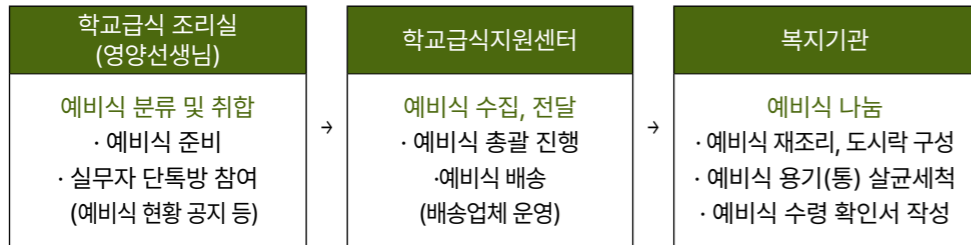
- 센터는 시범정책사업이던 예비식 기부사업을 2024년 정책사업으로 정했다. 2024년 학교는 17개로 늘었고, 복지관도 5개로 확대되었다.

- 2023년 10월 경기도 교육청 잔식기부 활성화 관련 전국 최초 조례가 제정된 이후 2024년 서울시와 세종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예비식 기부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2024년 5월, '집단급식소에서 조리된 음식은 외부 반출이 불가능하다'고 식약처가 유권해석을 내렸다. 푸드뱅크는 예비식 기부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센터로 보내 사업에서 빠졌다.

- 센터는 사업을 중단할지 고민했다. 6월에 5개 복지관 관계자를 만났고, 수혜자들이 예비식 도시락을 받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고 삶이 변화하고 있는데 사업이 중단되면 안 된다고 했다. 학교 영양선생님들도 중단 말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센터는 푸드뱅크 불참으로 생산물책임배상보험이 실효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직접 생산물 책임배상보험에 가입했다. 그리고 학교, 복지관, 수혜자가 지켜야 할 사항들과 이용수칙을 담은 운영 매뉴얼을 작성해 공유했다. 여름방학 이후 9월 예비식 기부가 재개되면서 복지관을 순회하며 이용자 대상의 위생교육을 센터가 직접 진행했다. 결국 식약처는 예비식 기부의 효과와 관계자들의 요구를 수렴해 9월 4일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진행해도 된다'고 발표했다.

2) 추진방법

- 추진주체 역할



- 추진방법

시기	제목	내용
23년 12월	내년도 사업 참가 학교 모집	· 모집기간 : 12월 · 모집대상 : 시흥시 관내 초, 중, 고등학교 · 모집방법 : 시흥시 관내 초, 중, 고등학교로 홍보 및 공문 발송
24년 1월	참가 복지기관 모집	· 모집기간 : 1월 · 모집대상 : 시흥시 관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단체(기관) · 모집방법 : 시흥시 관내 비영리단체 홍보 및 현장방문
24년 2월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진행 준비	· 용기 준비(용기파손 확인 및 새 용기구입) · 생산물책임배상보험 가입 · 진행순서 및 시간계획 수립

24년 3월	실무자회의	· 일시 : 2024년 3월 27일(수) 15시 · 참석자 : 참가학교 및 복지기관 담당자 시흥푸드뱅크마켓센터 담당자 배송업체 담당자 · 내용 : 예비식 기부사업 계획 및 준비
	업무협약식	· 일시 : 2024년 3월 27일(수) 14시 · 참석자 : 농업기술센터장, 시흥교육지원청장 및 관계 공무원, 17개 참가학교장 및 영양교사, 5개 복지기관장 및 담당자 · 내용 : 사업 설명, 업무협약 체결
24년 4월~12월	예비식 기부사업 진행	· 예비식 수령 확인서 매월 말 제출(복지관) · 예비식 현황 제출(수집운반 담당자)
24년 4월	수요처(복지관) 이용자 위생교육 (5개 복지기관 순회 교육)	· 진행시기 : 진행 전/초기 · 대상 : 각 복지기관 예비식 수혜자 · 내용 : 학교급식 이해하기/예비식 이용 주의사항 설명
24년 5월	예비식기부사업 교내 홍보	홍보자료 제공
24년 7월	실무자회의	· 일 시 : 2024년 7월 18일(목) 14시 30분 · 참석자 : 참가학교 및 복지기관 담당자 배송업체 담당자 · 내용 : 예비식 기부사업 평가 및 계획 (상반기 진행현황 공유)
24년 9월	수요처(복지관) 이용자 위생교육 (5개 복지기관 순회 교육)	· 진행시기 : 진행 전/초기 · 대상 : 각 복지기관 예비식 수혜자 · 내용 : 학교급식 이해하기/예비식 이용 주의사항 설명
24년 11월	성과보고회	· 참가대상 : 예비식 기부사업 모든 관계자 · 내용 : 사업현황 및 성과 공유 예비식 기부사업 후기 발표 시흥시장 감사장 수여
24년12월	실무자회의	· 내용 : 한 해 평가와 과제 논의
	내년도(25년) 참가 학교 모집	· 모집기간 : 12월 · 모집대상 : 시흥시 관내 초, 중, 고등학교 · 모집방법 : 시흥시 관내 초, 중, 고등학교로 홍보 및 공문 발송

### 3) 주요 특징

본 센터는 학교급식의 특징과 급식실 상황을 잘 알고, 학교 급식실(영양선생님 외 조리종사자)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학교 급식실과 복지관을 연결해 예비식 기부사업 진행 시 필요한 내용을 조정, 관리, 운영하는데 용이하다.

센터의 예비식 기부사업은 3가지 특징적 장점이 있다.

첫 번째 강점은 음식 편차를 해소했다. 푸드뱅크 사업방식은 1개 학교와 1개 수요처를 연결하는 방식이라 기부량의 편차가 많았다면 센터는 4~5개 학교와 1개 복지관을 연결하는 방식이어서 기부량 편차를 줄여 복지관이 예비식 도시락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했다. 둘째는 권역별 단톡방(소통공간)을 만들어 수집, 운반, 나눔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원활한 사업 진행은 물론, 수혜자들의 반응도 소통해 학교와 복지관이 서로 뿌듯함과 고마움을 공유하는 신뢰관계도 형성했다. 셋째는 센터가 담당하는 예비식 수집운반을 학교급식 전문 배송업체(냉동탑차 소유)에 맡겨 학교와의 원활한 소통과 위생적인 운반을 장점으로 들 수 있다.

특히,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생관리다.

학교에서 음식 담는 과정(학교), 학교에서 복지관으로 배송하는 과정(센터), 복지관에서 도시락을 만들어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과정(복지관), 수혜자가 냉장보관해서 먹는 과정(수혜자), 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매뉴얼화하고 실무자회의, 수혜자 교육을 진행해 위생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추진성과 및 파급효과

### 1) K-SDGs 몇 번 목표 이행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 1번-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2023년 예비식 기부 결과 3천여명(누적인원)에게 먹거리를 제공하였다. 2024년 기부사업이 확대된 점을 감안해 4월~6월 3개월 동안 174회 진행, 4천여명에게 먹거리를 제공하였다. 학교급식에서 남은 예비식을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먹거리 취약계층에게 기부함으로써 빈곤층 감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 2023년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사업 결과

구분	정왕복지관					구분	정왕복지관		
	2분기	3분기	10월	11월	합계		10월	11월	합계
횟수	36	25	13	13	87	횟수	5	8	13
수혜누적인원(명)	720	314	147	178	1,359	수혜누적인원(명)	75	120	195
경제적 이득(원)	4,320,000	1,884,000	882,000	1,068,000	8,154,000	경제적 이득(원)	450,000	720,000	1,170,000
총이득(원)	8,154,000					총이득(원)	1,170,000		

구분	작은자리복지관				
	2분기	3분기	10월	11월	합계
횟수	40	11	11	11	73
수혜누적인원(명)	630	165	275	275	1,345
경제적 이득(원)	3,780,000	990,000	1,650,000	1,650,000	8,070,000
총이득(원)	8,070,000				

2023년 8개월동안 173회 진행  
연간 3천여명 가족포함 더 많은 사람들의 한 끼 식사를 제공하였음

### 2024년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사업 결과

구분	2024년 4월~6월 진행				
	정왕복지관	홍부네 책놀이터	오이도 문화복지센터	목장복지관	작은자리 복지관
횟수	37	37	37	25	38
수혜누적인원(명)	577	422	1,541	681	738
경제적 이득(원)	3,462,000	2,532,000	9,246,000	4,086,000	4,428,000
총이득(원)	23,754,000				

2024년 3개월 동안 174회 진행  
3,959명 가족포함 더 많은 사람들의 한 끼 식사를 제공하였음

#### 3번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실업자, 노숙생활, 끼니해결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청장년층 대상자들에게 예비식 도시락을 제공했다. 이들에게는 단순히 한 끼 음식이 아닌 사회와 연결되는 작은 고리, 희망이 되는 만남과 시간이다. 또, 지역사회 독거노인들은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어 복지관 담당자에게 '고마움'을 자주 전했다. 실제로 복지관 담당자와 관계자들은 예비식 기부사업을 통하여 수혜자들과 훨씬 많이 대화할 수 있었고,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예비식으로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어 기초생

활수급비를 절약해 생애 첫 적금을 가입했다는 수혜자의 소식, 학교급식을 남기지 말고 먹을 만큼만 배식받아 깨끗하게 남은 예비식을 기부하는데 학생들과 뜻을 나누었다는 영양선생님의 소식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만족함을 알 수 있다.

13번 기후변화의 대응

학교에서 예비식을 수집운반하며 밥, 국, 반찬 별로 양을 측정하고 있다. 2023년 수집한 예비식을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환산하면 2,768,440원(1kg당 200원 계산)으로 그만큼 절약하였다 고 판단된다. 이는 학교급식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탄소배출 감량에 도움이 되었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사례의 파급력(다른 기관이나 지역 등의 활동에 영향을 미쳤는가?)

- 학교는 22년 5개, 23년 9개, 24년 17개가 참여했고, 복지기관은 22년 1개, 23년 2개, 24년 5개가 함께 했다. 매년 학교와 복지기관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봐서 예비식 기부사업의 의미와 영향력이 지역사회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 본 센터의 예비식 기부사업에 대한 인근 시군(광명, 부천 등)의 벤치마킹과 자료요청이 있었고, 안양군포의왕과천 공공급식지원센터는 25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음.

평가(애로사항, 과제 포함)

1) 사례 전반에 관한 평가

2024년 올해 여름의 수많은 기상이변과 폭염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 실행되지 않는 이상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누구라도 환경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친환경 농산물 등 양질의 식재료로 조리된 학교급식이 버려지지 않고 지역의 먹거리가 필요한 이웃에게 건강한 한 끼 식사로 재생산됨으로써 경제적, 환경적 이득을 발생시켰다.

2) 사례의 지속성 평가(당해연도에 국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례인가?)

2022년 시작 첫 해는 5개 학교와 복지기관을 연결해 복지기관이 직접 수집해 배부해 어려움을 겪었으나, 23년부터 본 센터에서 예산을 편성해 학교에서 수거해 복지기관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복지기관들의 참여가 늘었다. 3년에 걸쳐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질적인 발전도 이뤄지고 있으며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여러 학교에서 참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예비식 기부사업은 향후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과 시의회의 관심과 지지가 크다.

1. 2023년 참여주체 업무협약식  
2. 2024년 참여주체 업무협약식



3. 3년 3회 실무자회의 개최 (3월, 7월, 12월)  
4. 예비식 수혜자 위생교육



5. 예비식 도시락 구성  
6. 예비식 도시락 수혜자 배부



7. 기관 예비식 수혜자 전달  
8. 거동이 불편한 수혜자는 직접 방문전달



9. 참여학교, 복지관 시흥시장 감사장 수여(23년)  
10. 예비식 기부사업 학교 홍보물



# 04 우수항 스토리

작성기관명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자원순환운동을 위한 새로운 접근 이웃나눔 공유박스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생활쓰레기감축, 소비재재사용 촉진을 위한 시민행동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이것은 유엔 2030 SDGs '12-5(2030년까지 예방,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대폭 감소한다)와 수원시2030 SDGs 6-3(소비절약 및 생활쓰레기 감축) 실현 목표로 소비절약, 생활쓰레기 감축, 소비재 재사용 촉진을 위해 시민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실험적 프로젝트로써 이웃나눔 공유박스 활성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 수원시는 2017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수원시는 2017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중간지원조직협의 모임을 조직하고 이를 통해 중간지원조직이 지원하고 민간이 실천하는 공유냉장고 운영체제를 완성하였다. 이 결과 2018년 3개소를 시작으로 2024년 현재 39개의 동네 거점형 공유냉장고 프로젝트를 비예산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30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이웃나눔 공유박스는 이러한 생활재 공유 운동을 먹거리에서 공산품 소비재로 확대 한 것이다. 이것은 공유냉장고 오프라인 인프라에 공유박스를 결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공유냉장고와 동일한 운영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시민이니셔티브, 시민관리원칙, 마을현장중심주의를 유지하고 있으며 무료나눔으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나눔의 효과를 병행하고 있다. 이미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다양한 시민사회에서 실천하고 있는 독일의 사회적 울타리, 미국의 기빙트리, 브라질의 연대의 옷걸이 등과 유사하다고 할수 있다.

현재 공유박스에는 옷가지, 그릇, 학용품, 양말, 인형, 도서, 생리대, 텀블러 등 다양한 생활재들이 공유되고 있으며 특히 원룸다가구주택지역에서 많은 양들이 공유되거나 재활용 되고 있다.





# 04

## 수원시 자원순환을 위한 이웃나눔 공유박스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23년 5월~ 2024년 9월

### 요약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유엔 2030 SDGs '12-5(2030년까지 예방,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대폭 감소한다)와 수원시2030 SDGs 6-3(소비절약 및 생활쓰레기 감축) 실현 목표로 소비절약, 생활쓰레기 감축, 소비재 재사용 촉진을 위해 시민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실험적 프로젝트로써 이웃나눔 공유박스 활성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는 2017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중간지원조직협의 모임을 조직하고 이를 통해 중간지원조직이 지원하고 민간이 실천하는 공유냉장고 운영체제를 완성하였다. 이 결과 2018년 3개소 시작으로 2024년 현재 38개의 동네 거점형 공유냉장고 프로젝트를 비예산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웃나눔 공유박스는 이러한 생활재 공유 운동을 먹거리에서 공산품 소비재로 확대하고자 하며, 이미 완성형인 공유냉장고 인프라에 공유박스를 접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 목적/배경

#### 1) 실천행동의 목적은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했는가?

○ 목적

- 회귀조류보전을 위한 실천적 행동 시작
- 소비자의 생활양식 전환 즉 생활재 공유를 통한 소비절약
- 생활쓰레기 감축 운동 촉진 자원순환 운동
- 마을커뮤니티형 물품재활용 플랫폼 형성 구축

#### ○ 배경

- 유엔 2030 SDGs12-3의 목표를 이루고자 수원시는 식량낭비 및 식량손실에 대응하고 먹거리 위기 가정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1호점을 시작으로 수원시 '공유냉장고'를 운영함.
- 수원시 '공유냉장고'는 2018년 1호점을 시작으로 2024년 현재 38개소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성과를 인정받아 2020년에는 대통령상을 수상함.
- 이에 수원시 '공유냉장고'의 성공적 사례를 기반으로 먹거리 분야뿐만 아니라 공산품 분야의 자원순환 및 물품 재활용 활성화 기반을 만들고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자원순환을 위한 '이웃나눔 공유박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함
- '이웃나눔 공유박스'는 유엔 2030 SDGs '12-5 2030년까지 예방,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대폭 감소한다.'는 목표 항목과 수원시 2030 SDGs '6-3 소비절약 및 생활쓰레기 감축'목표를 기반해 시민주도형 운동으로 운영하고 있음.
- '이웃나눔 공유박스' 캠페인을 통해 이웃나눔 재사용 운동을 생활속에서 전면적으로 추진해 궁극적으로는 생활폐기물 및 쓰레기를 줄이고자 함.

#### 2) 어떤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했는가?

- 자원순환과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작됨. 쓸만하지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버리지 않고,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자 함.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동시에 물품의 재사용을 통해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는 것이 목적임. 이를 통해 지역 사회 내에서 자원 공유 문화를 확산시키고,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체적 자원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임.

### 내용

#### 1) 추진과정

- 세부추진계획(기간) 로드맵

- 1단계 : 2023~2024(2년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3	행정 민간단체	업무공유 및 예산			협력방안마련, 현장설치 지원				현장점검 피드백			
	지속협	이웃나눔 공유박스 추진계획 수립			공유박스 제작 및 1차 예정지 1단계 : 10개박스 설치추진				1단계 설치완료			
2024	행정 민간단체	예산거버넌스			현장지원공유				피드백			
	지속협	성과검토 및 모니터링		2단계 : 2차운영 방안계획 2차 예정지 17개박스 추가설치						성과검토 및 모니터링		
2025	지속협	3단계 공유박스 프로젝트 추진예정										

○ 운영자 및 설치장소의 기본 원칙

전략적 설치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적으로, 2018년부터 설치와 운영을 시작한 공유냉장고 38개소에 이웃나눔공유 박스를 설치·운영 예정</li> <li>- 38개소 중 이웃나눔 공유박스 설치·운영의 의지를 갖고 있는 관리자 모색 및 인터뷰를 통해 1차년도(2023년)에 10개의 공유박스를 설치·운영하고 현재 27개소 운영 중임.</li> <li>-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점 등을 체크하여 향후 추진 시 반영(환류)</li> </ul>
사람과 장소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엇보다도 이웃나눔 공유박스는 마을주민 주도로 재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깨끗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li> <li>- 따라서 적절한 공간과 책임감 있는 관리자(주민)를 선별하는 것이 핵심이며, 주민주도형 자원순환박스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람과 장소에 방점을 찍어 세심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li> </ul>

○ 설치장소[총27개소]

2) 추진방법

- 시민의 주도적 운영방식을 기반으로 중간지원조직이 간접 지원하며 자발적 시민네트워크(주민 조직)의 안착을 성과로 하고 있음. 자원봉사활동을 조직하여 시민참여를 높임. 공유박스 운영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활동가로서 성장을 모색함.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웃나눔 공유박스 운영자 공개모집 → 운영자인터뷰 및 설치장소 검증 → 설치장소의 법적 제도적 검증후 냉장고 현장설치 및 안정성 여부 재확인 → 행정복

지센터 및 민간단체 지원 네트워크 연결 및 지원체계 구축 → SNS 일상지원 및 소통체계 연결  
→ 권역별 모임, 워크숍, 운영위, 커먼즈포럼 등 역량강화, 소통강화활동 → 피드백을 통한 조직 개선작업, 참여시민행복추진마련 → 사례공유를 통한 일상소통강화

○ 운영 전략 및 발전 계획

- 홍보 :
  - '커뮤니티형 마을 자원순환' 소통 메시지 설정
  - 공유박스 운영자 SNS 상시 운영
  - 전단지, 책자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이용방법 등을 담은 FAQ 형식의 공유박스 홍보 영상 제작 및 확산
- 역량강화 : 관리 방안, 자원봉사 교육, 인식 확대 등을 위한 교육 실시
- 안정화 : 마을공동운영제 도입
- 활발한 현황 교육 및 소통 추진
  - 단체 채팅방 운영, 마을별 사진 및 현황 공유 등
  - 주요 운영 일지 작성
  - 운영자 회의 진행(상·하반기 실시)
- 상시 운영
  - 원칙 : 연중, 24시간, 실외 설치
- 자원봉사 연계 운영 계획
  - 운영자 자원봉사 활동 실적 연계
  - 1일 2시간의 자원봉사 활동 등의 실적 인정
  - 비정기적 자원봉사자 대상

3) 주요 특징

수원시 공유냉장고의 성공적 사례를 기반으로 먹거리 분야에서 나아가 일반 생활재 공산품 분야를 통한 자원 순환을 도모하고자 수원시 이웃나눔 공유박스를 운영·추진 함.

4) 거버넌스 참여 기관과 역할(공동추진인 경우)

- 공동운영주체
  - 추진조직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지원조직 : 수원시 정책기획과, 청소자원과
  - 현장실행 운영조직 : 수원공유냉장고시민네트워크

## 추진성과 및 파급효과

### 1) K-SDGs 몇 번 목표 이행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 유엔 2030 SDGs '12-5(2030년까지 예방,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대폭 감소한다)와 '13(기후변화와 대응) 이행에 기여
- 자원순환, 쓰레기 절감 및 공유문화 가치 확산  
시민들의 실천을 통해 탄소중립 자원순환 길라잡이 역할 제고

### 2) 사례의 파급력(다른 기관이나 지역 등의 활동에 영향을 미쳤는가?)

- 공유박스는 수원시 연화장, 사회적경제 조직, 마을 주민자치 조직, 수원시 청소과 등과 연계 또는 참여가 이루어짐으로써 자원재활용 및 이웃나눔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어 예상하지 못한 기관 또는 단체, 개인들의 참여 속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 평가(애로사항, 과제 포함)

### 1) 사례 전반에 관한 평가

1. 수원시 공유박스 프로젝트는 공유냉장고 사업과 연계되어 기존의 오프라인 공유냉장고플랫폼을 이용하여 설치 됨으로써 27개의 공유박스가 마을단위 관계망에 쉽고 공감력이 있게 설치되어 시민참여와 마을관계망에 부드럽게 결합되었음
2. 사람중심의 설치방식으로 책임관리자가 반드시 존재하는 경우 설치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마을안에서의 자원순환 및 이웃나눔과 재활용이 일상화되도록 유도함
3. 그릇, 옷가지, 가방, 신발, 전자제품, 일상생활용품 등 다양한 생활용품들이 재활용되고 이웃나눔으로 활성화되고 있어 마을주민들의 관심과 관계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작동되고 있음
4. 7년째 운영되고 있는 공유냉장고처럼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공간적 인프라, 사람에 대한 지원 및 교육 그리고 자긍심을 높이는 방식의 인지도를 만들려고 매년 자원봉사 보상 및 공식 시상수 수원시와 연계하고 있음
5. 쓰레기 절감, 자원재활용, 공동체간 연대성 증진, 사회적 박스로의 의미 확산 등 이웃나눔을 넘어 다양한 부가효과를 결과 내고 있음

### 2) 사례의 지속성 평가(당해연도에 국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례인가?)

- 2017년도에 시작된 수원공유냉장고가 7년째 지속될수 있는 요인에 근거하여 공유박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1) 시민주도성에 기반하고 2)행정지원요소를 최소화하고 공동체에 기반한 자원성에 기반하여 행정의존성을 탈피함 3)시민자원봉사자들이 지속적으로 대표성과 자기주도성을 유지할수 있는 정서적, 물리적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4) 운영자 조직체계 및 민주적 의사결정체계를 형성하여 개인의 자율적 운영과 집단적 운영을 결합하여 저비용구조 및 연대감을 유지할수 있게 운영하고 있음





# 05

## 우수항 스토리

작성기관명 : 사회적협동조합 해시담

###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권 개선을 위한 '전주인친 프로젝트'

#### 세계화에 따라 사회는 계속 변화

세계화에 따라 사회는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면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우리는 국가와, 인종의 다양성으로부터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공유하며 세계관이 넓어지기도 하지만, 크기는 성별에 따른 역할과 정체성, 나이에 따른 세대 경험, 다양한 종교적 문화, 장애인과 비장애인 문화, 부의 크기로부터 경험하는 문화의 형태도 마주한다. 그중에서도 해시담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장애의 유무로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와 문화 실현을 지향한다.

그러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주체들과 함께 일상을 공유하며 가장 많이 마주한 현실은 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음식점, 카페, 약국, 문화공간 등등)과 이동환경이 너무나 제한적이며 열악하다는 사실이다. 현대사회에서 장애인의 결정권은 너무나 중요한 권리이며,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는데 있어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성은 끊이지 않는 사회적 이슈이다. 사회는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사회에서 자립하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과

인프라 구축에 대한 목소리를 귀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서 해시담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여 지속가능발전 목표 '불평등 해소(10)'와 '협력(17)'에 대한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다.

지역사회에서 발견했던 접근성의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상점에 단차와 계단이 있어 접근이 불가능하고,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없다는 점이었다. 이에 해시담은 전주라는 지역사회에 안에서 장애인 및 이동약자도 접근이 가능한 상점을 발굴하여 경사로를 설치하고, 주변에 있는 편의시설(편의점, 약국, 카페 공공시설 내 장애인 전용 화장실 등) 및 다양한 자원을 연결해 인권 친화적인 권역을 구축하는 사업, '전주 인권친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 프로젝트는 리빙랩 실험의 형태

프로젝트는 리빙랩 실험의 형태로써, 문제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실제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접근성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응답자 84%가 단차로 인해 상점 접근에 대한 불편함을 경험하였으며, 이는 문제 해결에 대한 실천근거가 되었다. 이후 해시담과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북지역문제해플랫폼을 중심으로 장애인 당사자를 더불어 전주시의회, 외식협회, 중증장애인생활지원센터, 척수장애인협회, 다양한 사회복지기관 및 유관기관과 단체, 전주대학교 사회적경제 교수, 도시계획전문가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들과 함께 추진체계를 구성하였다.

각 영역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다양한 실행방법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열정적인 논의와 실행단계를 거쳐 장애인의 유동인구 및 밀집도가 많은 권역과 관광지를 집중하여 공간을 발굴하였다. 총 517개의 상점 조사 끝에 경사로 설치가 가능한 2개의 상점(음식점)을 발굴하면서 고정식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었다. 나아가 주변 장애인 화장실이나 접근이 가능한 상점 등을 추가로 연결한 '인권친화 지도'를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경사로 설치뿐만 아니라 2개의 인권친화 권역을 지역사회에 구축한 효과를 가져왔다.

한편 사후·사전 공간실험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에는 접근하지 못하거나 불편함이 있었던 음식점이 경사로 설치를 통해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때 함께 실험을 진행한 당사자들과 현장에서 식사를 함께하며 나눈 기쁨은 해시담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자 실천의 동기가 되었다.

또한 프로젝트는 경사로를 설치하고 지도를 배포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해시담은 지역사회의 상점을 발굴하고 고정식 경사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를 발견하였는데, 바로 고정식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는 상점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고정식 경사로는 인도나 도로를 침범하지 않아야 하며, 소유토지 안에서만 합법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률적인 한계가 있었으며, 상점주의 인식이 장애인을 소비자로 인식을 잘 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발견했다.

이러한 문제를 사회공통의 문제로 인식을 확산하고 다양한 해결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경사로 대안 개발 위

크숍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전주시민을 더불어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에 해당하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와 활동가, 지자체 부서 관계자와 장애인 당사자들이 함께했으며, 참여한 모두에게 프로젝트에 가치와 사회문제해결 필요성이 각인되는 순간이었다.

경사로 대안 개발 워크숍을 끝으로 리빙랩 실험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해시담의 여정은 아직 남아있었다. 바로 '워크숍을 통해 나온 해결방향을 어떻게 사회에 다시 적용 시킬 것인가'라는 관문이다. 의견에는 고정식 경사로나 아닌 이동식 경사로의 새로운 형태가 필요하며, 경사로 설치 및 유지에 대한 책임의 명확성을 위해 건물주와 상점주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또한 장애인 소비자에 대한 상점주 대상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간과할 수 없었다. 이러한 식지 않은 열정과 도전의 여파는 또 다른 기회를 마주하게 했고, 해시담은 전주 인권친화 프로젝트에 이어 전주시 관광산업과와 함께 '전주시 무장애관광활성화' 사업을 진행하였다. 전주의 관광지 일대에 입간판형 이동식 경사로를 개발 및 설치하였으며 이에 대한 동의와 상점주 대상 장애인 소비자 교육까지 놓치지 않고 워크숍의 해결 방향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시민단체의 관심과 실천이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었으며, 나아가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 타당성을 입증하고 지자체 차원의 행동 실천까지 이끌어낸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장애인이 편한 세상은 모두가 편한 세상'

'장애인이 편한 세상은 모두가 편한 세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은 적 있다.

그 누구보다 삶의 불편함이 무엇인지 아는 이들조차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들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불편함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도 더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해시담의 인권친화 프로젝트는 이동의 불편함을 경험하는 이동약자(휠체어 이용 장애인, 유아차, 실버카, 나아가 리어카까지)를 더불어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편의를 지지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차별을 내려놓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이해할 수 있는 인식을 사회공동체와 함께 만들어가고자 한다. 앞으로도 이러한 목적과 목표를 위해 다양한 현장과 문제 안에서 해시담은 계속 나아가며 함께할 것이다.



# 05

##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권 개선을 위한 '전주인친 프로젝트'

사회적협동조합 해시담

2023년 ~ 2024년

### 요약

장애인 친화음식점으로 등록된 89개의 상가 중 휠체어 진입가능한 곳은 44개소이며, 이는 장애인 당사자 조사결과 음식점 및 카페 등의 접근 개선을 우선순위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 편의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권친화 상점 발굴(조사 517건) 및 지도 제작(2개 지역 총 400건), 400개 기관 50명 참여 워크숍으로 대안 마련, 리빙랩으로 2건 시범설치, 지역 내 이동식 경사로의 개발 논의도 활성화되었다.

이후 전주시와 협력으로 생활이동 뿐만 아니라 관광측면에서 전주 한옥마을, 웨리단길, 객리단길 지역 현장 조사를 통해 총 10건 설치를 진행하였다. 향후 이동식 경사로 설치 뿐만 아니라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확대 등으로 사회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 실천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 목적/배경

#### 1) 실천행동의 목적은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했는가?

- 전주 인친 ( 인권친화 ) 프로젝트란 사회참여 , 문화생활 , 네트워크 , 이동과 접근권의 영역에서 장애인의 선택권과 일상이 배제되지 않는 공동체 의식 향상과 인프라 및 환경조성을 위함에서 시작되었음 .

- 사회적협동조합 해시담은 청년장애인의 원활한 사회적 적응 및 자립을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사회탐구와 자조모임에서 성장한 단체임.
- 지역사회의 다양한 청년장애인들과 사회실험 및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 문화생활, 편의시설 ( 편의점, 카페, 음식점, 약국 등 ) 에 대한 이동 및 접근성 제한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음.
- 이에 지역사회의 리빙랩 사업을 통해 문제 원인과 해결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인권친화 상점 발굴 및 경사로 설치하며 장애인 불평등 요소를 개선 및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기획 및 추진함.

2) 어떤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했는가?

- 비장애인 더불어 다양한 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한다는 점에서 '신체적 ( 개인 )' 장애부터 '환경적 ( 사회 )' 장애로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불평등과 인프라 문제에 대한 갈등을 마주하게 되었음.
- 이러한 갈등을 일상에서 가장 많이 발견한 점이 바로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 의 편의성임.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고 싶은, 혹은 가야 하는 목적지가 있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러 식당에 가고 싶을 때,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동약자들은 충분히 누릴 수 있음에 대한 설렘보다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기본권에 대한 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함.
-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활동가들이 함께 일상을 공유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 음식점, 카페 등 ) 을 찾는 것' 이었음. 우리는 함께하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선택을 지향했지만 사회는 당사자의 소소한 일상에서도 다양한 공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지 않았음.
- 이에 '전주인친프로젝트' 통해 장애인을 비롯한 이동약자의 이동 및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객관적인 근거와 인프라를 개발 및 구축함.

내용

1) 추진과정

(1) 사전단계

- 22 년 전주시에서 배포하고 있는 장애인친화음식점 리스트를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상점을 방문하였지만, 실제 현황은 기존 정보와 다름을 확인하였음. 이는 장애를 가진 시민 혹은 소비자의 개인

적인 문제를 넘어서 공공의 정보 및 시설 인프라가 가지는 문제점을 인식하게 하였고, 보다 정확한 현황과 개선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실천행동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음.

① 장애인친화음식점 전수조사

- 일시: 2022 년 6 월 ~ 8 월
- 대상: 전주시 장애인친화음식점 89 개
- 내용: 실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상점 실태 조사
- 결과: 89 개의 상점 중 접근이 가능한 상점 ( 경사로 설치 상점 ) 은 44 곳으로, 실제 내부 이용이 가능한 상점은 44 곳 미만인 것으로 확인

② 장애인 접근권 확대 및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일시: 2022 년 09 월 29 일
- 대상: 전주시, 전주시의회
- 내용: 전주시 장애인친화음식점과 편의시설 개선 및 관리 필요성 발제, 전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필요성 발제

(2) 추진단계: 전주인친 ( 인권친화 ) 프로젝트 - 리빙랩

2022 년 전주시 장애인친화음식점 조사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에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인권친화상점을 발굴하고 경사로 설치를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 '전주인친프로젝트' 을 기획 및 진행함.



[로컬 기반과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리빙랩 추진체계 구성]

① 기획단 운영 및 기획회의 진행

- 일시: 2023년 6월 ~ 10월 월 1회 이상

- 대상: 사회적협동조합 해시담,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전주대학교 이재민 교수, 이동한 작가 (장애인 당사자)

- 내용: 실험 의제에 대한 리빙랩 프로세스 구성 및 실행 점검

② 추진체계 구성 및 추진 회의

- 일시: 2023년 6월 ~ 10월 월 4회 이상

- 대상: 휠체어 이용 장애인 2인, 사회적협동조합 해시담,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 내용: 지역사회 상점 접근성에 대한 문제점 및 장애인친화상점 발굴 유의사항 공유, 실행 계획 구성 및 실험공간 설계 방향성 논의

③ 장애인 당사자 설문조사

- 일시: 2023년 7월 1일 ~ 7월 31일

- 대상: 전북장애인복지관,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이용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 / 뇌병변 장애인 50명

- 내용: 상점 접근성에 영향을 주는 장애물 요소와 불평등 사례 파악

- 성과: 휠체어 이용 장애인 50명 대상 설문조사 1회 진행

④ 리빙랩 실험 실행

- 기간: 2023년 8월 ~ 10월

- 내용: ① 설문정보 취합 및 의제 방향성 확인

② 의제실험공간 권역별 조사

③ 장애인 친화 상점 지도 기획

④ 경사로 및 지도 실현가능성 점검 (사전 / 사후)

⑤ 장애인친화상점 경사로 설치

⑥ 장애인친화상점 지도 제작

- 성과:

정성	· 장애인친화상점 및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리빙랩 과정을 통해 상점 이용 효과성 증진
	· 장애인 인권친화 환경 조성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접근성 확대
	· 이용가능 상점 증가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 비장애인과의 교류확대를 통한 지역사회의 장애인 인식개선

정량	· 장애인 욕구설문조사 1회, 50명, 인터뷰 2명 진행
	· 장애인 친화 상점 경사로 설치 2개소, 인터뷰 1명 진행
	· 장애인 친화 상점 지도 제작 1식
	· 자료집 제작 1식

⑤ 새로운 문제 발견 및 의제화

- 경사로 설치예정 4개 행정동 전수조사 진행 (517건)

- 경사로 인도·차도 침범 등 도로법 위반 및 원도심의 경우 경사로 설치여건이 어려운 새로운 사회 문제 발생

- 대안개발 워크숍 기획 및 해결방안 모색

⑥ 경사로 대안개발 워크숍 진행

- 일정: 2023년 10월 19일 (목)

- 대상: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한 50명 (전주시민, 전주시 (장애인복지과, 인권법무과), 전주 시의회,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외 34개의 단체가 참여) - SDGs 목표에 근거하여 17개 분야의 다양한 시민·활동가·기업가 모집

- 내용: 지역사회 다양한 영역의 사회구성원이 그룹으로 하나 되어 구조, 기술, 제도, 자유의 카테고리 안에서 고정식 경사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개발하고 공유하는 자리 마련.



[다양한 문제해결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SDGs 17개 목표 기반 참여자(기관) 섭외]

- 성과 :

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의 접근성 증가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가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원활한 소통 문화 조성</li> <li>· 경사로 대안 개발 워크숍을 통한 민·관 협력 기회 마련</li> <li>· 지역사회 유니버설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근거 자료 마련</li> </ul>
정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사로 대안 개발 워크숍 1회 진행</li> </ul>

**(3) 후속사업 진행 : 전주시무장애관광 활성화 사업 ( 대안 워크숍 결과로 새로운 경사로개발 )**

2023 년 전주 인친프로젝트는 지역사회의 장애인 이동 및 접근성 향상과 인프라 개선에 대한 인식을 대외적으로 확대하였음 . 이에 경사로 대안 개발 워크숍 이후 2023 년 하반기 12 월부터는 전주시 관광사업과와 함께 입간판형 이동식 경사로 개발 및 상점주 인식개선 사업을 후속 사업으로 진행하였음 .

- 기간 : 2023 년 11 월 29 일 ~ 2024 년 5 월 28 일
- 대상 : 전주시 관광지 일대 ( 한옥마을, 객리단길, 웨리단길 ) 소규모 점포, 근린생활시설 중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 약 100 평 미만의 업소로 주출입구 경사로 설치 의무 대상에 제외된 업소
- 주요내용 : 입간판형 이동식경사로 설치 및 상점주 인식개선 교육 지원
- 세부과정 : ① 전주시 관광지 일대 전수조사 및 설치 가능 상점 발굴
  - ② 홍보 및 신청자 모집
  - ③ 업소별 점포 종사자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진행
  - ④ 전주시 무장애관광 환경 활성화 입간판 경사로 설치
  - ⑤ 현장 모니터링 진행
  - ⑥ 전주시 무장애관광 활성화 캠페인 진행

- 성과

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 맞춤 교육을 진행하여 장애이해 및 인식개선교육을 통한 교육의 만족도 제고</li> <li>· 전주시 한옥마을, 객리단길, 웨리단길에 입간판형 이동식 경사로 설치를 통해 무장애도시 구현을 위한 활동 개시</li> </ul>
정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휠체어 이용객 접근 가능 상점 20곳 발굴 및 경사로 10개 설치</li> <li>· 10개 상점 별 장애인인식개선교육 2회씩 총 20회 진행</li> <li>· 전주시 무장애관광환경 활성화 사업 및 입간판형 이동식 경사로 홍보 캠페인 1회 진행</li> <li>· 전주시 무장애관광환경 활성화 사업 홍보 리플렛 100개 배포 및 스티커 제작 및 10개 상점 배포</li> <li>· 입간판형 이동식 경사로 설치 가능 상점 현장 조사 4회 진행</li> </ul>

**2) 추진방법**

- 주인친프로젝트 기획단 운영 : 리빙랩전문가, 장애인 당사자,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으로 구성된 기획단을 운영하여 리빙랩을 추진함 .
- 다양한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협력 : 도시계획전문가, 편의시설 관련 전문가, 리빙랩 전문가, 디자인업체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함 .
- 당사자 중심의 사업 운영 : 사업의 중요한 주체인 휠체어 이용당사자들과 최대한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중증장애인생활지원센터, 척수장애인협회 등 관련 당사자 전문가들의 협력과 자문 아래 진행함 . 또한 당사자 욕구설문조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 기반을 마련함 .
- 리빙랩 : 리빙랩 실험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사회문제를 도전적이고 혁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함 .

**3) 주요 특징**

- 장애인 당사자 중심 사업 : 장애인 당사자가 기획단에 참여하였으며, 다양한 장애인주체들의 자문을 받아 사업을 진행함 .
- 도시 공동체 변화를 위한 공동의 장 마련 : SDGs 17 개 목표를 기반으로 17 개 분야에 해당하는 다양한 주체자들에게 본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고 함께 협력함 . 지역의 공론화뿐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 도출에 도움이 되었음 .
- 문제인식과 일시적 리빙랩이 아닌 계속되는 연속사업으로 이끌어 냄 : 사회문제 발견 → 리빙랩 → 새로운 문제 도출 → 공론화 및 대안개발 → 대안 실행
- 사례를 통한 지역사회 이슈화 및 인식 개선효과 : 소규모의 협동조합에서 민관협력과 거버넌스 기구와의 적극 협력으로 새로운 문제를 도출하고, 지역사회에 이슈화를 이끌어 냄 .
- 경사로 대안 개발 워크숍의 경우 10 개의 테이블 퍼실리테이션기법으로 운영하고, 현장에서 실제 겪었던 내용 중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했던 주요 사례 4 가지를 시뮬레이션 시트지를 제작하여 워크숍에 활용함 .

**4) 거버넌스 참여 기관과 역할(공동추진인 경우)**

-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 협의회 지역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양한 민관협력 사업 참여유도, 리빙랩 사업 실무지원
-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 경사로 리빙랩 사업 지원, 지역 언론 및 관련 전문가 연계지원
- 전주시의회 : 사업 지역 의제화 및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제정으로 사업기반 마련
- 전주시 장애인복지과 : 편의시설 전수조사 사업 지원 및 사업 협력 주관 도모
- 전주시 관광사업과 : 경사로 리빙랩 이후, 대안 입간판 경사로 사업 지원

## 추진성과 및 파급효과

### 1) K-SDGs 및 번 목표 이행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 · 10번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 인권친화상점 발굴과 경사로 설치, 지도배포, 경사로 대안개발 워크숍, 입간판형 경사로 개발 및 설치 사업을 통해, 지역내 구조적·사회적 문제인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였음. 특히 의식주와 관련된 상가 중심의 사업을 진행하여 인간의 기본권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함.

#### · 11번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 인권친화상점 구축을 위한 상점 발굴 및 조사-상점 데이터 맵핑-경사로 설치와 지도제작 및 배포 등의 일련의 실천행동 과정은 누구나 이용하기 편한 편의시설을 구축하고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본 목표에 기여함.

#### · 9번 산업의 성장과 혁신의 활성화 및 사업기반시설 구축

- 리빙랩이라는 사업방식을 통해 사회문제를 실험하여 의제를 발굴하고, 의제를 리빙랩 방식으로 해결하면서, 새로운 사회문제에 다시 도전하고 실천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음. 혁신적인 사회실험과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노력한 점에서 목표에 기여함.

#### · 5번 성평등

- 불평등 사업을 진행하면서, SDGs 17 개 목표체계로 운영하려 노력을 하였으며, 특히 경사로 대안개발 워크숍의 경우 휠체어 이용 당사자의 성비를 1:1로 조율하려는 노력을 하였음. (실제 참여 성비, 6(여성):4(남성))

#### · 12번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 고정식 경사로는 비에프코리아 BF KOREA 인증을 받은 EX 조립형 경사로를 설치하였음. EX는 우유팩 내부에 사용하는 PE로 재질로 무독성, 무취가 특성임. 산성에 강해 부식 잘 되지 않으며, 355대의 휠체어를 지탱할 수 강도를 인증받아 주기적인 교체 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 17번 지구촌 협력강화

- 전반적인 실천행동은 공동체 단위 교류 및 운영위원회, 현장조사단 조성,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상호협력이 필요한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문제해결방향성을 도모하였음. 각 영역의 활동가와 전주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중간조직기관, 공공기관 등 다양한 개인의 주체와 유관기관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함.

### 2) 사례의 파급력(다른 기관이나 지역 등의 활동에 영향을 미쳤는가?)

-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지역문제해결 혁신 활성화 부문 전북도지사 표창장 수상
- 전주시 지역의 다양한 기관에 공론화 장을 만들어 장애인 이동권, 접근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
- 전주대학교 (직업) 재활학과 동아리 그린나래 토크콘서트에서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성에 관한 사례발표
- 전주시 소상공인 대상 장애인 소비자 인식개선교육에 활용 및 정보 확산
-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 무장애환경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및 협력

## 평가(애로사항, 과제 포함)

### 1) 사례 전반에 관한 평가

- 지역 내에서 계속해서 의제화되고 논의되었던 장애인·이동약자 이동권 문제를 실천영역으로 확장하여, 지역 상가를 조사하고, 경사로를 직접 설치하는 성과를 이룸.
- 경사로 설치 사업에 제도적, 현실적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히려 이를 역이용하여 지역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 활동가, 시민단체, 지자체, 의회, 장애인단체와의 문제해결 워크숍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음.
- 경사로 워크숍을 통해 새롭게 개발된 아이디어를 전주시 및 지역 디자인기업과 협력하여 대안으로 입간판형 경사로를 직접 개발하여 지역에 확산시킴.
- 전주시, 전주시의회,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역문제해결플랫폼 등 지자체 및 거버넌스 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력의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함.
- 전주지속가능발전목표에 의거하여, 10. 불평등 해소를 중심으로 성평등, 환경, 제도 등 SDGs 적 통합 사업을 진행하였음.

### 2) 사례의 지속성 평가(당해연도에 국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례인가?)

-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 내 장애인복지관, 중증장애인생활지원센터, 척수장애인협회, 전주시 장애인복지과, 관광산업과,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회복지분과와 협력체계를 이루었던 경험을 만들. 이를 통해 이후 관련 연속사업을 진행하는데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 될 예정임.

- 경사로 대안 개발 워크숍, 대안 경사로 실제 개발, 편의시설 맵핑, 지도제작 등 전주시 지역 내 이동권과 관련하여 많은 데이터와 경험을 누적하였음. 누적된 지역 데이터와 편의시설 제도 지식으로 실제 유니버설 디자인을 갖춘 숙박시설 운영을 준비하고 있음.
- 사업협력기관이었던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의 지역 무장애관광 사업 진행을 함께 준비 진행중이며, 관련된 이동권 사업을 계속해서 할 예정임.



1. 인권친화상점 지도  
2. 고정식 경사로 설치 현황



3. 경사로 대안 개발 워크숍  
4. 경사로 대안개발 워크숍 그룹별 토론 및 발표



5. 워크숍 시트지 - 실제 사례를 가상화  
6. 워크숍 시트지 - 아이디어 활동지



7. 무장애관광활성과 임간판형 경사로  
8. 무장애관광활성과 경사로 모니터링

# 06

## 우수항 스토리

작성기관명 : 은평구청

### 은평형 탄소중립 실천마을 만들기 감(減)탄(Co2)행(action)동(洞) 프로젝트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는 우리 모두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은평구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감(減)탄(Co2)행(action)동(洞)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주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후진배경 및 목적

은평구는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탄소중립 방안을 마련해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21년 은평구의 탄소 순배출량이 약 1,600천 톤에 달하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주민들의 저탄소 생활 실천 문화 조성이 더욱 절실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은평 감(減)탄(Co2)행(action)동(洞) 프로젝트

#### 1. 탄소중립 시범거리 조성

2023년 은평구는 은평로21길 인근 주민, 기관, 학교 등 민관학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시범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이 거리는 친환경 디자인을 적용한 보행로와 태양광 조명, 걸이 화분 등이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탄소중립을 접하고 환경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간은 은평구 탄소중립 랜드마크 자리잡아, 주민들의 탄소중립 인식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2.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찾아가는 환경교실'에서는 16개 동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실천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주민들은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배웠습니다. 교육 종료 후에는 각 동별로 생활 실천 결의 다짐 캠페인을 진행하여, 주민들이 친환경 실천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러한 참여는 주민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의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더욱 깊이 뿌리내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 3. 탄소중립 주민실천단 구성

2024년 6월 1일, 840명으로 구성된 '탄소중립 주민실천단'의 발대식이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들은 지역 내에서 특별환경영화제, 열지도 그리기 등 다양한 캠페인과 워크숍에 참여하며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각자의 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 가능한 생활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4. 동 참여예산 탄소중립 사업 추진

녹번동 '어린이 식물사' 사업을 포함해 총 31개의 동별 지역 특화형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협력 의식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 성과 및 영향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주민 주도의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조성하였으며, 2024년 환경부의 환경교육도시와 서울시의 탄소중립 도시 생태계 조성 사업으로 선정되어 그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주민들은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깊이 체감하며,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은평구 '감(減)탄(Co2)행(action)동(洞) 프로젝트'는 탄소중립의 실질적 주체인 주민 참여를 통해 기후 변화 대응에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더 나은 녹색 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 06

## - 은평형 탄소중립 실천마을 만들기 - 은평'감(減)탄(Co2)행(action)동(洞)프로젝트」

### 은평구청

2023년 1월~ 계속

### 요약

- 은평구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은평형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6가지 실천 전략을 계획하였음.
- 이번 소개 사례 은평'감(減)탄(Co2)행(action)동(洞)프로젝트」는 6가지 실천 전략 중 그린 실천 분야 사업으로, 탄소중립 생활 실천문화 확산과 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음.
- 사업은 ①탄소중립 시범거리 조성, ②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③탄소중립 주민 실천단 구성·운영, ④동 참여예산 탄소중립 사업 총 4가지로 모든 사업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천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음.
- 2024년 환경부 환경교육도시 선정 및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의 효과성을 입증 받았으며 향후 녹색사회 은평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 개선 등의 노력을 해나갈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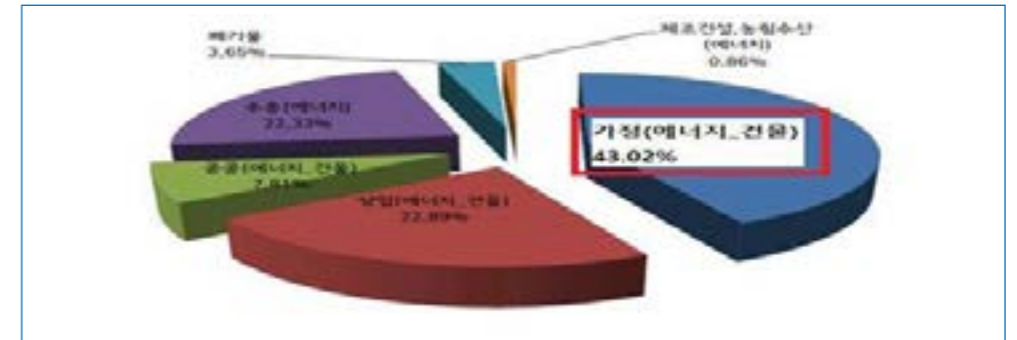
### 목적/배경

- 전지구적 기후위기에 대한 **지자체 대응 방안 마련**
  - 2050 탄소중립 선언(2020.12.),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2020.6.)등에 발맞춰 은평의 지역 실태 분석을 통한 탄소 중립 방안 마련 필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50년 넷-제로 (Net-Zero) 달성을 목표로한 관련 조례 제정 및 탄소중립 추진계획 수립 등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 \* IPCC 제6차 보고서 : 2040년 전 지구 평균온도 1.5°C 상승 위험
- \* 2021년 은평구 탄소 순배출량 : 약 1,600천톤(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자료)

- 은평구 주민 주도의 탄소중립 생활실천 문화 조성을 통한 2050 탄소중립 달성
  - 은평구는 가정 에너지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음에 따라 「은평형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통해 탄소중립 인식 확대 및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그린 실천 사업 이행 기반 마련



\* 은평구 탄소중립 및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2021.12.)

### 내용

구분	내용	
조직 기반 구축	1) 지속가능발전 전담조직	1) 은평구 기획예산과 기획팀
	2) 구정 정책 키워드	2)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내일을 여는 은평"
	3) 관련 사업	3) 지속가능발전 중점과제 : 17개 ESG 분야별 중점과제 : 33개
	4)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	4)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5) 의원연구모임 등 유무	5) 은평구의회 주관 ESG 경영 활성화 정책 토론회 개최(2023)

제도 기반 구축	1)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추진기구 운영지원조례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 이행 정책적 기반 여부	2) 관련 조례 및 사업계획 등
	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3) 4대(사회통합, 경제성장, 환경보전, 협치제도) 기반 17개 발전목표 수립
	4) 기본전략/추진계획 수립	4) 은평구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수립(2021) 제2차 추진계획 수립(2023) ESG행정 종합 추진계획 수립(2023, 2024)
	5) 모니터링 평가 시스템 여부	5) 지속가능발전 중점과제 점검 : 연 1회 ESG 분야별 중점과제 점검 : 반기별
	6)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 운영 예산 및 관련사업 예산 등	6) 위원회 회의 운영비 등 : 5,000천원

□ 은평구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근거하여 2019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 공론장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2021년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계획 수립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내일을 여는 은평”을 비전으로 4대 영역(사회 통합, 경제성장, 환경보전, 협치제도) 기반 17개 목표 및 중점과제를 발굴하고

□ 관련 조례에 따라 구성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촉직19명, 당연직8명)를 통해 매년 사업별 추진 상황을 점검 및 평가하며 2023년에는 제1차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발간 하였음

□ 또한 2023년, 제2차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을 통해 중점과제 및 관련 성과 지표를 실정에 맞게 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ESG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분야 사업(총 31개) 중점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도시 구현 체계를 마련하였음

<응모사례>

□ 「은평 감(減)탄(Co2)행(action)동(洞) 프로젝트」

① 주민과 함께 실천하는 ‘탄소중립 시범거리 조성’

- 사업목적 : 주민의 저탄소 생활실천 문화 확산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위치 : 은평로21길(약 65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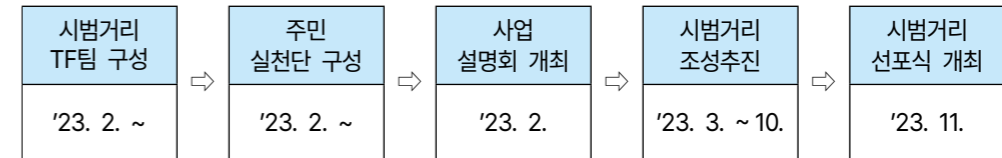
- 사업내용



사업명	추진 내용
친 환경 보행거리 조성	① 보행도로 환경개선(친환경 디자인 등)      ② 가로등 미니태양광 설치(5본) ③ 보행로 걸이화분 설치                              ④ 자투리땅 녹지 조성(식물 식재 등) ⑤ 탄소중립 로고젝터 설치(약 200개)              ⑥ 태양광 도로표지병 설치
주 민 생 활 속 탄소중립 실천	① 탄소중립 주민실천단 구성(116명)              ② 온실가스 감축 실적 관리 ③ 쓰레기 다이어트 프로젝트(189가구)          ④ 생활실천 교육 및 캠페인(35회) ⑤ 탄소중립 실천 참여상가 인증(15개소)        ⑥ 에코 마일리지 가입 ⑦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                              ⑧ 저소득층 온실가스 감축 지원



- 추진절차



- 소요예산 : 52,040천원(구비) \* 협업부서 예산 별도

- 추진 주체별 역할



부서(기관)	업무내용
기 후 환 경 과	· 사업 총괄 운영
도 시 계 획 과	· 탄소중립 로고젝터 설치, 태양광 도로표지병 설치
도 로 과	· 보행도로 환경개선 사업, 가로등 미니태양광 설치
공 원 녹 지 과	· 보행로 걸이화분, 자투리땅 가로화분 설치 등 녹지 조성
교 통 행 정 과	· 승용차마일리지 주민가입 독려
주 민 참 여 협 치 과	· 주민실천단 쓰레기 다이어트 프로젝트 추진
녹 번 동 주 민 센 터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실천단 구성 · 주민회의 시 사업설명회 개최 및 주민협조 홍보
녹번종합사회복지관	· 주민실천단 탄소중립 실천활동 지원 · 복지관 내 탄소중립 체험 및 교육공간 대여 협조 · 복지관 이용자 대상 탄소중립 사업설명 및 홍보
은 평 문 화 재 단	· 은평문화예술회관 주변 녹색환경 조성 협조 · 은평문화예술회관 이용자 대상 탄소중립 사업설명 및 홍보
남 도 학 속	· 남도학숙 주변 녹지환경(화분 등) 조성 협조 및 학생 활동 유도
은평·녹번초등학교	· 초등학교 대상 탄소중립 실천교육 및 캠페인 참여 협조 등

㉔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 사업목적 : 환경사업 인식 제고 및 생활실천 문화 확산
- 사업기간 : 2023. 4. ~ 11.
- 사업대상 : 16개동 통장단(574명) 및 주민자치위원(752명)
- 교육내용 :
  - 1) 탄소중립 개념 및 필요성
  - 2) 주민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실천방법
  - 3) 2050 탄소중립 관련 은평구 추진사업 안내
  - 4) 동별 2024년 참여예산 공통주제(환경) 선정사업 실행 지원
  - 5) 교육 종료 후 생활실천 결의다짐 캠페인 실시
- 추진절차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용역 계약									
교육 운영	통장단								
	자치위원회								
결과보고									

- 소요예산 : 18,000천원(구비)
- 추진 주체별 역할

부서(기관)	업무내용
기 후 환 경 과	·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주 민 참 여 협 치 과	· 주민자치위원, 통장 환경교육 수강 협조

㉕ '탄소중립 주민실천단 구성·운영'

- 사업목적 : '은평형 탄소중립 실천마을' 조성
- 사업기간 : 2024. 1. ~ 11.
- 사업대상 : 주민실천단 840명(16개 전동 참여)
- 사업내용 : 주민실천단 발대식, 생활실천 환경교육, 탄소 중립 캠페인, 워크숍, 성과공유회 등
- 추진 절차



내용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탄소 중립 주민 실천단	사업설명회 개최 및 실천단 모집										
	에너지드림센터 견학 및 안내서 제작										
	주민실천단 발대식 및 탄소중립 공청회										
	탄소중립 한마당 및 특별상영회 개최										
	찾아가는 환경교육(16개 동)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열지도 그리기 등)										
	탄소중립 주민실천단 워크숍 성과공유회 개최										

- 소요예산 : 46,600천원(시비 30,000, 구비 16,000)
- \* 2024년 자치구 탄소중립도시 생태계 조성 사업 공모 선정(2024. 3. 6.)
- \* [https://www.youtube.com/watch?v=x5\\_c9TTShss](https://www.youtube.com/watch?v=x5_c9TTShss)(주민실천단 발대식 및 탄소중립 한마당 영상)

④ '동 참여예산 탄소중립 사업 추진'

- 사업목적 : 주민 주도의 기후 위기 대응 사업 확산
- 사업기간 : 2024. 3. ~ 11.
- 사업대상 : 16개 동 참여예산 사업
- 사업내용 : 마을(동) 주도 탄소중립 사업
- \* 녹번동'어린이 식물사당' 총 31개 사업 추진
- 추진절차



내용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참여예산 탄소중립 지역사업	지역사업 성과관리 지원										
	지역사업 추진 모니터링										
	성과공유회 개최										

- 소요예산 : 306,000천원(참여예산)
- 추진 주체별 역할(④사업 포함)

부서(기관)	업무내용
주민참여협치과	· 탄소중립 주민실천단 구성 협조 · 동 참여예산 지역사업 모니터링 · 탄소중립 실천모범구민 표창 승인
기 후 환 경 과	· 탄소중립 주민실천단 운영 · 에코마일리지 주민가입 독려 · 주민실천단 환경교육 및 캠페인 실시
교 통 행 정 과	· 승용차마일리지 주민가입 독려
동 주 민 센 터	· 탄소중립 주민실천단 구성 및 區 주관행사 참여 · 은평구민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 참여 등

**추진성과 및 파급효과**

- 주민 주도 지역사업 16개 동 31개 지역사업 추진
- 지역 맞춤형 환경 사업(31개)의 발굴부터 결정까지 전 과정 주민 참여 추진
- 2024년 주민참여 지역사업 선정 시 전동 예산을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사업으로 배정(구청장 지시사항)

□ 은평 민·관·학 협력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 탄소중립 시범거리 협업 기관(7개) : 은평구청, 은평구의회, 서울녹번초등학교, 서울 은평초등학교, 녹번종합사회복지관, 탄소중립시범거리 주민실천단, 제2남도학숙

□ 능동적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 탄소중립 생활실천 마을(동) 단위 확산을 위한 탄소중립 주민실천단 운영(16개 전동, 840명)
- 탄소중립 공청회,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열지도 그리기 등) 등 참여
- 찾아가는 환경교육 운영을 통한 가정 탄소중립 실천력 제고 등

**평가**

□ 주민 주도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 조성

- 은평구는 주민과 함께 만드는 2050 탄소중립 은평을 목표로 지역구민과 함께 만드는 2050 탄소중립 은평구 포럼(2020.9.), 은평구 탄소중립 정책수립 설문조사 실시(2021.10.) 등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왔으며
- 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감탄행동 프로젝트를 통해 친환경 보행거리 조성(650M), 주민실천단 운영(840명)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여 탄소중립 실천도시로 나아가는 초석을 다졌음
- 또한, 2024 환경부 환경교육도시 및 서울시 탄소중립도시 생태계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효과성 등을 인정 받고 녹색사회 은평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 사업 관련 보도자료



① 탄소중립 시범거리 선포식 (Hello tv NEWS)    ② 찾아가는 환경교육 (전국매일신문)    ③ 주민실천단 발대식 (LG헬로비전)    ④ 동 참여예산 탄소중립 사업 (서울복지신문)

# 07

## 우수항 스토리

작성기관명 : 전라남도 해남군

### 군민과 함께하는 농어촌 혁신, 해남형 ESG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든다



#### “지속가능한 사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전환”,

“지속가능한 사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전환”, “resilience-회복력”과 같은 키워드가 요즘 사회에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 ESG 가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과 성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미 UN에서도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169개 세부과제를 설정하면서 ESG 경영을 강조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ESG가 민간을 넘어 공공부문까지 확장되고 있다.

해남군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대표적인 농업 지역으로, 자연재해와 환경문제로부터 농민의 안전과 생계를 지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따라 군민과 함께 실천하는 해남형ESG를 군정의 주요 방침으로 정하고 “청정환경, 함께하는 안전사회, 신뢰받는 행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군민의 일상에 깊이 스며든 ESG 실천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2년, 해남형 ESG의 구체적인 방향성이 마련되었고, 이 과정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5대 정책과제와 5대 실천과제를 국민제안 공모를 통해 선정하였다. 군민의 참여가 이루어진 이 과정은 해남형 ESG의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으며 이후 해남군은 비전선포식을 통해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46개 기관 및 단체와 협약식을 통해 민관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군민의 참여와 협력이 중요한 만큼 다양한 캠페인과 프로그램이 추진하였는데, 캠페인 송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캠페인 광고를 통해 군민들에게 ESG의 가치를 알렸으며 해남형ESG 로고도 제작하여 지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은 군민들이 ESG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월별 미션”과 “액션데이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군민과 공직자들이 함께 ESG 실천을 생활 속에서 구현하도록 독려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이 대중교통 이용하기, 줍깅, 텀블러 사용 등의 친환경적인 생활 방식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젊은 세대의 인식 제고에 큰 기여를 했다.

#### 주민참여형 ESG 실천 공모사업

주민참여형 ESG 실천 공모사업도 눈여겨볼 만하는데, 이 사업을 통해 선정된 5개 단체는 각자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실천가능한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예를 들어, 못난이 농산물로 만든 천연비누와 음료는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해남 청년들이 주도하는 활력 넘치는 ESG 프로젝트는 젊은 세대가 주도하는 지속가능성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결국, 해남군의 ESG 실천 노력은 단순한 정책 추진을 넘어, 지역 사회 전체가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되고 있다.

이제 해남군은 ESG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관 협업 TF 팀을 구성하여 기본전략 수립안을 작성하고 주민참여단 100여명을 조직해 의견 수렴을 위한 속의 공론장을 운영하였다. 또한, 심의·의결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해 행정 전반에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반영하며, ‘사람과 자연이 어울려 미래가 더 살기 좋은 해남’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해남형SDGs를 선정하였다.

앞으로도 해남군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통합한 정책을 강화하면서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모범 사례로 자리잡으며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이다.

# 07

## 군민과 함께하는 농어촌 혁신, 해남형 ESG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든다

전라남도 해남군  
2022년 6월 ~

### 요약

□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발전(SDGs)"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군민과 함께 실천하는 해남형 ESG  
군정 도입

- ESG 가치를 군정에 도입하여 '청정환경(E)·함께하는 안전사회(S)·신뢰행정(G)' 실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모색

□ 해남형 ESG 인식 개선 및 ESG 실천 분위기 조성

- 해남형 ESG 비전선포식, 생활속 ESG 실천과제 국민 공모(5대 정책과제, 5대 실천과제 선정)
- 해남형 ESG 공동 실천 협약식: 관내 46개 기관 · 단체 실천 공동협약 체결
- 해남형 ESG 월별 미션 챌린지, 해남형 ESG Action Day 릴레이 캠페인
- 당신과 함께라면 말이야 실천 릴레이 캠페인(SNS 등), ESG 캠페인송·캠페인광고 제작
- 군민과 함께하는 해남형 ESG 공모사업, 친환경 착한여행 추진, ESG 사랑의걷기 캠페인

□ 해남의 미래비전 설계 "해남군 지속가능발전 체계 구축"

- (22. 12.) 해남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 (24. 1.) 지속가능발전 실천 다짐식 추진
- (24. 2.) 지속가능발전 민·관 협업 TF팀 구성 \* 기획실 3, 전문가 4

▶ 기본전략 2045 수립시, 연구용역 대신 TF팀 구성·정기회의 + 주민참여단 의견수렴을 통한 자체 추진

- (24. 3.) 속의공론화장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단 100명 발대식
- (24. 9.) 해남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식: 군정 전반 경제·사회·환경·협치분야 / 30명  
해남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2024-2045) 및 추진계획 수립
- (24. 3.) 군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인식도 설문조사를 통해 기초자료 마련
- (24. 3. ~ 8.) 지속가능발전 민·관 협업 TF팀 업무협의를 통해 기본전략 수립(안) 작성
- ▶ 주민참여단 100명의 워크숍 활동을 통해 도출된 의견들을 기본전략 수립 시 반영
- 17개 해남형 지속가능발전목표(H-SDGs), 62개 세부목표 및 151개 정책과제, 미래 지속가능성을 대표할 수 있는 62개 지표 도출

**해남형 ESG '영향'**

- ESG 윤리경영 지속 추진&환류
- ESG 정책과제 발굴(하향)
- 주민제안형 ESG 공모(상향)
- ESG 가치 내재화(인식확산)

**해남군 지속가능발전 '체계 구축'**

- 지속가능발전 조례제정 근거 마련
- 해남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목표, 세부목표 수립, 지표 개발의 필요성
- 해남군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지속가능발전 방향 설정(기본전략 2045 수립 등)

### 추진배경 및 목적

- ▶ 대한민국 최남단 땅끝 해남군의 ESG 경영 필요성 대두
- 기후변화에 취약한 농업기반(전국 최대 경지면적)으로 선제적 대응 절실
- 낮은 지역안전지수 · 문화지수 개선으로 문화·사회 전반의 격차 해소 필요



- ▶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와 기후변화에 따라 인해 환경이 중요해지면서 ESG에 대한 논의 확산  
⇒ 생존과 성장의 핵심요소로 부상
- ▶ 대통령 UN 연설 ESG 경영 강조: 기후위기 대응, 포용적 회복
- ▶ 민간기업 중심'으로의 ESG 윤리경영이 공공부문까지 점진적 확산 중
- ▶ ESG 경영 확산 정부정책 가속화: 공공기관 ESG 가치 포함, 110대 국정과제 ESG 경영 강조
- ▶ 군민과 함께 실천하는 해남형 ESG 실현으로 군정발전의 지속가능성 확보

<b>E</b> (청정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추진 (탄소중립 에듀센터, 자원순환 복합센터, 신재생에너지 단지조성 등)</li> <li>□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친환경 농업 육성정책 추진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60ha,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 확대)</li> <li>□ “60만 그루 나무심기” 탄소흡수원 확충, 친환경적 관광정책</li> <li>□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원순환1번지 해남 (주민참여형 자원순환사업, 쓰레기 제로 515! 마을만들기, 탄소중립 마을만들기)</li> </ul>
<b>S</b> (안전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계층 생활안전망 구축 (첫 만남 이용권,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여성친화도시, 우리동네 복지공동체)</li> <li>□ 주민이 주인되는 주민자치 활성화, 자치활동가 양성 (민·관·학 작은학교 살리기, 주민자치 생태계 구축, 자치활동가 양성학교)</li> <li>□ 장학사업기금 500억 조성 등 교육·공동체 육성</li> </ul>
<b>G</b> (지배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종합 청렴도 1등급 목표, 적극·혁신행정, 공평·공정·공개 인사행정)</li> <li>□ 소통채널 다양화를 통한 공감행정 추진 (평갈해남소식지, SNS, 기획보도, 군민과의 공감대화, 해남소통넷 등)</li> <li>□ ESG 신속배달(찾아가는 지속가능발전 교육) * ESG 가치 인식 개선교육 등</li> </ul>

<b>해남형ESG「도입」</b>	<b>해남형ESG「생광」</b>	<b>해남형ESG「명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남형ESG 비전 선포</li> <li>· ESG 정책과제·실천과제 발굴</li> <li>· 기관·단체 실천 협약식</li> <li>· 해남형ESG 홍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SG 정책과제 발굴·수행(하향)</li> <li>· 주민제안형 ESG 공모(상향)</li> <li>· ESG 가치 내재화(인식확산)</li> <li>· ESG 문화확산 추진(캠페인 활동)</li> <li>· 지속가능발전 체계 구축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지표개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SG 추진성과 환류</li> <li>· 부서별 지속가능발전 과제 추진 및 성과보고</li> <li>· 지속가능발전 인식 확산 캠페인 활동</li> </ul>
2022년	2023년 ~ 2024년	2025년 ~

**요약**

	구분	내용						
조직 기반 구축	지속가능발전 전담조직 및 정책 키워드와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발전 중요성 대두, 해남형ESG 군정 도입</li> <li>- 청정환경, 안전사회, 신뢰행정 실현의 지속가능한 발전모색</li> <li>▶ 국민 공모제안을 통해 ESG 실천과제 선정</li> <li>&lt;5대 정책과제&gt;</li> <li>① 기후변화대응 선도 ② 녹색환경 조성 ③ 생활안전망 구축</li> <li>④ 소상공인 상생·활력 ⑤ 공정과 투명</li> <li>&lt;5대 실천과제&gt;</li> <li>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② 5층이하 계단 이용하기</li> <li>③ 자원순환사업 참여하기 ④ 친환경 운전 실천하기</li> <li>⑤ 고효율 LED 조명 바꾸기</li> <li>▶ 해남군 지속가능발전 2045 비전 및 5P전략 선정</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r> <td style="background-color: #008b8b; color: white; text-align: center; padding: 5px;"><b>지속가능발전 비전</b></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td> <td style="background-color: #008b8b; color: white; text-align: center; padding: 5px;"><b>5P 추진전략</b></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사람과 자연이 어울려 미래가 더 살기좋은 해남</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1. 기후위기 대응과 자연환경 보호 2. 행복하고 건강한 포용사회 조성 3. 신성장 경제와 좋은일자리 창출 4. 포용과 소통의 민관협치 강화</td> </tr> </table>	<b>지속가능발전 비전</b>	-	<b>5P 추진전략</b>	사람과 자연이 어울려 미래가 더 살기좋은 해남		1. 기후위기 대응과 자연환경 보호 2. 행복하고 건강한 포용사회 조성 3. 신성장 경제와 좋은일자리 창출 4. 포용과 소통의 민관협치 강화
	<b>지속가능발전 비전</b>	-	<b>5P 추진전략</b>					
사람과 자연이 어울려 미래가 더 살기좋은 해남		1. 기후위기 대응과 자연환경 보호 2. 행복하고 건강한 포용사회 조성 3. 신성장 경제와 좋은일자리 창출 4. 포용과 소통의 민관협치 강화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민·관 협업 TF팀 구성: 24. 2.</li> <li>▶ 속의공론화장 운영을 주민참여단 100명 위촉: 24. 3.</li> <li>▶ 해남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 24. 9.</li> <li>- 제1기 해남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30명(당연직 6, 위촉직 24)</li> <li>- 경제분과/사회분과/환경분과 총 3개 분과로 구성</li> </ul>						
제도 기반 구축	지속가능발전 조례 등 정책적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남형ESG 윤리경영을 민선8기 군정중점과제 채택: 22. 6.</li> <li>▶ 해남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22. 12.</li> <li>* 일부개정: 위원회 인원수 증가, 속의공론화장 운영 등</li> </ul>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기본전략/추진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남형 지속가능발전(H-SDGs) 17개 목표 수립</li> <li>▶ 해남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2045 수립</li> <li>- 군민 1,000여명 대상 인식도 설문조사를 통해 기초자료 마련</li> <li>- 비전도출: 사람과 자연이 어울려 미래가 더 살기좋은 해남</li> <li>- 62개 세부목표 및 지속가능발전 지표, 151개 정책과제 도출 등</li> </ul>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위원회)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남군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예산: 50백만원</li> <li>- TF활동비, 인식확산 교육,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위원회 수당</li> <li>▶ 군민과 함께 실천하는 해남형ESG 시책사업: 130백만원</li> <li>- ESG 실천 공모사업, 인식확산 공모전, 사랑의걷기, 캠페인송 제작 등</li> </ul>						

- 해남군-기관(단체)과 연대협력하여 ESG 경영 촉진 다짐활동 전개
  - (해남형 ESG 비전 선포) ESG 확산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10대 과제 중심의 실천 의지를 다지는 비전을 선포하고, 군민의 참여를 유도함
    - ESG 개념 소개, 해남형 ESG 10대 과제 소개, 비전 선포, 비전 공유 퍼포먼스
    - 환경·사회·거버넌스 부문 대표자 선포문 낭독 ⇒ 실천 다짐, 의지표명
  - (해남형 ESG 실천 공동협약식) ESG 실천과제를 민·관 협업의 실천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실천 의지를 다짐
    - 관내 46개 기관·단체 협약(기관 15, 단체 31)
    - 해남형ESG 추진배경과 10대 과제 안내
    - ESG 개념 소개, 해남형 ESG 10대 과제 소개, 비전 선포, 비전 공유 퍼포먼스

비전선포식	ESG 실천 공동 협약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남형 ESG 비전 선포</li> <li>▶ 해남형 ESG 10대 과제 발표</li> <li>▶ 비전 공유 퍼포먼스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남형 ESG 실천 공동협약 체결</li> <li>▶ ESG 가치 필요성과 역할 제시</li> <li>▶ 46개 기관·단체(기관 15, 단체 31)</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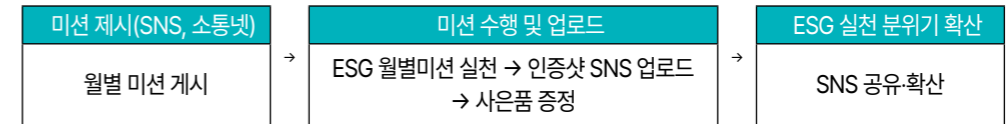
- 전략적 홍보활동 전개를 통한 ESG 가치 내재화(해남형ESG 시책사업)
  - ESG 가치와 실천의 전략적 홍보계획을 수립 및 교육 실시로 해남형 ESG 군민 참여

릴레이 캠페인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ESG 내재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남형 ESG 릴레이</li> <li>▶ 탄소중립 실천 릴레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순환 교육 등 (아파트 대표회, 사회단체, 학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SG 이해와 대응전략 수립 교육</li> </ul>
		

- 캠페인 송을 제작·배포하고, 캠페인 광고를 통해 ESG 가치를 군민에게 알리고, 해남형 ESG 로고 제작 등을 병행하여 ESG 실천 동참 유도

		
ESG 캠페인 송	ESG 캠페인 광고	해남형 ESG 로고 제작

하나, 해남형 ESG 월별 미션 챌린지



 <p>4월미션(일회용품줄이기)</p>	 <p>5월 미션(걷기DAY)</p>	 <p>6월 미션(칭찬합시다)</p>
--	---	---

둘, 해남형 ESG Action Day 릴레이 챌린지

<p>미션 제시(SNS, 소통넷)</p> <p>ESG 참여 미션 제시 (2개월마다 변경)</p>	<p>미션 수행 및 업로드</p> <p>ESG 실천·다짐 Action → 인증샷 SNS 업로드 → 다음대상자 2명 지목 → 릴레이 확산</p>	<p>ESG 실천 분위기 확산</p> <p>SNS 공유 확산</p>
---	---	---------------------------------------

<p>첫 번째(용기내서 용기내요)</p>	<p>두 번째(꾸우욱 눌러 눌러)</p>	<p>세 번째(나의 애쓰지 뽐내기)</p>
------------------------	------------------------	-------------------------

셋, 「당신과 함께라면 말이야」 릴레이 캠페인

<p>SEEP 1</p> <p>#당신 덕분에!</p> <p>ESG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본인, 상대방에게 한마디</p> <p>2023. 3. ~ 4.</p> <p>#당신 덕분에</p>	<p>SEEP 2</p> <p>#당신 이라면?</p> <p>ESG 실현을 위한 당신의 생각(아이디어)한마디</p> <p>2023. 5. ~ 6.</p> <p>#당신 이라면</p>	<p>SEEP 3</p> <p>#당신과 함께라면</p> <p>군민과의 소통 및 교육을 통한 ESG 실천 홍보</p> <p>2023. 7. ~ 8.</p> <p>#당신과 함께라면</p>
--	---	--

넷, ESG 사랑의 걷기 캠페인

○ 우리 주변의 소외이웃들에게 온기를 전하고 탄소저감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으로 해남형 ESG 실천을 확산



22개 기관단체 참여 / 5개 기관단체 기부(쌀 3,400KG)



○ E(이런) S(사회로) G(가자) / 해남형ESG 실천다짐, 플로깅, 기부행사 등 민·관협력 캠페인

다섯, 주민참여형 해남형 ESG 실천 공모사업

○ ESG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군민의 구체적 실천사업을 지원하여 해남형 ESG 활성화 [23년] ㉠ 쓰레기 섬을 꽃밭으로! 황산 들녘에 부는 새로운 바람 꽃 ㉡ 해남 가치를 덧입다



경관작물 식재      자원순환 작품 전시회      생태환경 기획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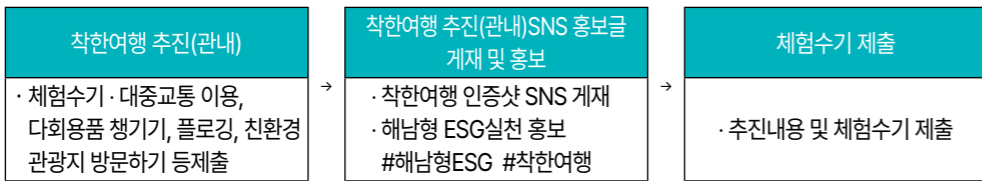
24년] ① 못난이 농산물로 만드는 천연비누와 음료 ② 해남 청년들이 꿈꾸는 활력넘치는 ESG  
 ③ 해공 플라스틱 방앗간



공모 선정 단체 협약식(해남공업고등학교, 해남청년연합회, 초효)



여섯, 해남형ESG 친환경 착한여행 체험수기 공모전



□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전환, 해남군 지속가능발전 체계 구축

- (지속가능발전 실천 다짐식) 해남형ESG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의 필요성
- (인식도 설문조사) 1,000명 대상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기초자료가 되는 설문조사 추진
- (민·관 협업 TF 구성)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 대신 전문가·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 협업 TF팀을 구성함 \* TF팀: 기획실 3, 전문가 4
- (주민참여단 100명 위촉)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비전, 세부목표, 지표를 도출하는데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속의공론의장을 마련함, 연간 3회 주민참여단 워크숍 활동 추진



○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해남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



□ 해남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2024-2045) 수립

- (TF 업무협의) 매월 1~2회 TF팀 회의를 통해 기본전략 수립안 작성하여 62개 세부목표와 151개 정책과제, 해남군 미래 지속가능성을 대표할 수 있는 62개 지표 도출
- (부서별 컨설팅) 전문가-지표담당자 개별 컨설팅을 통해 62개의 지속가능발전지표, 산출방식, 20년단위 목표치 설정 논의
- (기본전략 심의·의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기회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2045”심 의·의결 및 다양한 측면에서 해남군의 지속가능발전 방향 모색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

□ 추진방향

- 추진기반 공고화
  - 해남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 해남군 지속가능발전목표(H-SDGs)
  - 해남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2045
  - 해남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 평가관리

-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이행상황 점검
- 지속가능발전 62개 지표 평가
-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세부사업 평가
- 주요 중장기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지속가능발전 내재화

-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활성화, 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



[2년단위] 지속가능성 평가 [2025년] 해남형 SDGs 군민 인식확산 캠페인 활동

□ 지속가능성 평가 및 군민 인식확산 캠페인 활동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16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목표 달성 여부 등을 2년마다 점검하고, 추진계획의 실행 현황과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08

## 우수항 스토리

작성기관명 :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디지털 포용과 K-자원순환 : 파트너십을 통한 공공의 지속 가능한 발전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특구재단')은 디지털 ESG 자원순환 프로젝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특구재단')은 디지털 ESG 자원순환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의 디지털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학습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디지털 기기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아동을 돕기 위해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재생(Up-cycling) PC 지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자원순환과 ESG 경영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협력 기관으로는 중고 PC 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적 기업 (주)피플앤컴과 재활용사업공제조합법인 E-순환거버넌스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특구재단과 파트너십 참여기관을 통해 수집된 불용 전자제품을 재생하거나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PC, 노트북, 모니터 등 업무용 전산장비는 재생하여 디지털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초 교육을 지원하고, 그 밖에 전자제품은 재활용 전문 설비로 친환경적으로 재활용 된다. 이를 통해 현재

까지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2023년까지 총 2,886대의 불용 전자제품을 수거하고 235대의 사랑의 나눔PC를 기부했으며, 자원 재활용으로 온실가스 27,258kgCO<sub>2</sub>eq를 저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결혼 이민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도 함께 이루어졌다. 또한, 불용 장비를 재활용해 순환 자원을 생산하는 등 K-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참여기관들이 실질적인 SDGs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각 참여기관들은 매년 활동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인증서, 순환자원 생산 확인서, 사회공헌 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아 ESG 관련 기관경영평가 등에 활용하고 있다.

#### 2020년 7월부터 시작한 디지털 ESG 자원순환 프로젝트

2020년 7월부터 시작한 디지털 ESG 자원순환 프로젝트는, 특구재단을 포함하여 두 개의 기관의 파트너십으로 시작했다. 특구재단은 파트너십의 확대를 위해 지역 ESG네트워크와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 내 입주 기관-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하며 프로젝트 참여를 독려했고, 그 결과 2023년에는 총 13개 공공기관과 MOU를 체결하며 네트워크를 확장했다. 이와 함께, 특구재단은 협력 기관들 간의 정기 회의와 역할 분담을 통해 체계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며, 지속가능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협력의 기반을 다졌다.

나아가 이 프로젝트는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과 자원순환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며, 각종 ESG 네트워크와 협력해 장기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산장비의 권장 사용 연수를 고려할 때, 불용 장비는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꾸준히 운영될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과 공공기관의 협력으로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지원과 환경 보호를 실현하는 본 사례는 ESG 경영의 모범적인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 특구재단은 매년 ESG 경영 전략

특구재단은 매년 ESG 경영 전략에 따라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며, 참여기관과 함께 기부 행사를 개최해 성과공유를 통해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향후에는 공공기관 중심의 네트워크를 특구 내 민간 기업과 지역 사회 단체로 확대해 더 많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 08

## 디지털 포용과 K-자원순환 : 파트너십을 통한 공공의 지속 가능한 발전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020년 7월 ~ 현재

### 요약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디지털 ESG 자원순환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파트너십 기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연구개발특구 내 불용 전자제품을 수거하여 사회적 기업 (주)피플앤컴 및 E-순환거버넌스와 협력하여 재생PC로 재탄생시키고, 순환자원 생산 기여금을 적립하여 지역아동을 위해 기부함으로써 디지털 포용을 실현했습니다.

특히, 지역 ESG 네트워크를 통해 15개 기관과 기업이 MOU를 체결하며 협력 기관을 확장했고, 이를 바탕으로 K-SDGs 4번, 8번, 12번, 13번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총 2,886대의 불용 전자제품을 수거하여 235대의 재생PC 및 기여금 1,300만원 기부, 14,399kgCO<sub>2</sub>eq의 탄소 절감을 달성하며 환경적·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목적 / 배경

#### 1) 실천행동의 목적은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했는가?

##### 「디지털 포용을 위한 ESG 자원순환, 파트너십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하 '특구재단') 은 지역 사회에 지속 가능한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ESG 자원순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주요

활동 내용은 특구 내 다양한 기관과 기업들이 기증하는 불용 전자제품을 재생 (Up-cyclign) 및 재활용 (Re-cycling) 함으로써, 디지털 취약계층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환경 보호와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코로나 19 로 인해 비대면 학습환경이 중요해진 시점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아 기초 교육지원이 어려웠던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 (주)피플앤컴과 환경공제조합 E-순환거버넌스가 협력하여, 재생 PC 제작과 친환경 순환자원 생산을 통해 디지털 격차 해소와 탄소 절감에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단순한 장비 기부를 넘어 지역 사회와 순환경제를 연결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구재단은 앞으로도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확장을 통해 미래 인적·환경적 자원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2) 어떤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했는가?

#####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디지털 격차 해결과 특구 자원순환 체계 일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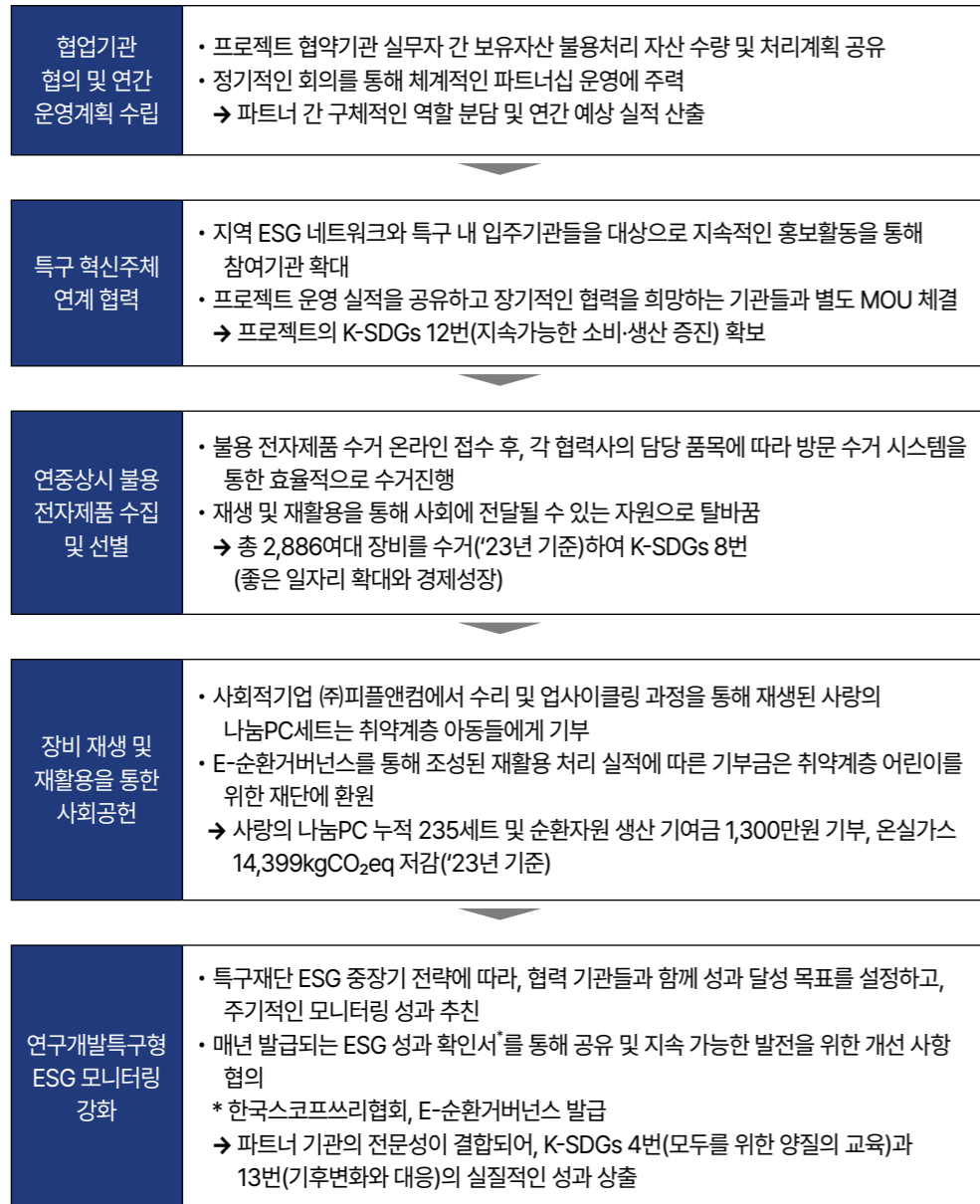
프로젝트가 기획될 당시,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취약계층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복지시설을 통해 부족한 기초 교육을 해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센터의 제한된 자원과 노후화된 장비로 인해 충분한 교육 환경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PC 등 디지털 기기 구매가 어려운 상황에서 디지털 학습 격차가 심화되었습니다.

특구재단은 아이들을 돕기 위해 다수의 특구입주기관 불용자산 처리현황을 파악했고, 불용자산 중 재생 및 재활용이 용이한 전자제품에 집중하였습니다. 연구개발 및 기술 사업화의 거점인 특구의 입주기관에서는 매년 업무용 노후 전자제품들이 발생하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용이 승인된 전자제품은 처리 및 관리 체계의 부재로 인해 창고에 방치되거나 폐기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자원 낭비와 탄소 배출을 증가시켜 환경 문제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환경 구현을 위해 특구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자원순환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특구재단은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의 지역 거점기관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ESG 자원순환 파트너십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2020년 7월 프로젝트 착수 이후, 특구 내 기관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어, 지역 사회와 환경을 연결하는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모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 내용

### 1) 추진과정



### 2) 추진방법

### [1 단계] 비대면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계층 돌봄 현장에 가다

특구재단에서는 지역사회 내 디지털 취약계층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보화 전문 인력을 파견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전산장비를 무상으로 점검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아동센터 내 사용 PC는 사무용, 아동교육용 2가지로 나뉘었으며, 대부분 기관 또는 기업에서 기증받은 오래된 연식의 장비들이었습니다. PC 최적화 및 미사용 SW 삭제 등을 통해 사용속도를 개선하고, 프린터 연결, 하드웨어 노후 점검 등을 수행하고, 기본적인 PC 관리법 등을 안내했습니다. 또한 아동센터원장님의 요청에 따라 아이들이 교육용 PC를 유해콘텐츠를 접하지 않도록 무료 필터링 시스템을 설치 지원했습니다.



[그림 1] 대덕특구 내 취약계층 지역아동센터 전산장비 점검지원 활동사진

### [2 단계] 연구개발특구, ESG 네트워크의 소통과 협업으로 탄생한 지속가능발전 연대

연구개발특구는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5개 연구개발특구와 지역거점의 소규모 강소특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구의 입주기관·기업 대상 불용 전산장비 온라인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통해 뜻을 함께하는 참여기관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2020년 첫 시작 당시에는 단 2개 기관에 불과했지만 2021년 총 6개 기관, 2023년 총 13개 기관 \*이 MOU를 맺어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 국립생태원, 기초과학연구원,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대전상공회의소,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연구재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러한 파트너십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회공헌에 뜻이 있으며 동시에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발굴하는 것이 프로젝트 기획당시에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재생 PC를 전문적으로 생산 사회적기업 (주)피플앤컴이 2020년부터, 친환경 자원 재활용 설비와 R&D를 추진하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인 E-순환거버넌스가 2023년부터 프로젝트의 공동추진자로 함께하고 있

습니다. 이로써 프로젝트는 지역현안과 미래 지속가능한 환경발전 문화에 함께 할 수 있는 든든한 협력관계를 완성하였습니다.

**[3 단계] 디지털 ESG 자원순환 프로젝트 참여 기관 및 기업의 지속적 확대**

불용 전산장비 수거 편의성과 신청내역의 효율적인 관리, 그리고 친환경적인 홍보를 위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로 신청을 받은 뒤 무상방문수거 진행하였습니다.

때로는 담당 기업과 기부처의 일정 조율이 어려울 경우에는 주관기관인 특구재단에서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수거를 다녀왔습니다. 프로젝트 실시 첫 해까지는 소량으로 장비를 배출하는 기관들이 대부분이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프로젝트가 자연스럽게 입소문을 타며 지역 내 홍보가 되었고, 그렇게 모인 소중한 마음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2,886여대의 장비를 수거하였습니다.

**[4 단계] 전문인력과 장비를 통한 디지털 자원의 재생 및 재활용**

수거된 장비 중 중고 PC는 사회적 기업 (주)피플엔컴 본사에서 주요 제품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메모리 등 일부 소모성 부품들을 교체한 뒤에 사랑의 나눔 PC로 재탄생 됩니다. 수거 PC의 상태에 따라 재생률이 달라지지만 급격히 많은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 PC는 대전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2020년), (사)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대전광역시협의회 (2021~23년)를 통해 관할 지역아동센터에 전달되어 아동센터 내 아이들의 학습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재생대상 품목인 PC, 노트북, 모니터를 제외한 나머지 전자제품들은 E-순환거버넌스로 인계됩니다. 이어서 전문설비를 통해 전자제품의 최소 부품 단위까지 분류를 마치게 되면, 소재에 따라 재생원료로 생산되어 제조사에 다시 전달됩니다. 재생원료가 되지 못한 소재들 또한 최대 95%까지 친환경적인 재활용이 가능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경제 시스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에 활동한 MOU 기관의 자원순환 생산기여 성과금 전체를 취약계층 어린이를 위한 재단에 기부하

여 환경을 넘어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5 단계] 연구개발특구가 앞장서 실행하는 ESG 순환경제 모니터링 강화**

특구재단은 매년 ESG 업무 추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디지털 ESG 자원순환 프로젝트 및 특구기업에 대한 ESG 지원 신규 사업 등 활동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해당 성과는 특구재단의 ESG 경영실무 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개선되며, 이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사회 트렌드에 맞춰 전사적으로 대처해나갈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공동추진자의 경우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제품의 생산 및 소비 이후에 폐기되지 않고, 재사용 및 재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주)피플엔컴은 기증된 PC에 대한 평생 수리 및 사후관리를 약속하고, E-순환거버넌스는 지자체와 협력한 무상방문수거 사업 운영 및 전기전자제품 회수·재활용 관련 R&D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경제 시스템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3) 주요 특징**

**‘디지털 포용을 위한 ESG 자원순환, 파트너십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코로나 19 팬데믹은 종료되었지만 그로 인한 여파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오히려 우리 사회의 취약한 부분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특구재단은 취약계층의 디지털 포용력 확대와 환경 보호의 추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책임 실천을 앞으로도 지속할 것입니다.

디지털 ESG 자원순환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역 네트워크 협력의 강화입니다. 특구재단은 특구 내 입주기관·기업들과의 지역사회와 공헌을 바탕으로 강력한 협력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력을 통한 환경보호와 공공 ESG 활동의 선한 영향력 극대화를 위해 협력기관 모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 수요자의 의견을 가장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구재단은 프로젝트 기획 당시부터 아동센터에서의 방문과 점검을 통해 디지털 교육기반의 취약함을 마주함으로써 실무자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지역에 봉사하고자 하는 의지를 일깨웠습니다. 또한 매년 진행하는 기부행사에서 사회복지현장의 실무자로부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환경 보호를 자원 순환체계 확보입니다. 불용 전자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치로 재탄생된 사랑의 나눔 PC와 재생원료는 우리 사회의 취약한 부분을 포용하고 탄소배출을 줄여 환경을 보호합니다



#### 4) 거버넌스 참여 기관과 역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여 매년 '디지털 ESG 자원순환' 관련 고도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합니다. 프로젝트 추진기간 동안 기증신청 물품의 방문수거 전체 스케줄링, 프로젝

트 MOU 및 협약기관 실무자 회의 주관, 프로젝트 홍보, 연말 기부행사를 추진합니다.

[사회적 기업 (주)피플앤컴]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하는 행복' 이라는 경영이념 아래 활동하고 있는 (주)피플앤컴은 결혼이민자 채용을 통한 중고컴퓨터 재생 및 판매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외에도 취약계층 대상 재생 PC 기증,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E-순환거버넌스] 환경부의 인가를 받아 재활용 의무 생산자의 자원순환 의무이행 지원부터 일반 국민을 위한 찾아가는 전자제품 배출수거 서비스, 환경보호를 위한 R&D를 수행하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법인입니다. 무엇보다 자체적인 자원순환 특허기술을 통해 제품에 따라 최대 95%까지 재활용율 확보가 가능하고, 전국적인 폐전자제품 수집소를 운영하여 접근성까지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 추진성과 및 파급효과

#### 1) K-SDGs 몇 번 목표 이행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K-SDGs 4번] 디지털 취약계층 아이들의 기초교육을 위한 장비 지원  
PC 등 물리적 장비 부족으로 디지털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의 보육센터에 직접 PC를 지급함으로써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포용력을 향상 시켰습니다.

[K-SDGs 8번]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적 삶의 질 향상  
사회적 기업 (주)피플앤컴은 중고컴퓨터 부품교체 및 재조립을 통한 재생 공정으로 결혼 이민자의 일자리 창출과 그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다문화과정 우리말 교육을 진행하는 진정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K-SDGs 12번] 특구 입주기관·기업의 지속가능 경영활동 지원 및 폐기물 최소화 재활용 촉진  
사회적 기업 (주)피플앤컴과 E-순환거버넌스는 순환경제를 통한 ESG 경영지원 및 국가 재활용 목표량 실적달성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 및 공제조합입니다. 전국의 재활용 업체와 연계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소재별 재활용 및 재자원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본 프로젝트의 공동참여자로서 최선을 다해 특구재단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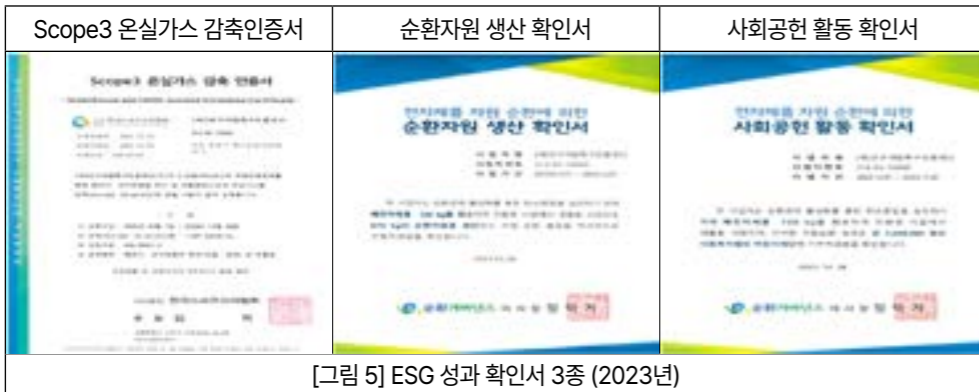
**[K-SDGs 13 번]** 디지털 ESG 자원순환 기 참여기관 모니터링을 통한 체계적 관리

본 프로젝트는 물품을 기증한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연말 기부행사에 초청하여 해당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합니다. 또한 특구재단의 ESG 경영 전략에 따라 다양한 ESG 네트워크에 프로젝트의 성과를 공유하여 매년 기부참여 기관·기업의 수를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2) 사례의 파급력 ( 다른 기관이나 지역 등의 활동에 영향을 미쳤는가 ? )**

디지털 ESG 자원순환 프로젝트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주도하여 시작되었으며, 이 프로젝트는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기업들 간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성장해왔습니다. 불용 전자제품의 재생 및 재활용 과정에 여러 기관들이 참여함으로써, 디지털 취약계층 포용 및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ESG 프로젝트들이 기획되고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국스코프쓰리협회, E- 순환거버넌스에서 발급하는 ESG 성과 인증서는 기관 평가 시 증빙자료로 인정되어 국가적 ESG 경영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평가 ( 애로사항 , 과제 포함 )**

**1) 사례 전반에 관한 평가**

이 프로젝트는 사업의 공공성과 타 기관·기업이 제약 없는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 경영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 촉진 및 폐기물 최소화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만 그만큼 이 프로젝트가 기관·기업의 ESG 경영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디지털 역량이 필수인 현대에 취약계층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 등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2) 사례의 지속성 평가 ( 당해연도에 국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례인가 ? )**

디지털 ESG 자원순환 프로젝트는 공공성의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기관들의 지속경영추진 활성화과 교류·협력을 촉진합니다. 매년 증가하는 정량적인 성과와 지속적인 대외 행사를 언론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차년도에는 공동추진자, MOU 실무자들과 함께 대규모 ESG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핵심 항목인 전산장비는 각자의 권장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본 프로젝트를 위한 자원은 끊임없이 지역사회로부터 공급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수집된 장비 중 PC 및 노트북은 약간의 소모성 부품을 교체하면 무난하게 구동할 수 있는 장비로 재생 가능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ESG 자원순환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의 모든 폐기물이 재생·재활용되고, 모든 디지털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 09 우수항 스토리

작성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지속가능(SDGs)한 우리동네 Youth-Up 강원 청소년 성장망·안전망



### 강원특별자치도의 청소년인구 감소율

강원특별자치도의 청소년인구 감소율과 코로나-19 이후에 위축되고 있는 상황은 청소년활동 분야에 위험요소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학습과 성장이라는 발달과업을 달성해야 하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강원 지역의 청소년인구 감소율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센터는 2008년부터 시작한 지역 방문 현황 데이터 및 2024년까지 우리동네 Youth-Up 기획사업에 동참한 학교,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 수련시설 등 도 내 18개 시군에 구축되어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망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강원 지역 청소년의 문화 소외 현상을 해결하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동네 Youth-Up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망 구축을 시작했다.

또한, 2019년 고성-속초 산불 및 청소년활동 안전 부주위 사고, 근로 부당 처우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들

의 안전한 활동 및 근로 참여가 위협받고 있다.

이에 2015년에 개소한 청소년 안전센터와 근로보호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자신의 노동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의 시설들과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되도록 힘쓰기 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시작했다.



2008년부터 강원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직원 지역담당제를 통한 기관방문으로 지역담당자 중심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 및 인적자원 관리, 수련시설 및 인증 프로그램 보유 기관 또는 개발 예정 기관, 신고제 운영 기관 등 시설과 기관의 현장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가족부 정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지식 습득을 지원하였고, 영동 지역담당을 중심으로 기관별 사업 공유를 통해 공동협력사업 운영 협의, 코로나-19 관련 기관별 대응상황 공유 및 방역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였다.

우리동네 Youth-Up 맞춤형 사업(2018~2020)은 지역담당제의 담당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 세미나를 운영하여 지역 내 청소년수련시설 담당자들과 지자체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간담회 운영을 통한 소통 및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 우리동네 Youth-Up 기획사업

우리동네 Youth-Up 기획사업(2021~2023)은 청소년수련시설 뿐만 아니라 학교,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였고, 이를 통해서 네트워크 참여기관을 확장하는 기회가 되었다. 우리동네 Youth-Up 기획사업은 SDGs 목표 6, 13번을 주제로 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여 명의 청소년들이 기후위기 및 환경에 대해서 체험하고 동참하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강원 청소년 성장 네트워크 사업(2023~2024)은 지속가능한 강원 청소년 성장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 유관기관 등과 형성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내 13개 지역, 18개 네트워크 사업을 운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23년도에 진행한 지속가능한 청소년 성장 네트워크는 청소년 관련 축제와 행사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개발활동에 기여함으로써 청소년이 지역 사회 발전의 중심에서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러한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하는 센터의 네트워크 형성 과정을 통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문화의 집 및 수련관) 52개, 자연권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텔 및 수련원 등) 17개와 유기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학교 및 방과후 아카데미, 지자체, 환경기관, 행정복지센터, 상담복지센터 등 다양한 지역의 기관들과 구축된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연계 및 상호교류 등의 협력 사업 운영이 용이하게 되었고 교육청, 학교, 언론기관, 도의회 등 다양한 운영위원 구성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계 체계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내 청소년 활동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SDGs 17개 목표를 반영한 모니터링 지표 개발로 청소년수련시설과 학교 및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청소년 삶의 지속가능성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에 함께 동참하고 기여하고자 한다.



# 09

## 지속가능(SDGs)한 우리동네 Youth-Up 강원 청소년 성장망·안전망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08년~2024년 현재

### 요약

- ▶ 지속가능한(SDGs)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망
  - 지역 내 여러 청소년 기관, 단체, 시설들과의 협력을 통한 18개 시군 성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청소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공동 협력사업 운영 및 지원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모니터링 지표 개발 및 조사 지원
- ▶ 지속가능한(SDGs)한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 청소년활동 안전 관리를 위한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안전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활동 안전지원 체계 구축을 지원하며 청소년 안전 네트워크 지원, 청소년활동안전 신속 대응 체계 구축, 청소년활동 안전 인력풀 구축을 통하여 안전한 청소년활동 환경 조성
  -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운영 및 청소년 청소년 근로실태 조사 통하여 지속가능한 청소년근로 활성화 및 청소년 근로보호 방안 수립

### 목적/배경

#### 1) 실천행동의 목적은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했는가?

우리사회는 2000년대 이후 초저출산국가에 진입하였으며, 이로 인한 청소년 인구 규모가 급감

추세에 있다. 그 중 전체 인구 대비 청소년의 비중 감소 : (1980년) 36.8% → (2022년) 15.8%로 총 인구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 감소하여 '60년에는 청소년 비중이 10% 정도에 (10.7%) 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 비율은 전국 대비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19 이후 교육정책 변화와 같은 주요 이슈에 의한 지역 이탈 등으로 연간 8,000명 이상의 청소년 인구수가 감소함에 따라 지역소멸과 지속가능발전 저해에 심각한 가속화가 진행 중에 있다.



전국				강원특별자치도			
연도	전체	청소년	청소년 인구율	연도	전체	청소년	청소년 인구율
2014년	51,327,916	9,913,573	19.31%	2014년	1,544,442	294,505	19.07%
2015년	51,529,338	9,724,335	18.87%	2015년	1,549,507	289,075	18.66%
2016년	51,696,216	9,518,017	18.41%	2016년	1,550,806	281,101	18.13%
2017년	51,778,544	9,259,710	17.88%	2017년	1,550,142	271,893	17.54%
2018년	51,826,059	8,994,306	17.35%	2018년	1,543,052	261,453	16.94%
2019년	51,849,861	8,752,472	16.88%	2019년	1,541,502	252,822	16.40%
2020년	51,829,023	8,519,486	16.44%	2020년	1,542,840	244,077	15.82%
2021년	51,638,809	8,320,687	16.11%	2021년	1,538,492	236,335	15.36%
2022년	51,439,038	8,086,842	15.72%	2022년	1,536,498	228,206	14.85%
2023년	51,325,329	7,887,125	15.37%	2023년	1,527,807	219,802	14.39%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저출산이 심각하고, 가정이 다양화되면서 주변에서 쉽게 돌봄이 어려운 한부모 가정과 조손 가정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지역사회는 서로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 되었다. 개인주의화, 물질만능주의화가 되어가면서 소외된 이웃들이 더욱 음지로 들어가게 되는 현실은 역설적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가 더욱 필요해졌다. 이런 현실 앞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지역 내 여러 청소년

기관, 단체, 시설들과의 협력을 통한 18개 시군 성장 네트워크와 안전망을 운영하여 같이 성장하는 계기가 필요하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SDGs 달성을 위한 중장기 사업 비전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망과 청소년 안전망 운영에 초점을 두어 '청소년이 소외되지 않는' 파트너십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으로 K-SDGs 17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2) 어떤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했는가?

### (1)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망 구축

강원특별자치도의 청소년인구 감소율과 코로나-19 이후에 위축되고 있는 청소년활동분야는 청소년기의 학습과 성장이라는 발달과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센터는 2008년부터 시작한 지역 방문 현황 데이터 및 2024년까지 우리동네 Youth-Up 기획사업에 동참한 학교,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 수련시설 등 도 내 18개 시군에 구축되어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망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강원 지역 청소년의 문화 소외 현상을 해결하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망을 구축을 시작한다.

### (2)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강화

2019년 고성-속초 산불 및 청소년활동 안전 부주위 사고, 근로 부당 처우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안전한 활동 및 근로 참여가 위협받고 있다.

이에 2015년에 개소한 청소년 안전센터와 근로보호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자신의 노동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의 시설들과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되도록 힘쓰기 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시작한다.

## 내용

### 1) 추진과정

년도	2008년 ~ 2017년	2018년 ~ 2020년	2020년 ~ 2022년	2023~2024년
목표	<청소년활동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 인식>	<청소년활동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 강화>	<청소년활동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 확장>	<지역 중심 청소년활동 활성화 융합모델 구축>
중점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센터-청소년기관 간 연계망 형성의 필요성 확산</li> <li>■ 지역관리 운영 활성화(지역담당제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센터-지역청소년기관 및 지자체간 연계망 형성의 필요성 강화(시범운영-지자체와 간담회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센터-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확장(학교,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행정복지센터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기관 중심의 지역자원연계망 개발·운영을 통한 협력 사업 운영 활성화(18개 시군)</li> <li>■ 강원 청소년 성장 네트워크 협력 융합모델 시범운영(5개 시군)</li> </ul>
환류	지역 연계망 필요성 확산	지역자원 연계 필요성 강화	지역자원 연계 협력기관 확장	지역 청소년 기관 중심 융합모델 구축

### 2) 추진방법

- 네트워크 파트너의 일원이 되어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통해 책임이 커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및 지역주민을 포함한 각 행위 주체들의 참여와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자발적이며 수평적으로 형성되는 상호협력에 바탕을 둔 협력적 거버넌스 방식 이 필요하다. 특히 결정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 상호협력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책임을 지는 거버넌스 형태가 필요하다.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청소년성장 관련 기관 및 시설, 민간단체를 포함하여 주체들이 정책의 수립과 결정 (서순탁 외, 2005) 이 필요하다." 고 볼 수 있다.
- 이를 위해 담당지역 내 청소년활동 활성화의 중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지역자원 연계 전략 및 행동지침 (기관방문 F4) 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개별 기관방문 실시
- 담당지역의 청소년활동 활성화의 중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사회 상호협력 사업연계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별 간담회를 운영한다.

- 담당지역 내 청소년들의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의 요구가 반영된 지역별 협력 활동을 개발·운영·지원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지역 내 자원들과의 기관방문 단계를 통해 형성된 관계 정도에 따라서 운영의 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우리동네 Youth-Up 맞춤형 협력사업, 지역중심 지자체와 함께하는 간담회, 우리동네 Youth-Up 기획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 성장 네트워크 등의 사업에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자 대회", "우수사례 공모전" 등에 참여를 통하여 학교, 공공기관 등 청소년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 한다.
- 지역의 특성에 맞는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지원 및 경영관리 컨설팅을 운영하고 지역의 요구가 있을 경우 물품 및 강사지원 또는 업무 담당자를 파견한다. 요구의 대상은 청소년 및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에 한한다.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SDGs 모니터링 지표 개발 및 조사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수련시설과 학교 및 청소년관련 유관기관의 지속가능발전 참여를 지원한다.



### 3) 주요 특징

- (1)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활권 수련시설 ( 문화의 집 및 수련관 ) 52 개, 자연권 수련시설 ( 유스호스텔 및 수련원 등 ) 17 개와 유기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또한 학교 및 방과후 아카데미, 지자체, 환경기관, 상담복지 등 다양한 지역의 기관들과 구축된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연계 및 상호교류 등 사업 운영이 용이
- (2) 교육청, 학교, 언론기관, 도의회 등 다양한 운영위원구성을 통한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계 체계가 마련
- (3) 지역 맞춤형 교육 및 다양한 유관기관을 포함한 강사양성과정 및 인력 pool 구성 등을 통해 시·군 단위의 자원연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

(4) ( 재 ) 한국천주교살레시오수녀회는 전국적으로 법인 산하 청소년관련 기관들을 다수 운영 중. 이들 기관과의 긴밀한 연계 및 협력관계를 통하여 전문성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와 효과성 높은 사업 운영이 가능함.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 네트워크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망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 15년 간 축적된 지역 방문 현황 데이터 활용 - 우리동네 Youth-Up 사업으로 확대된 학교, 유관기관, 청소년 수련시설들과 네트워크 활성화로 청소년 활동 성장 도모 - 수련시설 중추인 팀장급의 실무자 중심의 변화하는 청소년 문제를 나누고, 공통의 주제로 활동에 접목한다 - 교과과정 개편, 코로나 등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청소년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교육 및 대상자 확대 실시	- 안전센터의 시설, 안전, 기관 운영 전반의 컨설팅으로 청소년 활동의 안전성 확보 - 근로보호 센터의 기능으로 청소년의 근로 권리를 확보하고, 지역의 시설들이 협력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기후변화 대응 : 센터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업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성으로 대처하여 도내의 수련시설들이 공동의 행동으로 지구 살리기 적극 대응
⇔	
↓	
<b>지속가능한 청소년 성장 네트워크 융합 모델 확대</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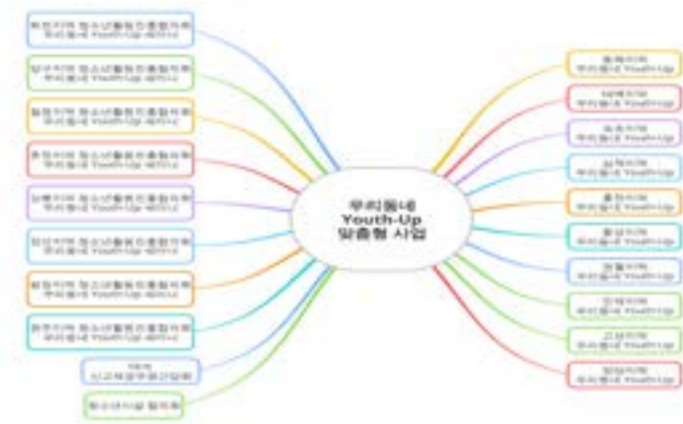
### 추진성과 및 파급효과

파급력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망 지역 내 여러 청소년 기관, 단체, 시설들과의 협력을 통한 18개 시군 성장망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청소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청소년활동 안전 관리를 위한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안전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활동 안전지원 체계 구축 마련
---------	---	--

#### 1) K-SDGs 몇 번 목표 이행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① 우리동네 Youth-up 맞춤형 사업 (2018~2020)- 네트워크 강화



② '우리동네 Youth-Up 맞춤형 사업' - 지자체와 함께 교육, 세미나 운영

- 지역담당제의 담당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 세미나를 운영하여 지역 내 청소년수련시설 담당자들과 지자체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간담회 운영을 통한 소통 및 파트너십 구축
- 지역담당자 중심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 및 인적자원 관리, 수련시설 및 인증 프로그램 보유 기관 또는 개발 예정 기관, 신고제 운영 기관 등 시설과 기관의 현장에 맞는 교육을 지원하여 여성가족부 정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지식 습득 지원
- 영동 지역담당을 중심으로 기관별 사업 공유를 통해 공동협력사업 운영 협의, 코로나-19 관련 기관별 대응상황 공유 및 방역관리 체계 구축, 지원
- 2018년 : 12 개 기관, 7 개 지자체 청소년지도자 및 공무원 57 명 참가
- 2019년 : 11 개 기관, 4 개 지자체 청소년지도자 및 공무원 29 명 참가

- 2020년 : 22 개 기관 , 59 명 참가

㉔ 우리동네 Youth-up 기획사업 (2021~2023)- 네트워크 참여기관 확



<SDGs 세부목표 1.5, 6.6 이행 >

- 딱끈따끈 연타나눔 \_ 핫데이 -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기관 연계
  - 2023.11.06.~ 2023.12.16. 10 개 기관 청소년 및 지도자 292 명 참가
- 그린 온 ( 漚 ), 기부 온 (ON)- '행가래' 어플 활용 기부 진행 ( 비영리 단체 )
  - 2023 년 6 개 기관 103 명 참여 , 2024 년 6 개 학교 / 기관 142 명 참여
  - '유스x소셜 에코브이' - 환경 주제의 사회적 경제와 봉사, 진로영역 교육프로그램
    - 2022 년 10 개 학교 835 명 , 2023 년 15 개 학교 916 명 , 10 개 학교 1,180 명이 참가
- 던지공 ! 줌공 ! 정화하공 !-EM 공을 만들어 지역하천 정화 , 하천 플로깅 활동
  - 2024.05.06.~06.19. 29 개 기관 청소년 및 지도자 1,409 명 참여
- 하천탐사대 - 원주천 ( 원주 ), 공지천 ( 춘천 ), 남대천 ( 강릉 )
  - 2024.07.31.~09.05. 도 내 5 개 기관 참여

<SDGs 세부목표 13.3 이행 >

- 감사愛봄 , 지구愛봄 - 양말목카네이션을 직접 만들어 전달하는 프로그램
  - 2023.05.01.~ 2023.05.31. 진행 / 도 내 24 개 기관 청소년 및 지도자 1,186 명 참여
- 플라스틱을 < 새로고침 !>- 플라스틱 리사이클 과정 체험
  - 2023.07.01.~ 2023.08.26. 진행 / 도 내 4 개 청소년 및 지도자 149 명 참여
- 기후강사 양성과정을 통한 기후위기 인식 제고 및 탄소중립 실천 확산 기여

<SDGs 세부목표 14.1, 16 이행 >

- 온 (on) 지구챌린지 \_ 우리는 기후시민입니다 .- '포레스텝' 어플을 이용 걷기 활동진행 .
  - 2023.04.01.~05.17. 진행 / 도 내 15 개 학교 / 기관 청소년 및 지도자 483 명 참여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모니터링 지표 개발 및 조사 지원
  - 원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 함께 지속가능발전 지원을 위한 모니터링 지표 개발 및 참여 기관 확장 예정

㉔ 강원 청소년 성장 네트워크 운영 (2023~2024)- 네트워크 협력 · 융합

<SDGs 세부목표 17.17 이행 >

○ 2023 년 지역별 청소년 성장 네트워크 운영



- 23 년 3 월 ~4 월 , 6 월 네트워크 참가기관 모집 , 4 월 ~12 월 지역별 네트워크 사업 운영
- 2008 년부터 실시한 지역담당제를 통해 형성된 수련시설과의 파트너십과 우리동네 Youth-Up 맞춤형 사업 , 우리동네 Youth-Up 기획 사업을 통해서 형성된 학교 , 복지관 , 청소년 관련 유관 기관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별 협력 사업 운영으로 지속가능발전 파트너십 증진
- 2024 년 융합형 청소년 성장 네트워크 운영
  - 지역 청소년기관 중심의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융합모델 시범 운영
  - 운영 현황

번호	지역	기관명	네트워크명	내용
1	원주	문막 청소년문화의집	문막 청소년 안전한 성장 네트워크 : 안전한 날개	- 지역의 안전 관련 특성 분석 및 안전전문조사로 문제해결과 예방을 통해 안전한 문막 만들기(안전위원회 구성 및 회의, 안전, 건강교육, 안전체험관 견학, 안전캠페인 활동, 평가회 등)
2	원주	원주시 청소년수련관	지우개(지속가능한 우리를 위한 환경개선활동)	- 환경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 에코장터 및 캠페인 활동을 통한 친환경적 소비와 가치관 확립
3	정선	임계 청소년문화의집	애플로깅	- 청소년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걷기 챌린지와 플로깅 활동
4	삼척	삼척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건강 먹거리 개발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결과 청소년들이 요리, 나들이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를 반영하여, 지역에서 수확하는 작물들을 이용한 청소년 건강 먹거리 개발
5	동해	동해시 청소년수련관	금쪽이의 '새활용'	- 커피찌꺼기(커피박)를 청소년이 직접 수거하고, 청소년환경교육과 커피박을 활용한 새활용품 제작을 통해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평가(애로사항, 과제 포함)

1) 사례 전반에 관한 평가

- (1) 지속가능발전 인식개선을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주제의 기획사업 운영 확대
  - 23, 24 년은 기후행동 대응에 관한 포괄적이고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었으나 보다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속적인 심화 과정 운영이 필요함
  - 2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다양한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주제들을 설정하여 기획사업을 확대 운영하고자 함
- (2)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실천과제 운영
  - 기후위기에 대한 도 내 청소년수련시설의 공동과제 운영하여 지속적인 기후위기 인식 확대 강화 및 센터 미션 (지속가능 (sdgs) 한 청소년활동, 강원을 물들이다) 실천 체계화

2) 사례의 지속성 평가(당해연도에 국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례인가?)

- (1) 센터 미션 (지속가능 (SDGs) 한 청소년활동, 강원을 물들이다) 실천에 대한 평가 환류를 통해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매년 중장기 목표 Rolling 시 지속가능 발전 지원을 위한 사업 반영으로 지속적인 운영 사례 유지





1



2

1. 우리동네 Youth-Up 세미나 운영  
2. 우리동네 Youth-Up 세미나 운영



3



4

3. 강원 청소년 성장 네트워크(영월)  
4. 우리동네 Youth-up '그린은, 기부은' 기부



5



6

5. 우리동네 Youth-up '하천탐시대'  
6. 근로실태 조사 발표



7



8

7. 강원 청소년 성장 네트워크(정선)  
8. 강원청소년지도자대회



9

9. 안전교육(대한적십자사)

# 10 우수항 스토리

작성기관명 : 화성시지속가능발전 협의회

## 화성시 시티투어로 모두가 참여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무장애관광을 실현하다



###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화성지속협)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정여행으로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지속가능한 삶, 지속가능한 여행이라는 슬로건으로, 다채로운 체험이 가능한 마을에서 일상을 경험하고 가치를 발견하여 지속가능한 여행의 지도를 그리고 있는 화성시 시티투어 착한여행 '하루'는 경제적으로 여행경비 99%가 현지 주민에게 환원되는 여행, 사회적으로 지역문화를 존중하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관계를 맺는 여행, 환경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 자제와 자연과 생태계보호를 실천하는 지속가능한 공정여행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화성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화성시 시티투어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무장애 관광인 '모두 여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여행을 진행하기까지 여정을 소개하겠습니다.

2018년 전동휠체어 탑승객이 시티투어를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여 2019년 장애인단체, 행정, 화성지속협 실무자가 모여 간담회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코스 개발과 관광지 편의시설 검토 그리고 리프트 버스 도입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단체와 행정, 실무자, 시티투어 안내자가 모여 관광지 답사 및 팸투어를 진행하였습니다. 답사를 통해 10cm의 턱에도 전동휠체어가 뒤로 넘어질 수 있어 경사

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장애인 화장실 여담이문은 전동휠체어 장애인이 사용하기 어려우며 버튼 위치도 높게 달려있어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확인하고, 기준에 맞추어 부분 보수 및 자동미닫이문으로 개조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아르딴복지관(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 있는 다양한 장애인 11개 단체와 협의 회의를 통해 시티투어 관광지 현황을 공유하고, 열린 관광 코스 개발을 위해 전문성 및 맞춤형 서비스에 필요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로 '관광약자를 위한 화성시 시티투어 안내책자(관광지, 체험지편)'과 당시 코로나 시기로 여행을 못하는 장애인을 위해 '무장애관광 동영상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그 이후 2022년부터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모두여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여행'은 리프트버스를 임차하여 2022년 7회 131명, 2023년 12회 203명, 2024년 8월까지 8회 125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모두여행 앤 북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무장애 체험지인 꽃마루농원에서 두부만들기 체험과 전문성 장애인 작가와 함께 '전국 무장애 여행지 39'를 통해 장애인의 여행 시 갖추어야 할 준비물과 정보에 대해 나누고, 무장애 관광지 확대 방안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 화성지속협에서 모두여행

화성지속협에서 모두여행을 진행할 수 있었던 건 오랜 기간 구축한 체험지 네트워크로 지역관광 역량을 강화하였기 때문입니다. 2018년 체험지 네트워크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시티투어 비전 및 성과 공유, 지속가능한 관광 이해에 대한 강의, 체험지 현황공유, 의견 청취를 진행하여 매년 개선하였고, 코로나 시기인 2020년 '관광약자 편의시설 현황조사'를 79개 관광지와 체험지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조사항목은 장애인을 위한 안내요원, 안내데스크, 주차장, 출입구, 보행로, 체험장, 화장실, 산책로, 식당, 피난 관광시설 정비 총 10개 항목과 대상유형은 점자표시, 안내표시, 수화통역, 이용가능 4개 항목을 상중하로 표시하고, 그것을 통해 관내 체험지와 관광지의 실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의 노력과 관심을 통해 체험지인 꽃마루농원 장애인 화장실 설치, 미미림의 경사로를 설치한 것처럼 체험지에서 모두여행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관광지도 장애인 인식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초, 관내 아르딴복지관과 협약하여 화성시 리프트 버스와 사회적기업인 에이블투어 버스를 함께 시티투어에 사용하여 비용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시티투어는 모두가 참여하는 무장애 관광으로 K-SDGs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3 빈곤층,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강화] 이해관계자(장애인 단체, 체험지, 시티투어 안내자, 행정, 실무자) 네트워크와 인프라구축과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부분과 [12-10 지속가능한 관광 확대 통해 환경보전 기여] 지속가능한 관광 확대를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관광인 화성시 시티투어 이용객이 2007년부터 8만명 이상이 참여해서 지속가능한 관광을 이해하고 접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시티투어는 작지만 큰 발걸음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관광, 체험지 시설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장애인을 이해하는 체험지의 참여, 협력과 연대로 만들어가는 다양한 지원 방법으로 무장애 관광 인식을 개선하고 모두가 참여해서 만드는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장애인과 모두의 여행 권리가 향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 10

## 화성시 시티투어로 모두가 참여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무장애관광을 실현하다

**화성시지속가능발전 협의회**  
2020년 7월 ~ 현재

### 요약

화성시 시티투어는 지속가능한 도시, 삶, 여행을 주제로 지역 문화 존중, 일회용품 사용 자제 등을 실천하는 공정여행으로, 2007년 시작되어 2011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정여행으로 전환됨.

시티투어 질적 제고를 위한 체험지 네트워크 간담회와 장애인 단체와의 협력으로 취약계층의 관광 이용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①관광약자를 위한 물리적, 사회적 제약을 해소하는 관광 코스 개발 ②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이용 가능한 관광을 실현 ③취약계층인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 및 지원체계 개발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임

개발된 무장애 관광으로 장애인의 여행 권리가 향상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확산하고 있음

### 목적 / 배경

#### 1) 실천행동의 목적은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했는가?

화성시 시티투어는 지속가능한 도시, 지속가능한 삶, 지속가능한 여행이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체험이 가능한 마을에서 일상을 경험하고, 가치를 발견하며 지속가능한 화성의 관광을 그리고 있음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전 화성의제 21) 가 맡아 2007 년 시작된 화성시 시티투어는 2011 년 '착한여행 하루' 명칭으로 지방자치단체 최초 공정여행으로 전환했으며 ①경제적으로 참가비가 지

역주민에게 돌아가는 여행 ②사회적으로 지역 문화를 존중하고 사람과 관계를 맺는 여행 ③환경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자제와 자연 생태에 피해를 주지 않는 저탄소 여행 ④시티투어 참가가 곧 사회 환원이 되는 공정여행으로 진행하고 있음

#### 2) 어떤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했는가?

연간 약 250 회 (23 년 기준) 투어가 운영되는 화성시 시티투어는 15 개 읍면동, 64 개 체험지가 참여하고 있으며 협력 강화와 시티투어 질적 제고, 지역관광 역량 강화를 위해 체험지 네트워크 간담회를 2018 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음

2019 년 장애인 관광약자 투어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단체, 행정, 시티투어가 함께 간담회, 답사, 팸투어 시범 운영, 안내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으로 물리적, 사회적 제약을 해소하고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의 필요성이 제기됨

체험지 네트워크와 함께 2020 년 체험지 관광약자 편의시설 현황을 14 개 항목으로 조사한 결과를 포함해서 관광약자 모두의 관광, 배리어 프리 코스를 개발하고 화성시 관광취약계층까지 확대한 무장애 관광을 진행하고 있음

### 내용

#### 1) 추진과정

##### ○ 추진 주체별 역할

사무국	안내자	체험지 및 관광지	모든 참가자	행정
-투어 기획 -안내자 육성-관리 -체험지 관리 -참가자 모객	-체험관광지 답사 -지속가능관광교육 및 안전교육 수료 -투어 운영	-투어 일정 협의 -체험지 안전관리 -출입구 경사로 설치	-시티투어 참여 -기후위기 대응 규칙 준수 -사회적 관계형성	-예산 편성 -부서별 협조 -행정지원

##### ○ 체험지 네트워크 / 모두여행 ( 무장애 관광 ) 추진 과정

	2018	2019	2020	2021	2022~2024
체험지 네트워크 간담회	1차 간담회 (20개 체험지, 20명 참석)	2차 간담회 (25개 체험지, 30명 참석)	-관광약자 편의 시설 현황 조사 (79개 관광지 및 체험지)	3차 간담회 (30개 체험지, 32명 참석)	4차, 5차 간담회 (각 30개 체험지, 40여명 참석) *24년 진행 예정



<p>2019</p>	<p>3) 답사 2회 진행(리프트 버스 이용)                  - 일시: 1차 5/24(금), 2차 6/12(수)                  - 코스: 1차: 비봉습지공원-남양성모성지-공룡알화석산지                  2차: 용건릉-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우리꽃식물원                  - 참석: 장애인 단체, 관광진흥과, 안내자, 사무국 등 10명                  - 내용: 각 코스 내 방문지별장애인 접근성 및 편의시설 이용 편리성 확인</p> <p>4) 팸투어 진행                  - 일시: 11/29(금)                  - 코스: 병점역-제암리-우리꽃식물원                  - 참석: 장애인 및 활동지원사 등 25명                  - 내용: 물리적, 사회적 제약 해소하여 장애인, 취약계층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코스 개발 위한 사전 팸투어</p> <p>5) 장애인 인식교육 2회 진행                  - 신규안내자 양성교육                  · 일시/대상: 5/27(월), 시티투어 기존 및 신규 안내자 등 20명                  · 내용: '화성시 인권-시티투어에 담긴 인권 감수성'(남세현 한신대 재활학과 교수)                  - 안내자 심화교육                  · 일시/대상: 7/1(월), 시티투어 기존 및 신규 안내자 등 20명                  · 내용: '관계와 소통-다름을 만나는 시티투어' (이경희 장애인아간학교 교장)</p>
<p>2020</p>	<p>1) 장애인 단체 간담회 모두를 위한 관광(Barrier Free Tour)                  - 일시/장소: 7/21(화)~24(금) 4일간 / 아르뎀복지관3층 회의실                  - 참석: 아르뎀 복지관,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화성시지부, 한국시각장애인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뇌병변장애인협회, 장애인 연맹, 경기도농아인협회, 신장장애인협회, 장애인부모회, 자립생활지원센터, 동부자립생활지원센터 등                  - 내용: 시티투어 현황 공유 및 열린 관광(barrier free) 코스 개발을 위하여 전문성 및 맞춤형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청취</p> <p>2) 관광자원 및 관광약자 편의시설 수요조사                  - 코로나 시기 희망일자리 사업 진행                  - 8~10월(3개월) 안내자 3명</p> <p>3) 화성시 시티투어 관광지 및 체험지 관광약자 편의시설 현황 조사 79개소</p>
<p>2021</p>	<p>1) 무장애 관광 홍보                  - 무장애 관광 책자 제작                  - 무장애 관광 동영상 제작</p>

<p>2022 ~2024</p>	<p>1) 모두여행(관광약자 누구나 이용 가능한 여행) 정기 운영                  - 2022년 7회 131명 참석                  - 2023년 12회 203명 참석                  - 2024년 8월 8회 125명 참석</p> <p>2) 모두여행 및 북 콘서트 진행                  - 목적: 모두여행 투어 및 무장애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 일시: 2023. 11. 29.(수) / 꽃마루농원-전곡항 마리나하우스                  - 대상: 장애인 단체, 가족, 모두여행에 관심있는 시민 등 40여명                  - 주최주관: 화성시,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화성장애인인권누릴센터                  - 내용: 무장애 관광지 꽃마루 농원 두부 만들기 체험 후 장애인 여행작가와 함께 [전국 무장애 여행지 39] 북토크를 통해 무장애 관광지 확대 방안 마련</p>
-------------------	--



3) 주요 특징

-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모두 여행) 장애인, 체험지, 사무국 등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기반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참여 가능한 무장애 관광을 실현시킴
- (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개발) 취약계층의 관광 이용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장애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물리적, 사회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관광을 개발
-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확산) 투어 전반에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저탄소 여행과 지역주민과 참가자가 소통하고 모두가 참여 가능한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K-SDGs 의 12-10 번 목표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

## 추진성과 및 파급효과

### 1) K-SDGs 몇 번 목표 이행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 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세부목표 : 1-3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 ☞ 모두 여행으로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 체험지, 장애인 단체 ) 네트워크와 인프라 구축
- ☞ 2018년까지 전동휠체어 탑승 장애인은 투어를 이용하지 못했으나 모두 여행의 리프트 버스 도입으로 투어가 가능해지고,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가 증진됨

○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세부목표 : 12-10 지속가능한 관광의 확대를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한다

지표 : (1) 지속가능관광의 참여자 수

- ☞ 화성시 시티투어 착한여행 '하루' 는 화성시 생태·문화의 가치를 담은 관광으로 생태 자원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지역공동체 모두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공정여행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고 비장애인, 장애인 모두가 참여 가능한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23년 기준 256회, 6천 4백명의 시민들이 참여함

\* 2007~2023 : 총 2,739회 운영, 82,323명 참가

### 2) 사례의 파급력 ( 다른 기관이나 지역 등의 활동에 영향을 미쳤는가?)

- ( 모두가 참여 가능한 시설 개선 ) 기존 체험지와 협의하여 꽃마루농원, 채운농원 등 장애인화장실 설치하고 신규 체험지는 턱이 있을 경우 경사로 설치 요청 및 장애인 화장실 설치 요청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임
- ( 취약계층 이동권 보장 ) 리프트버스 업체가 경기권역에 1업체만 있기에 원활한 무장애 관광을 위해 관내 아르딴복지관 ( 관내 장애인 재활, 자립지원 복지관 ) 과 연계하여 화성시 리프트 버스를 공유
- ( 장애인 인식 개선 )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모두 ( 시티투어 안내자, 체험지 네트워크, 사무국 등 ) 가 참여하는 교육 매년 실시 (2019년부터)

## 평가 ( 애로사항, 과제 포함 )

### 1) 사례 전반에 관한 평가

- 장애인 포함 기초생활 수급자와 장애인, 중증장애 보호자 참가자는 전체 인원 중 5% 비율로 작지만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관광을 실현하고 있음
- 많은 체험지 시설에 장애인화장실이 없어 주변 복지관이나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고 장애인화장실 설치 비용의 부담을 가지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체험지를 대상으로 무장애 관광을 실현
- 화성시 관내 장애인 단체와 협력하여 무장애 관광에 대한 필수 내용과 의견을 수렴하여 화성시 시티투어 홈페이지 출발지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안내하고 무장애 관광 책자 및 동영상, 매뉴얼 제작

### 2) 사례의 지속성 평가 ( 당해연도에 국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례인가?)

- ( 지속가능한 여행 ) 2007년부터 화성시 시티투어 위탁사업으로 매년 예산 확보하여 프로그램 운영
- ( 지속적인 체계 구축 ) 화성시 장애인부모회, 장애인야간학교, 화성동탄자립센터, 화성장애인인권센터 등과 연계하고 체험지가 함께하여 장애인의 여행 권리 향상될 수 있도록 모두여행의 지속적인 정기 운영 ( 매월 1회 ) 추진



1



2

1. 2018 체험지 네트워크 간담회(인터뷰실)  
2. 2018 체험지 네트워크 간담회 의견수렴



4



4

3. 2019 체험지 네트워크 간담회(다목적실)  
4. 체험지 관광약자 편의시설 현황 조사



5



6

5. 2022 체험지 네트워크 간담회(대회의실)  
6. 2023 체험지 네트워크 간담회(요트체험)



7



8

7. 2019 열린관광지 답사(제암리순국기념관)  
8. 2019 열린관광지 답사(비봉인공습지)



9



10

9. 2023 모두여행 북콘서트(꽃마루농원)  
10. 2023 모두여행 북콘서트 간담회

# 11

## 우수항 스토리

작성기관명 : 도e뜸 (도봉 ESD 으뜸이)

### 가자! 은봉이 학봉이와 함께 떠나는 17개 지구별 여행

#### 가자! 은봉이 학봉이와 함께 떠나는 17개 지구별 여행 도e뜸(도봉 ESD 으뜸이)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발족된 ESD학습동아리인 '도e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2021년 도봉구청에서 직접 설계·운영한 서울시 자치구 최초 '도봉 ESD 전문강사 양성교육'을 통해 선발된 10명의 ESD 전문강사를 시작으로, 현재 14명의 ESD 전문강사는 ESD를 위한 자기주도학습에 힘쓰고 있다. '도e뜸'은 '환경교육'이라는 편협된 이해, 또는 트렌드를 쫓아 운영되는 ESD를 지양하면서 학생, 교사, 구민들에게 올바른 ESD를 이해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도봉구민으로 이루어진 학습동아리인 만큼,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과 행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도e뜸'은 도봉구의 캐릭터이자 우리 구 상징인 600년 역사의 은행나무인 '은봉이'와 방학동 지명의 '학'을 모티브한 '학봉이'와 함께 서울시에서 선도적이며 ESD 허브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다.

도봉구는 아름다운 산세와 자연경관으로 유명하며, 특히 '도봉산'과 '북한산' 같은 산들이 위치해 있어 자연친화적인 도시로 유명하다. 또한 도봉구는 풍부한 자연 환경, 공동체 중심의 사회적 지원, 상업과 주거가 어우러진 경제적 구성을 바탕으로 주민에게 지속가능한 삶을 제공하기에 ESD와 연계할 다양한 사업과 사례가 존재한다. 따라서 도봉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도e뜸'의 학습은 끝이 없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기 때문에 '도e뜸'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하여 도봉구를 공부하며 ESD를 통해 도봉구를 알리고 있다.

'도e뜸' 활동은 관내 초·중학교 ESD 수업지원과 월 1회 이상의 연구모임을 통한 ESD 수업연구,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ESD 활동(환경의 날 활동부스 참여 등)이 주를 이룬다. 특히 '도e뜸'은 관내 초·중학교 ESD 수업지원을 위한 질 관리를 위해 개인의 전문성 역량강화를 위해 연 2회 보수교육에 참여한다. 아울러, 수업의 표준화를 꾀하기 위해 수업 전에 '도e뜸' 회원 전체가 교안록을 패들렛에 공유하여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수업 후에는 학습일지를 작성하여 자기 성찰을 통해 좀 더 나은 ESD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e뜸'의 큰 성과는 2022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개발한 초등학생용 ESD 교재인 「우리 마을에서 지구별까지 이어지는 17개 약속」의 2판 개편에 참여, '5단원 양말목'과 관련한 단원 집필과 교구재 개발로 '도e뜸'의 '새로운 인사이트(insight)'를 발견했다는 점이다. 성공적인 단원 집필과 교구재 개발로 '도e뜸'은 도봉구와 연계한 ESD 사례를 열심히 발굴하여 ESD에 연계하는 수업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도e뜸'이 가장 우선시 하는 대한민국 귀속가능발전목표(K-SDGs)

'도e뜸'이 가장 우선시 하는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는 목표 4번 양질의 교육, 목표 11번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목표 17번 지구촌 협력강화이다. 17가지 목표 중 어느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기에, '도e뜸'은 ESD에 최대한 담아 '도봉의 미래들'에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다.

지금은 ESD 분야의 지역사회 마중물로 있는 '도e뜸'은 꿈이 있다.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행동과 실천으로 끌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e뜸'은 도봉구의 씨실과 날실이 되어 순환하고 나누고 이어가는 삶, 작고 느리지만 멈추지 않는 걸음으로 '지속가능한 도봉 내일'의 새 틀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 11

## 가자! 은봉이 학봉이와 함께 떠나는 17개 지구별 여행

### 도e뜸(도봉 ESD 으뜸이)

2021.08.27~현재

### 요약

도e뜸은 '주민주도형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연구모임'으로, 2021년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도봉구에서 출범하였습니다. 관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ESD 수업지원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ESD를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스스로 시민의 생태적 소양을 높이고 지역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도e뜸은 매달 1회 이상 연구모임을 통해 ESD 수업지원을 위한 수업 노하우를 공유하고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구청에서 지원하는 보수교육 등을 참가합니다. ESD 전문강사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위치에서 서울 지역의 ESD 확산을 위한 주춧돌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목적 / 배경

#### 1) 실천행동의 목적은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했는가?

- 도 e 뜸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UN 대학 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도시 (RCE) 를 인증받은 도봉구에서 2021 년과 2022 년에 실시한 '도봉구 ESD 전문강사 양성과정' 을 통해 선발된 '도봉 ESD 전문강사 (1 기, 2 기)' 로 구성되어 있음
- 처음에는 'ESD 전문강사' 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하였으나, 연구모임과 지속가능발전목표

- (SDGs) 실천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학습을 통해 'ESD 가 전환을 위한 첫 단추구나!' 라는 생각이 모여 자발적으로 '도 e 뜸' 연구모임이 진행하게 되었음
- 연구모임과 서울 지역의 ESD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을 이해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실천을 위한 일상생활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음

#### 2) 어떤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했는가?

- 환경교육 등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ESD 를 제대로 학생들과 교사, 시민들에게 이해시키기를 원했음
-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학습자에게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생태 다양성의 손실, 빈곤, 불평등과 같이 상호연결 되어있는 글로벌한 과제를 풀어가는 지식과 기술, 가치, 태도를 갖추도록 돕기 위한 교육인 ESD 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내용

#### 1) 추진과정

- (2021 년) 제 1 기 도봉 ESD 전문강사 양성 및 선발, 10 명 중심으로 도 e 뜸 조직, 도 e 뜸 운영을 위한 매뉴얼 제작
- (2022 년) 제 2 기 도봉 ESD 전문강사 양성 및 선발에 따른 도 e 뜸 조직원 확장
- (~ 현재) 제 1 기, 2 기 도봉 ESD 전문강사 중심의 조직 다지기

#### 2) 추진방법

- 관내 초·중학교 ESD 수업 지원
- 질 제고를 위한 지자체 지원의 보수교육 참여를 통한 교육 표준화 추진
- ESD 확산을 위한 파일럿 사업 (ESD 공동인증 학점제 등) 참여
- '2022. 모두의 학교 도봉배움터 주민주도학습프로젝트 공모사업' 에 참여하여 '콧노래 부르는 양말목' 주제로 초등 3~4 학년 (5 단원), 초등 5~6 학년 (5 단원) ESD 교재 개편 (2 차) 을 위한 집필과 교구재를 시범 제작
- 지역사회의 '환경의 날' 행사 부스 참여
- 국내외 RCE 도시 네트워크 활동 참여

#### 3) 주요 특징

○ 도 e 품은 ESD 에 특화된 지역주민 중심의 학습모임이지만 , 도봉지역의 지리 · 문화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ESD' 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

- 1) 양말목 활용을 통한 새활용 교육 지도
  - 2) 도봉 EM 센터의 EM 발효액을 제공하여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친환경 살림살이' 실천 독려
  - 3)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도봉구의 '깃대종' 인 도롱뇽 , 꼬리명주나비와 중대백로 등의 서식지와 생물의 관찰 독려 등
  - 4)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ESD 수업 기술 개발
- UN 대학 RCE 도시답게 국내외 RCE 네트워크에 따른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
- 1) 국내 RCE 도시 간의 네트워크 참여 ( 인제 , 통영 , 인천 등 )
  - 2) 국외 RCE 도시 간의 네트워크 참여 (RCE 기타큐슈 , 일본 등 )

4) 거버넌스 참여 기관과 역할 ( 공동추진인 경우 ) : 해당사항 없음

## 추진성과 및 파급효과

### 1) K-SDGs 몇 번 목표 이행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

○ K-SDGs 목표 4 번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 목표 11 번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과 목표 17 번 '지구촌 협력강화' 에 기여함

### 2) 사례의 파급력 ( 다른 기관이나 지역 등의 활동에 영향을 미쳤는가 ? )

- 도봉구가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이행과 실천을 위한 '주민주도형의 ESD 활동' 이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처음이자 유일하기 때문에 '도 e 품' 이 ESD 활동을 개척하고 있음
- '도 e 품' 의 ESD 활동이 타 지역에도 알려져서 많은 지자체와 기관에서 '도 e 품' 의 사례발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져 , 우리의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있음
- 1) 세종시교육청 ESD 전문강사 양성교육 '도 e 품' 사례 발표
  - 2) 부평구 ESD 전문강사 양성교육 '도 e 품' 사례 발표
  - 3) 한국외대 ESD 공동인증 학점제 '도 e 품' 사례 발표 등

## 평가 ( 애로사항 , 과제 포함 )

### 1) 사례 전반에 관한 평가

- '도 e 품' 은 ESD 확산에 따라 점차 조직이 커지고 있고 , 이에 따른 조직체계 다지기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음
- 조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구성원의 가치관 , 신념 , 태도 등의 형태를 변화시켜 조직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계획적 변화의 노력을 조직원 개개인에게 인식시키려 노력하고 있음
- 도봉구의 '생태전환' 을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이 조직의 가치를 증대하기 위해 조직의 구성원이 리더십의 언어를 갖추고 모두가 각자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수평적 소통 문화를 구축하고자 노력함

### 2) 사례의 지속성 평가 ( 당해연도에 국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례인가?)

- '도 e 품'은 관내 초 · 중학교 ESD 수업지원을 위한 'ESD 전문강사'로 출발했기 때문에 , '도 e 품' 조직이 와해되거나 없어지는 않을 것임
- ESD 활동 기반으로 도봉구의 '생태 전환' 을 꾀하기 위해 '도 e 품' 활동의 다양성이 극대화 될 것임



1



2

1. 도봉 ESD 전문강사 양성교육 최종 선발  
2. 연구모임



3



4

3. 관내 학교 ESD 수업지원  
4. 보수교육



5



6

5. ESD 확산을 위한 활동(1)  
6. ESD 확산을 위한 활동(2)



7



8

7. 콧노래 부르는 양말목 프로젝트  
8. 국내외 RCE 도시 네트워크 활동



# 12

## 우수항 스토리

작성기관명 : 숙명여자대학교 KUSA

### 숙명여자대학교 KUSA의 지속가능한 상반기



#### 전국의 60개 이상 대학교에 지부를 두고 있는 우리 유네스코학생회

전국의 60개 이상 대학교에 지부를 두고 있는 우리 유네스코학생회는 코로나 19가 가져온 제약을 피할 수 없는 학생단체였다. 이때까지 대면으로 진행되던 모든 활동이 중지됨과 동시에 교/내외의 모든 연결 수단 및 연합 활동 또한 끊겼다. 코로나 19가 어느 정도 잦아들고, 실질적인 동아리 활동에 착수하기 위해 우리 단체는 방향성을 바꿀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국제사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SDGs의 목표들의 달성을 위해 활동을 기획하게 되었다.

먼저, SDGs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숙지하고, 관련된 활동으로 뿔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SDSN X 서울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Y-OWG (youth - open working group) 활동에서는, 사전에 정책토론회에 필요한 지속가능개발과 지탱가능발전을 비교하는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다루는 강의를 비롯, 현재 청년공개작업반에서 자발적국가검토(VNR)에 관여하는 정도와 그 위치를 익히면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개념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추가적으로 2/3차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 SDGs 분야

별 달성 목표'를 기반으로 청년세대가 이러한 세부사항에 대한 이행정도를 실제로 점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이는 SDGs 목표 달성을 위해 전국에서 노력하는 청년세대들을 한데 모아 실질적인 모니터링과 청년 세대들의 피드백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17번 목표 지구촌 협력 강화에 부합하는 활동이었다.

두 번째로, 우리 단체는 교내에서 SDGs를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추진했다. 숙명여자대학교 학우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송이들아, 용기내자!'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대학가 주변은 항상 학생들이 먹고 남은 배달음식 쓰레기들과 플라스틱 컵, 빨대 등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길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것에서 문제의식을 느껴 학생들이 우리 프로젝트를 계기로 다회용기를 이용하는 데 주저함을 덜 느끼길 바랐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 앞 음식점 네 곳과 제휴하여 개인 용기를 지참해 가게를 방문할 경우,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였고, 이러한 후기를 올리면 친환경 생활용품키트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내세워 학우들의 참여 의식을 독려했다. 이 프로젝트는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인다는 점에서 SDGs 13번 목표 달성에 부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1차적 목표를 넘어 2차적인 소비자의 인식 향상을 이뤄냈으며, 우리 청년 세대가 문제상황을 인식하고 참여로 이어지는 SDGs 12번 목표 실천에 적합한 활동임을 인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울동행에서 주최하는 'ESG 기획봉사단'에 우리 동아리가 선발되어,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다. 숙명여자대학교 인근은 유달리 카페 상권이 발달해 있으며 커피를 내릴 때 발생하는 커피찌꺼기를 그대로 땅에 매립할 경우, 온실가스인 매탄이 발생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문제상황을 인식하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래서 우리는 숙명여자대학교 주변 카페 사장님께 협조를 요청하여 커피찌꺼기를 수거하고 이를 한 달간 발효시켜, 다육식물이나 채소, 식물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비료로 재사용시켰다. 그리고 이를 다육식물의 비료로 함께 제작하여 지역복지회관에 전달할 키트를 직접 제작하였다. 우리가 제작한 키트는 아름다운 가게, 효창종합사회복지관 등 식물 키트를 반려식물로 삼아 마음 치료에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취약계층에게 전달되었다. 이로써 ESG 및 SDGs 17번 목표 실현에 있어서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계기였다.

추가적으로, 학교 축제에서 학우들이 입지 않는 옷들을 사전에 기부받고, 이 옷들을 한데 모아 더 싼 가격으로 학우들에게 판매하는 <에코 빈티지마켓>을 개최하였다. 목표 금액의 이상인 112%를 달성하여 번 수익금은 우리의 기반이 되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70년 사업, 70together에 기부하여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처럼 우리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교내/외적으로 도전하였고, 학생 단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모색했다. 이러한 활동들이 단순하게 단기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배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울린 좋은 신호탄이기를 바란다.



# 12

## 숙명여자대학교 KUSA의 지속가능한 상반기

### 숙명여자대학교 KUSA

2024. 03. ~ 2024. 09 현재

### 요약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동아리 한국유네스코학생회(KUSA)에서 지속 가능한 상반기를 보내고자 여러 활동을 추진했다. 먼저 교외에서 SDGs에 관한 소양교육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토론회에 참여하여 서울연구원에서 9월에 발간될 지속가능전략 및 추진계획 최종 보고서에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교내에서 학우들의 다회용기 사용 독려를 위해 인근 상가와 제휴를 맺어 많은 숙명인들의 다회용기 참여를 이끌어내 환경에 기여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교내에서 벗어나 서울동행 기획봉사단에 선정되어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의미 있게 재활용하여 지역 복지센터에 기부하는 활동을 했다.

### 목적 / 배경

#### 1) 실천행동의 목적은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했는가?

2016년, SDGs 17개의 목표를 세워 2030년까지 가장 뒤에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개발을 우선시하고 차별을 종식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절반 가량의 시간이 흐른 지금 17개의 목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체감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KUSA(한국유네스코학생회)는 유네스코의 다양한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1965년 설립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산하 동아리이다. KUSA 숙명여자대학교 지부는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동아리 소속으로 평화, 자유, 정의, 인권 네 개

의 유네스코 이념과 더불어 17개의 SDGs 목표를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다.

#### 2) 어떤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했는가?

동아리원을 대상으로 SDGs 관련 외부 교육 참석을 통해 깊이 있는 배움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동아리 내의 토론회와 스터디를 진행하여 능동적인 배움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기반하여 숙명여대 학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실생활에서 SDGs를 실현하고자 한다.

### 내용

#### 1) 추진과정

서울연구원에서 2·3차로 제작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 SDGs 분야별 달성 목표'를 바탕으로 청년 세대가 이에 대한 이행 정도를 실제로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는 정책토론회 활동이다. 실제 전국을 배경으로 활동하고 있는 각 단체의 대표자들이 모인 토론회이기 때문에 각 지회·지부별 활동을 하면서 체감했던 변화나 SDGs 관련 교육을 받고 실제 사회에서 활동하면서 느꼈던 경험치들을 바탕으로 정책토론회에서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하고자 시작했다.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숙명여대 학우 전체를 대상으로 SDGs 12번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송이들아, 용기내자!'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포장을 위해 사용되고 버려지는 쓰레기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방문한 가게의 거절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개인이 실천하기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생각했다. '송이들아, 용기내자!' 프로젝트는 제로 웨이스트를 위한 '용기내 챌린지의 일환'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 앞 상권의 다회용기 포장 인식 개선과 학우들에게 제로 웨이스트 실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본 사업을 기획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울동행 기획봉사단에 참여하여 SDGs 12번 목표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커피 한 잔을 추출하는 데 사용되는 커피콩은 비율로 따지면 0.2%이고, 나머지 99% 이상은 폐기물이다. 커피찌꺼기를 그대로 땅에 매립할 경우 온실가스인 메탄이 발생해 지구 온난화의 요인이 된다. 카페 상권이 발달해 있는 숙명여자대학교 교내외 상황을 조사한 결과, 내용물이 세척되지 않은 채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는 일회용 컵과 커피 찌꺼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커피 찌꺼기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 가능하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퇴비로 발효시켜 다육식물의 생육에 적용하여 지역의 복지 센터에 다시 기부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 2) 추진방법

SDSN 과 서울연구원이 협업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2 차, 3 차 보고서를 청년 세

대들에게 전달하였다. 청년 세대들은 SDGs 개론, OCA 개론, 서울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서울 SDGs 소개 영상들을 보고 미리 SDGs와 관련된 퀴즈를 풀어 필수 상식을 쌓고, 정책토론회에 대비했다.

'송이들아, 용기내자' 프로젝트의 경우 학교 앞 음식점 네 곳과 제휴하여 숙명여대 학생들이 '송이들아, 용기내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개인 용기로 포장할 경우 2000 원 할인을 제공하였다. 추가적으로 SNS에 참여 후기를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친환경 생활용품 키트를 제공하였다.

'서울동행 기획봉사단' 활동의 경우 먼저 이해관계자로 분류되는 숙명여자대학교 주변 카페 사장님들께 협조를 요청하여 커피 찌꺼기를 수거하여 거름으로 만들기 위해 커피 찌꺼기를 3~4 주간 발효시켰다. 다육식물을 구매해 발효시킨 커피 찌꺼기와 혼합해 지역 복지회관에 전달할 식물 세트를 손수 제작하였다. 다육식물을 만드는 데에 이용된 재료 또한 모두 업사이클링 화분 세트, 친환경 거름, 등 모두 친환경 재료였다. 이 키트를 모두 제작한 뒤 아름다운 가게 숙명여대점,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용산교육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 화분을 기증했고, 커피 찌꺼기를 어떻게 재활용해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는 데에 일조하였는지 종이카드를 제작하였다. 이 카드를 바탕으로 교내에서 캠페인 또한 실시해, 사업을 잘 이해하고 퀴즈를 맞추는 학우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키트와 손수 만든 키트를 전달하였다.

### 3) 주요 특징

사전 교육에서는 지속가능개발과 지탱가능발전을 비교하는 개념에 대한 강의와 SDGs 모니터링 체계에 대해서 수강하여 지금 현 청년공개작업반에서 자발적국가검토 (Voluntary National Review, VNR)에 관여하는 정도와 그 위치를 익힐 수 있었다. 특히 5개의 핵심 SDGs를 선정하고 지난 1년간의 이행 성과와 향후 1년간의 이행 방향을 지정하여 4년 주기로 제출하는 자발적국가검토 보고서가 이후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ESCAP)에서 이행될 검토 회의에도 반영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송이들아, 용기내자!'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숙명 KUSA 동아리원 모두는 다회용기 사용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다회용기 사용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귀찮은' 상황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숙명 KUSA는 프로그램 기획에 있어 '2000원 할인' 혹은 추가 토폭 제공 등 큰 참여 유인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등교 시 용기를 가져와야 한다는 귀찮음의 감정을 뿌듯함으로 맞바꿀 수 있도록 했다. 한 달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동안 진행하고 진행 이전에 적극적인 홍보 행사를 진행하여 최대한 많은 학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 역시 행사 이후

에도 다회용기 포장에 적극적인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기여했다.

'서울동행 기획봉사단'의 경우 단순히 교내에서 커피 찌꺼기를 수거하고 활용하는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지역 상권에 우리의 사업 목표를 이해시키고 협조를 구한 것이 특징이다. ESG 사업에 대해서 지역 공동체를 대상으로 이해시키고, 우리의 이해관계자로 포괄하기 위한 단계를 구성했다.

## 추진성과 및 파급효과

### 1) K-SDGs 및 번 목표 이행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본 청년공개작업반에서 도출한 달성목표별 수정된 세부계획을 제 3차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을 통해 2025년 UN에 제출하는 자발적지역검토 (voluntary local review, VLR)에 반영될 예정이다.

'송이들아, 용기내자!' 프로젝트는 K-SDGs 12번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삶 속으로 가져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환경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토대가 되는 것은 소비자의 인식 변화이다. 변화된 인식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현명한 소비를 할 때, 생산자도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생산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서울동행 기획봉사단' 활동 역시 12번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에 기여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커피 찌꺼기는 일회용 컵 못지 않게 그대로 매립될 경우 메탄을 발생시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되며, 숙명여자대학교 학교 근처 카페에서 하루에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의 양만 합쳐도 상당한 양이다. 이를 수거하여 퇴비로 발효시키고 다육식물의 생장에 재활용함으로써, 또 다른 지속가능한 생산을 이끌어내어 12번에 부합한다.

### 2) 사례의 파급력 (다른 기관이나 지역 등의 활동에 영향을 미쳤는가?)

환경과 SDGs 달성을 위해 전국에서 노력하는 청년세대들을 한 자리에 모아 서울시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2, 3차 보고서를 검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17번 목표 지구촌 협력 강화의 부문과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KUSA를 포함한 청년 세대들이 세부사항 별로 피드백한 것이 실제로 9월에 나올 최종 보고서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이 청년 세대의 의견까지 포괄하여 시행된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송이들아, 용기내자!' 프로젝트는 단순히 일회용기를 대체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넘어 일회용품 자

체를 줄이기 위한 소비자의 인식 향상을 이뤄냈으며 공급자의 참여도 필수적임을 인식하게 했다. 학교 근처 상권에서도 참여 의사를 내비추며 공급자들의 태도 변화의 단초를 만들었다. '서울동행 기획봉사단' 의 경우 ESG 취지에 공감하는 지역 기관들과 협력하여 ESG 이념을 학교 구성원 외의 시민들에게 알렸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직접 만든 식물 키트는 지역의 취약계층과 식물을 반려식물로 삼아 마음 치료에 이용할 수 있는 효창동 거주 노인들에게 전달되었다. 전달 시에도 우리의 목표와 성과 달성 목표 메시지를 담은 카드를 같이 전달하니 그 취지에 공감해주시며 ESG 및 SDGs 17 번 목표 실현에 있어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 평가 ( 애로사항 , 과제 포함 )

### 1) 사례 전반에 관한 평가

SDGs 목표들이란 전지구적 차원의 목표이기에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에게는 멀게 느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로감을 유발하기도 한다.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용무를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만 하는 일들이 인류 공동의 목표를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들이 여러 겹이 될 경우 스스로가 꼭 인류의 가치를 해치는 사람이 된 것만 같은 착각을 주기도 한다. 착각들은 모여서 피로감이 된다. 개인적인 용무들을 처리하는 와중에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까지 들게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가치를 고려하는 행위 자체를 기피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개인이기에 기업이나 국가, 국제기구 단위에서의 행동을 본다면 무력감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KUSA 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격려를 전하고 실천을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어주고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사람들을 묶어주는 가교가 되고자 한다. 그렇게 KUSA 는 지난 학기 동아리 부원들에서부터 숙명여자대학교 학우들, 지역 상권,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위자를 묶어주는 프로젝트들을 기획하고 실행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개선점 또한 있었다. 예산의 경우, 회비만으로 운영되어 프로젝트를 확장하는데 제한이 컸다. 또한 사업 과정 전반에 거친 모든 단계를 관리·감독하는데 무리가 있다. 대표적으로 위에서 소개했던 식당 내 일회용품 사용뿐만 아니라 기획봉사단 활동 과정에서 커피콩 찌꺼기와 플라스틱 컵의 문제를 동일하게 인지했으나 플라스틱 컵 문제는 제외된 점, 나아가 행사 참여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증정했던 친환경생활키트 재료의 재배 과정 및 공정, 배송 과정이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는지 알 수 없었던 점 등이 있다.

### 2) 사례의 지속성 평가 ( 당해연도에 국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례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KUSA 의 활동들은 파트너십을 위한 가교가 되겠다는 다짐을 실현시킨 것에 의의가 있다.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동아리 부원들의 지식을 함양하고, 동아리 부원들과 용기내 챌린지를 학우들과 함께 실천하며 자연스레 주변 상권에 변화를 유도했다. 서울동행 기획봉사단으로의 참여는 KUSA 의 부원들, 교내의 학우들, 학교 주변 상권, 공공기관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와 노력을 성과로 만들어 냈다.

다회용기프로젝트에 참가한 한 학우는 'KUSA 의 용기내 프로젝트로 자연스럽게 용기내 챌린지에 참가할 수 있었고 어렵지 않아 앞으로도 개인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는 평가를 남겨 주었다. 더불어 서울동행 기획봉사단으로 함께 하게 되었던 효창종합사회복지관에서 ESG 사업에 큰 동의와 공감을 표현해주었고 추가적인 사업 또한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다. 숙명여자대학교에 처음으로 KUSA 지부가 생긴 이래 60 년이 넘는 시간동안 KUSA 는 기수를 이어가며 꾸준히 이어져 왔다. 숙명 KUSA 는 사회적 가치와 인류 공동의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민주주의, 자유, 정의,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고 앞장서 외쳤으며 변화하는 사회의 가치에 발빠르게 움직였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과제이자 가치로 떠오른 '지속가능성' 은 현재 KUSA 숙명여대지부의 활동 기반이 되었다.

몇 년간의 KUSA 는 지속가능성과 SDGs 실천에 관심이 있는 부원들의 활발한 참가로 신입부원들 또한 유관 활동에 관심이 매우 높다. 이번 학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KUSA 는 학우들의 의류 기부로 이루어지는 빈티지 마켓, 타 KUSA 지부와 협력하는 플로깅 등을 기획하고 있다. 앞으로도 KUSA 숙명여대지부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 자유, 정의, 인권의 유네스코 이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가 될 것이다.



9

2

3

4

# 13

## 우수항 스토리

작성기관명 : 유엔아카데미팩트 어스파이어 한국사무국 (UNAI ASPIRE Korea)

### ‘공존의 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및 세계 시민교육(GCED) 멘토링을 통한 청년 주도 교육공동체 구축

#### UN Academic Impact(UNAI)는 전 세계 대학

UN Academic Impact(UNAI)는 전 세계 대학들을 잇는 HUB 기구로, 2010년 11월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의 제안에 따라 UN 본부에서 출범하여, 교육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성취를 목표로 ‘모든 이를 위한 교육’, ‘평등한 교육 제공’, ‘고등교육체계 역량 강화’ 등 ‘UNAI 10대 원칙’을 수립하였다.

청년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이러한 10개 원칙의 실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UNAI ASPIRE(UN Academic Impact Action by Students to Promote Innovation and Reform through Education)는 2011년 발족된 이래, 현재 국내 9개의 대학교에서 9개의 지부(경기대, 경희대, 고려대, 수원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동대, 한성대, 경상국립대)가 활동 중에 있다.

이렇듯 본 단체는 교육을 통해 세계의 변화를 주도하고자 하는 목표와 비전 하에 세계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 상황에 대하여 청년의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 방향에 맞게 자체적으로 매우 다양한 프로젝트(캠페인, 학술세미나, 포럼, 해외 봉사, 정책 제언, 워크샵 등)를 통해 지역 사회를 비롯, 국

가, 더 나아가 세계가 공유하는 범분야 이슈의 대부분을 다루고 있기에, 쌓아온 경험치를 교육에 접목하여 ‘고등 교육 역량 강화’라는 중점 과제를 주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다. 특히 미래 세대의 세계시민의식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다변화된 국제 사회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돕는 것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었다. 이에 따라, 본 단체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제작한 GCED 및 ESD 교안을 활용하여 관련 기본 개념은 물론,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분석하며, 함께 토론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과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 SDGs와 그 국내 접목으로써 K-SDGs의 실현

SDGs와 그 국내 접목으로써 K-SDGs의 실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인식 제고이다. 정부 주도로 관련 법과 정책을 만들어 일방향적인 배포에 가깝게 시행하는 것은 이행 주체를 협소하게 하고 정책에 대한 설득력과 효과성마저 떨어뜨리기에 그 자체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필연적인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결국, 새로운 발전 담론에 대한 논의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시급한 당면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이 지속가능발전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방식은 이전의 근대화 과정에서 보이는 ‘발전국가’형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SDGs의 활용과 정책화 모두 기존의 ‘top-down’ 방식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실제로 이러한 국내외적 SDGs의 달성과 그 필요성, 글로벌 이슈와의 연계성 등에 있어 시민들의 인식은 여전히 미약하다. 그러나, 앞으로의 지속가능발전이 그 자체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관(官) 주도의 이행 거버넌스 체계를 탈피해 시민 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bottom-up’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발전의 적극적인 행위 주체로 시민 사회를 바라보고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더욱이, 급변하는 사회에 발맞추어 빠르게 목표와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 및 환류하는 순환 프로세스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시민 사회의 다양성이라는 input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 ESD와 GCED는 이러한 거시적 문제 상황을 타파

ESD와 GCED는 이러한 거시적 문제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시민들이 글로벌 의제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지역 사회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본질적인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활발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K-SDG 4-7은 정책 과제로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강화’를 수립하였으나 관련 지표의 목표치조차 설정되어있지 않은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국가 차원에서 ESD와 GCED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면서도 실질적인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때에, 국제청년단체로서 우리 UNAI ASPIRE Korea는 ESD와 GCED의 직접적 이행을 통해 지역사회에 세계시민의식을 전파, 확산하는 것이 단체의 목적에 부합해 사회의 변혁을 이끌 수 있는 핵심이라 판단하여 본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구현하였다.

## 13

## ‘공존의 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및 세계시민교육(GCED) 멘토링을 통한 청년 주도 교육공동체 구축)

유엔아카데미팩트 어스파이어 한국사무국  
(UNAI ASPIRE Korea)  
2014년 3월 3일 ~ 현재

### 요약

2011년 유엔아카데미팩트 산하 자발적 청년단체로서 출범한 이래로, UNAI ASPIRE Korea 는 교육을 통한 지속가능한 세계로의 변혁과 세계시민의식의 함양 및 확산을 비전으로 14년째 활동 중에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및 세계시민교육(GCED) 멘토링은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계시민으로서 국제이슈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 주고 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 사업으로, 이른바 ‘공존의 교육’이라는 가치 하에 시대적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법으로서 진정한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탐구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약 1,800여 명의 지역 학생들이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학교 현장에서 배울 수 없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범분야의 국제 문제가 학생들의 일상, 지역 사회 내 여러 문제와 어떻게 밀접하게 맞닿아있는지 발견하고, 지역사회의 SDGs 달성을 목표로 봉사,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접목하여 실천해왔다. 이를 기반으로 사회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진취적인 인재로 거듭나기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었다.

청년이 직접 주도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을 시민 사회 내로 전파하고 세대를 거듭하여 지속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사회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져올 자발적, 주체적 교육공동체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목적 / 배경

#### 1) 실천행동의 목적은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했는가?

##### - 기관 소개

UN Academic Impact(UNAI)는 전 세계 대학들을 잇는 HUB 기구로, 2010년 11월 반기 문 제8대 UN 사무총장의 제안에 따라 UN 본부에서 출범하여, 교육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전목표의 성취를 목표로 ‘UNAI 10대 원칙’을 수립하였고 그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10개의 Global HUB 대학을 지정하였다.

UNAI ASPIRE는 UN Academic Impact Action by Students to Promote Innovation and Reform through Education의 약자로, 2011년 앞서 언급한 전세계 10개의 UNAI HUB 대학 중 하나인 대한민국의 한동대학교에서 최초로 발족되었으며, 현재 국내 9개의 대학 교에서 9개의 지부(경기대, 경희대, 고려대, 수원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동대, 한성대, 경상국립대)가 활동 중에 있다. 청년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모든 이를 위한 교육’, ‘평등한 교육 제공’, ‘고등교육체계 역량 강화’ 등 UNAI의 10개 원칙의 실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 - 실천 행동의 목적과 그 시작

기관 소개에서 상술했듯, 본 단체는 교육을 통해 세계의 변화를 주도하고자 하는 목표와 비전 하에 세계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 상황에 대하여 청년의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 방향에 맞게 자체적으로 매우 다양한 프로젝트(캠페인, 학술세미나, 포럼, 해외 봉사, 정책 제언, 워크샵 등)를 통해 지역 사회를 비롯, 국가, 더 나아가 세계가 공유하는 범분야 이슈의 대부분을 다루고 있기에, 쌓아온 경험치를 교육에 접목하여 ‘고등 교육 역량 강화’라는 중점 과제를 주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다.

특히 미래 세대의 세계시민의식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다변화된 국제 사회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돕는 것이 최우 선으로 고려되었다. 이에 따라, 본 단체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제작한 GCED 및 ESD 교안을 활용하여 관련 기본 개념은 물론,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분석하며, 함께 토론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과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 2) 어떤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했는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그 국내 접목으로서 K-SDGs의 실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

민의 인식 제고에 있다. 정부 주도로 관련 법과 정책을 만들어 일방향적인 배포에 가깝게 시행하는 것은 이행 주체를 협소하게 하고 정책에 대한 설득력과 효과 성마저 떨어뜨리기에 그 자체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필연적인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결국, 새로운 발전 담론에 대한 논의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시 급한 당면 과제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SDGs는 기존의 MDGs에서 포함된 논의보다 훨씬 다양한 이슈를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수많은 세부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으로, 이러한 포괄성이 각 목표 간의 연결지점이나 상호 간 다소 양립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논의를 미흡하게 하기에, 전적으로 SDGs를 이행하는 각국의 정책적 우선순위에 기초하여 해석되고 적용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재량의 영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가장 필요한 방식과 체계가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K-SDGs 또한 그 고민에 대한 답변의 하나로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이 지속가능발전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방식은 이전의 근대화 과정에서 보이는 '발전국가'형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SDGs의 활용과 정책화 모두 기존의 'top-down' 방식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국내외적 SDGs의 달성과 그 필요성에 있어 시민들의 인식은 미약한 편이며, 글로벌 이슈와의 연계성에 대해 그다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의 지속가능발전이 그 자체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관(官) 주도의 이행 거버넌스 체계를 탈피해 시민 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bottom-up'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multi-stakeholder 간의 꾸준한 논의를 바탕으로 SDGs를 이행하는 것이 SDG 17의 파트 너십에서도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일종의 규범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의 적극적인 행위 주체로 시민 사회를 바라보고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더욱이, 급변하는 사회에 발맞추어 빠르게 목표와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 및 환류하는 순환 프로세스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다양성이라는 input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ESD)과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이하 GCED)은 이러한 거시적 문제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시민들이 글로벌 의제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지역 사회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본질적인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활발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K-SDGs 세부목표 4-7은 "지속가능발전,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문화 확산, 세계 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한다."고 명시하면서, 정책 과제로 '지속가능발전 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강화'를 수립 하였다. 그러나 관련 지표를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가 설정조차 되어있지 않은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국가 차원에서 ESD와 GCED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면서도 실질적인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때에, 국제청년단체로서 우리 UNAI ASPIRE Korea는 ESD와 GCED의 직접적 이행을 통해 지역사회에 세계시민의식을 전파, 확산하는 것이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여 우리 사회의 변혁을 이끌 수 있는 핵심이라 판단하여 상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구현하였다.

## 내용

### 1) 추진과정

단체 발족 이후 2014년 한동대학교 지부에서 가장 먼저 해당 프로젝트를 포함 두호고등학교에서 시행한 이래 타 지부로 확장되어 2024년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그 체계가 안정화 됨에 따라 더 많은 교육을 전파하기 위해 사업의 범위를 넓혔고, 포함 두호고등학교, 포항고등학교, 포항 장성고등학교, 신장고등학교, 소하고등학교, 미사고등학교, 자양고등학교, 안양 부흥중학교, 동작청소년문화의 집(초등학생) 등으로 출강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현재까지 누적 약 1,800여명의 학생에게 교육을 제공하였다.

### 2) 추진방법

#### ① 자체 커리큘럼 제작 및 수업 구성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시민교육의 3가지 핵심 개념 영역인 인지적 영역, 사회-정서적 영역, 행동적 영역에 착안하여 3단계로 수업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다.

단계	내용
인지(문제에 대해 '이해')	수업을 바탕으로 문제의 정의와 원인 등 파악
공감(문제에 대한 '공감')	역지사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실천(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실천')	해결책 고안, 실천 활동 참여

멘토링의 세부 주제는 매 학기, 각 지부별로 상이하며, SDGs 전체 목표 가운데 주제와연계 활동을 고려하여 선택된다.

또한, 사고의 확장과 실천으로의 연결을 위해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교수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멘토와 학생 간 쌍방향의 의사소통, 토론, 체험 활동을 위주로 진행한다. 학생들이 직접 지역 사회 주변의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SDGs와 연계하여 문제 상황을 발굴 및 인식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파악한 후 그에 적절할 캠페인/프로젝트 등을 기획 및 실천,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② 교안 및 교구 제작

교안은 ppt와 워드 등을 이용하여 이론 수업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내용 이해를 돕는 여러 게임과 활동을 위한 교구 역시 수업 내용에 맞게 문구류를 이용하여 직접 제작한다.



#### ④ 출강 및 피드백

교안과 미리 구성한 계획, 수업 목표에 맞게 수업을 진행하며, 수업 후에는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드백을 받아 정리한다. 정리된 피드백을 다음 수업의 준비와 시행 전반을 위한 최우선적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수업의 마지막 부분인 '실천' 단계에 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외부 프로젝트가 있는 경우, 준비 과정의 전반에 있어 멘토링을 제공하고 실제 시행 일자에 함께 참여한다.

### 3) 주요 특징

#### - 차별화된 프로그램

대학(원)생 청년들이 직접 SDGs에 대해 탐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세계시민의식의 자발적 실현과 확산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민간 차원에서 배움의 순환을 이루기 때문에 효율과 효과 측면에서 상당한 강점을 갖는다.

또한, 일반적인 강의식 교육 프로그램과 달리 SDGs에 대한 이론을 현실에 직접 접목하여 스스로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 실천하는 등 더불어 사는 삶의 자세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한다. 이는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사회를 보다 포용적인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는 정치적 과정을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 다양한 행위 주체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파악하면서 해결책을 직접 디자인함으로써 소통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기를 수 있다.(학생 참여적 모형)

### 추진성과 및 파급효과

#### 1) K-SDGs 및 번 목표 이행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 - 프로젝트 자체:

##### ① K-SDG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및 세부목표 4-7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프로젝트는 K-SDG 4-7의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목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서, 목표 달성 근거 등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그 시행 구조 또한 체계가 잡혀 있지 않은 문제를 민간 차원에서 타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식을 제안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② K-SDG 17 (지구촌 협력 강화) 세부목표 17-7

청년과 지역 학생들이 교육을 매개로 만나 SDGs를 배우고 논의하는만큼,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직접적 역할을 한다.

##### - 프로젝트가 다루는 주제: K-SDGs 전체

해당 프로젝트는 그 특성 상 K-SDGs 전체를 강의 주제로 삼아 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상 모든 목표를 다루었다. 이론과 실제의 조화를 기반으로 각 목표가 나타내는 여러 문제 상황을 학생들이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MGoS)의 핵심 주체로서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사회가 SDGs 이행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제시할 수 있다.

더불어, SDGs의 달성이 더 이상 정부만의 과제가 아닌, 시민 사회 내 각 주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가능한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시사점을 던진다.

#### 2) 사례의 파급력 (다른 기관이나 지역 등의 활동에 영향을 미쳤는가?)

##### - 해외 민간공공외교 부분으로의 연결

해당 프로젝트는 SDGs 이행에 있어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효과적인 '민간공공외교' 방안과도 연결될 수 있다. 현재 한 국가의 공공외교가 보여주는 '한류'에 집중된 문화 외교, 콘텐츠적 매력의 활용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의제를 선도하고 주창하는 국가'로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 역시 상당한 의미가 있다.

국제사회의 공익에 기여하는 광범위한 시민, 지역 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국제적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포용적인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솔루션을 모색하면서 타국민의 관심과 동참을 이끌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발전적인 공공외교 방안이 될 것이다. 실제로, 본 단체의 일본 지부(UNAI ASPIRE Japan)와 정기적(6개월 단위, 현재까지 12회 진행)으로 개최하는 포럼인 'Good Will Session'을 통해 해당 프로젝트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양국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마주하는 글로벌 의제에

대한 액션 플랜을 도출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상호 간 공고한 협력을 이룩하고 있다.

양국 청년 간 공동 선언문 및 결의문을 작성하여 GCED와 ESD 이행에 대한 의지와 구체적 계획을 담았고, 주기적으로 성과를 공유 하였다. 일본 지부와의 소통에 있어 해당 프로젝트를 활용하고 타국 에까지 전파할 수 있었 기에 이것 역시 민간공공외교의 새로운 실천적 형태로서 구체적인 방식을 제 안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 탁월한 비용 효과성으로 인한 확산 가능성**

소요 시간이나 예산 등 투입되는 인풋에 비해 효과성이 높아 더 많은 지역의 학생들 을 대상으로 출 강을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2014년 이래로 출강 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충분히 확산이 가능하며, 여건에 따라 이론 부분 강의 에 있어 온라인 방식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적 다양성에 맞게 적절히 조절 가능하다.

**평가(애로사항, 과제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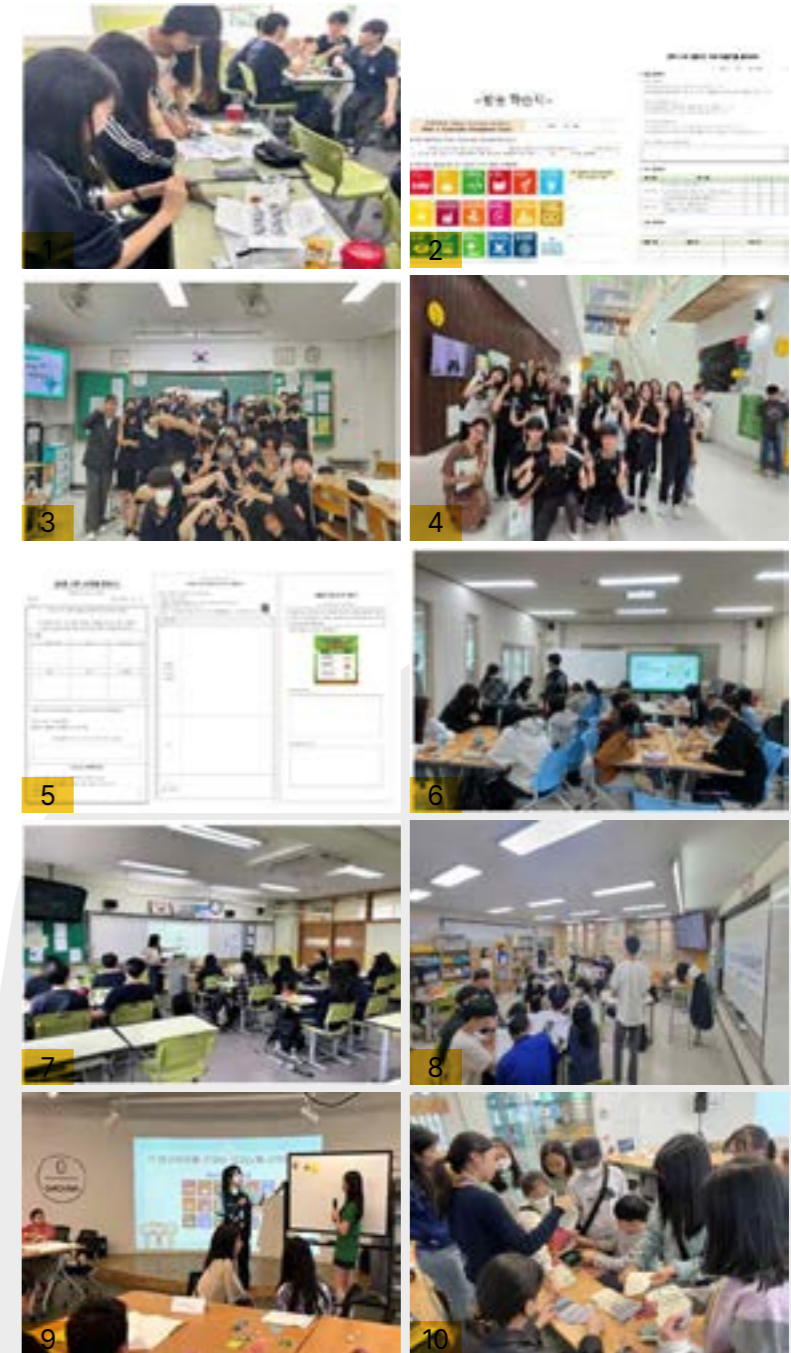
**1) 사례 전반에 관한 평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소수의 지식인 계층에 국한한 세계시민의식 전파가 아닌 앞 으로 대한민 국을 이끌어 갈 미래 세대의 주축에게 그것을 알리고 익힐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 또한, 학습자 대상 자체 피드백 조사에 따르면 많은 청소년들이 목표로 하는 대학의 대학(원)생 선배들이 직접 멘토링을 한다는 것에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다른 기타 강의형 프로그램에서의 교수자와의 관계보 다 훨씬 강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어 효과를 더욱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욱이, 세계시민 관련 주제 에 대한 경각심과 책임 감을 깨달았다는 응답이 많아 학습자에게 있어 파급력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후속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에 있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교육을 바탕 으로 학생 들과 진정성 있는 '지속가능한'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본 단체의 캠페인과 프로 젝트 등을 수행함에 있 어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함께 사회 변화에 목소리를 낼 수 있기에 지역 사회 기반 SDGs 이행 네트워크를 보다 넓힐 수 있다.

**2) 사례의 지속성 평가 ( 당해연도에 국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례인가 ?)**

이미 2014 년 시작된 이래로 11 년차에 이르는 현재까지 장기적으로 사업이 이어져 오고 있 으며, 처음에 시행하지 않았던 지부로도 확산되어 출강의 규모가 상당히 크게 확대되었으 므로 지속성은 확실히 담보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발행처 \_ 사단법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발행일 \_ 2024년 12월

주 소 \_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370번길 55, 상가동 201호

전 화 \_ 042-221-4990

홈페이지 [ksdgs.org](http://ksdgs.org)

본 사례집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 강화 방안」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